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박사 학위논문

은퇴와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 연구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심 현 정

국문초록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은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고, 금융회사들은 은퇴시장에 관심을 갖고 은퇴자산 관리에 대한 마케팅을 확대하였다.

은퇴가 주목을 받던 초기 시점에 학계와 시장의 관심은 은퇴자금을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가에 있었으나 점차 은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성숙하고 은퇴생활자들이 늘어가면서, 은퇴준비에서 은퇴 후 생활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정년의 축소로 인해 은퇴생활기간의 연장되는 가운데 은퇴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없이 필요자금 마련에만 초점을 둔 은퇴 준비로는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계의 소비지출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며 또한 중요하다. 제한된 소득과 자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가계의 소비지출은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보다 밀접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은퇴 후 소비지출과 관련해 은퇴 전후의 소비지출규모를 비교하거나 은퇴 후 소비지출수준을 소득대체율, 노후 생계비의 관점에서 추정하는 연구, 은퇴자 가계의 소비생활양식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횡단적 접근방식을 취하거나 시점 간 비교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은퇴 전후 및 은퇴생활기간을 모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기의 시간 경과에 따른 소비지출의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 특징과 변화를 동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은퇴기 가계의 필요와 욕구를 보다 현실성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3-18차 자료를 분석

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대상 가게와 분석모형을 달리 적용하였다. 먼저 은퇴 시점 전후 가게 소비지출을 비교하기 위해 은퇴 전후 1년의 소비지출이 분석자료에 반영된 가게를 선별하여, 은퇴 전후의 소비지출에 차이가 있는지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은퇴 자체가 가게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은퇴 여부를 포함한 가게지출함수를 구성하고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조건의 변화를 통제했을 때 은퇴가 가게소비지출에 미치는 순 효과를 구분하고, 은퇴소비패즐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라 가게의 소비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종단적 다층모형을 활용해 가게 소비지출의 변화 궤적을 추정하고, 소비지출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가게는 은퇴 이후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게의 은퇴 전후 소비지출규모를 비교한 결과 은퇴 전 해에 비해 은퇴 다음 해의 총 소비지출이 약 8.9% 줄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모든 가게에서 보편적이고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같은 가게 특성의 영향이나 은퇴 당시의 환경에 따라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둘째, 은퇴 후 일부 소비비목의 지출에 유의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은퇴 전후 가게의 소비지출양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은퇴 후 노동관련 지출과 교육비지출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소비비목의 지출액 순위에 큰 변화가 없고, 대부분의 소비비목별 지출비중도 은퇴 전후에 유의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은퇴 후 가게의 소비지출 규모가 줄면서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 필수적인 지출이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은퇴 후에는 가게의 필요(wants)보다는 욕구(needs) 충족을 위한 지출이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셋째, 가게소비지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의 변화를 통제하였을 때, 은퇴 자체는 가게의 총 소비지출을 3.9%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소비지출양식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은퇴로 인한 심리적 변화나

라이프스타일 전환에 따른 소비니즈 변화는 소비지출 감소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개별 소비비목의 지출규모와 비중은 가계 소득,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등 실질적으로 소비니즈를 반영하는 가계특성요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은퇴 자체가 가계 소비지출양식의 경향성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은퇴기 가계의 총 소비지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종단적 다층모형을 통해 은퇴자 가계의 소비지출궤적을 추정한 결과, 은퇴자 가계의 총 소비지출은 평균적으로 연간 1.5%씩 감소한다. 이러한 경향을 확인하고 반영해 은퇴필요자금을 산정한다면, 은퇴 후 소비지출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다소 왜곡되어 추정된 기존 은퇴설계의 은퇴필요자금 규모를 현실화 할 수 있다.

다섯째, 은퇴기 가계의 총 소비지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궤적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 특성, 가계경제 특성, 이벤트 요인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흐름 내에서 증감을 거듭하며 변화된다. 가구주 연령이나 혼인상태에 따라 가계마다 시간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율이 상이하기도 하고, 은퇴기에 발생하는 이벤트들이나 가계경제 요인들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지출이 달라진다. 따라서 특정 은퇴자 가계의 소비지출수준과 그 변화를 상세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은퇴자 가계의 내, 외부적 특성과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은퇴기 가계의 일부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지출비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식비와 교육비, 통신비, 경조사비는 유의한 감소세를 보였고, 외식비와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비는 유의한 증가 경향을 보였다. 지출비중의 궤적을 보면, 교육비, 통신비, 경조사비, 차량유지비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고, 외식비,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비의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졌다. 다만, 식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등 필수재적 성격을 띠는 소비비목들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지출수준이 눈에 띄게 증감하지 않았고, 선택재적 성격을 띠는 소비비목들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일곱째,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은퇴가 가계의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지출비중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시간의 영향보다는 가계특성 및 가계경제특성, 이벤트 요인의 영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각 소비비목 별로 지출규모와 비중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요인이 은퇴가 소비지출양식 변화에 전반적인 기여를 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개별 소비비목의 지출규모를 추정함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보인 가계 및 가계경제 특성과 이벤트요인(혼인상태의 변화, 건강변화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추정방식을 활용하면, 실무적 측면에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는 정교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 직후 소비는 은퇴 전 대비 3.9%~8.9% 감소하며, 은퇴 후 감소한 소비수준은 은퇴 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연간 약1.5%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주기가설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이를 이론적 바탕으로 한 기존의 은퇴필요자금 추정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이러한 경향성은 은퇴자 가계의 소비지출을 평균적 관점에서 바라본 결과임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개별 은퇴자 가계의 소비지출변화 양상을 보다 세밀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 외에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 및 가계경제 특성, 은퇴가 이벤트 요인을 포함한 추정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 실무적,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 후 소비가 은퇴 전에 비해 감소하며, 이후 은퇴생활 가운데 다소 변동은 있으나 전반적인 소비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발견을 바탕으로 은퇴 후 소비지출수준을 고정적으로 이해한 은퇴필요자금 산출방식을 수정하고, 가계의 특성을 반영한 은퇴가 필요 생활비를 추정모형을 구체화하여 보다 정교한 은퇴설계 솔루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은퇴가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은 지출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필수재 지출 위주로 변화될 여지가 크고, 이에 따라 가계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다른 소비비목의 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은퇴자 가계의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 주요 소비비목 지출변화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가계의 부담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은퇴자 가계의 소비 복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과 보조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은퇴자가계, 소비지출추정, 소비지출양식, 은퇴소비패즐, 가계소비지출 변화, 종단적 다층모형

학 번 : 2010 - 31117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4
제 3 절 논문의 구성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7
제 1 절 이론적 배경	7
1.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	7
2. 은퇴소비퍼즐(Retirement Consumption Puzzle)	10
3. 소비지출양식	12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14
1. 은퇴 전후 소비지출 변화에 관한 연구	15
2.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 추정 및 영향요인 연구	32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9
제 1 절 연구문제 및 분석모형	49
1. 연구문제	49
2.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 분석모형	50
3.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 분석모형	53
제 2 절 자료 및 분석방법	58
1. 분석자료	58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60
3. 분석방법	66

제 4 장 결과 및 논의	68
제 1 절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	68
1.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	68
2. 은퇴 전후 총 소비지출의 변화	72
3. 은퇴 전후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및 비중 변화	79
제 2 절 은퇴가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82
1.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	82
2. 은퇴가 가계 총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84
3. 은퇴가 가계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비중에 미치는 영향 ...	87
제 3 절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른 가계 소비지출 변화 ...	94
1.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	94
2.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른 총 소비지출의 변화와 영향요인 ...	96
3.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른 소비비목별 지출변화와 영향요인 ..	106
제 5 장 결론 및 제언	130
제 1 절 결론	130
제 2 절 제언	137
참고문헌	141
부표	148
Abstract	158

표 목 차

<표 2-1> 은퇴 전후 소비지출규모 변화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	19
<표 2-2> 은퇴 전후 소비지출규모 변화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24
<표 2-3> 은퇴 전후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선행연구	31
<표 2-4>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8
<표 3-1>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자료 구성	60
<표 3-2>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차수별 소비비목 구분	63
<표 3-3>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64
<표 4-1> 은퇴자 가계의 은퇴 시점 가구 특성	69
<표 4-2> 은퇴자 가계의 은퇴 전후 1년의 경제적 특성	70
<표 4-3> 은퇴자 가계의 은퇴관련 특성	72
<표 4-4> 은퇴 전후 총 소비지출 변화	73
<표 4-5> 은퇴 전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은퇴 전후 총 소비지출 변화	74
<표 4-6> 은퇴 전 가구주 근로소득수준에 따른 은퇴 전후 총 소비지출 변화	75
<표 4-7> 은퇴시기에 따른 은퇴 전후 총 소비지출 변화	76
<표 4-8> 가구주 은퇴연령에 따른 은퇴 전후 총 소비지출 변화	77
<표 4-9> 은퇴 이유에 따른 은퇴 전후 총 소비지출 변화	78
<표 4-10> 은퇴 전후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	80
<표 4-11> 은퇴 전후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	81
<표 4-12>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	83
<표 4-13> 가계 총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5
<표 4-14>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9
<표 4-15> 소비비목별 지출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2
<표 4-16>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	94
<표 4-17> 은퇴 후 시간경과에 따른 총 소비지출의 변화	97
<표 4-18> 은퇴기 총 소비지출 변화궤적	99
<표 4-19> 은퇴기 총 소비지출 변화와 영향요인	102

<표 4-20> 은퇴 후 시간경과에 따른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	107
<표 4-21> 은퇴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비목별 소비지출비중 변화	109
<표 4-22>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 궤적	114
<표 4-23>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와 영향요인	120
<표 4-24>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 궤적	123
<표 4-25>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와 영향요인	128
<표 4-26> 사례 가구의 총 소비지출 변화 추정	134

그 립 목 차

<그림 4-1> 은퇴 후 시간경과에 따른 총 소비지출 변화	98
<그림 4-2> 시간경과에 따른 가계의 총 소비지출 변화직선	100
<그림 4-3> 은퇴 후 시간경과에 따른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	108
<그림 4-4> 은퇴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	11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은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의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던 수많은 베이비부머 가계는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이 겪는 재무적, 비재무적 충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2006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범위 확대가 완료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함께 시행되면서 은퇴는 모든 경제활동 세대의 관심을 받는 중요한 주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금융회사에게 은퇴준비 시장은 장기간의 거래가 보장되는 고객을 확보하고 퇴직연금 등을 통해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되면서 은퇴자산관리에 대한 마케팅이 활발해졌으며, 학계에서도 은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초기 학계와 시장의 관심은 은퇴자금을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가에 있었다. 은퇴자들이 경제활동기에 축적한 자산과 연금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은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현재의 은퇴 준비 수준이 어떤지 점검하는 차원의 연구(여윤경, 2005; 여윤경·김진호, 2007; 강성호 외, 2009; 이지영·최현자, 2009; 전승훈 외, 2009)가 많이 수행되었다. 시장에서도 은퇴준비수준을 점검하고 은퇴를 대비한 재무적, 비재무적 솔루션을 다양하게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은퇴자산 축적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판매되어 왔다.

이후 은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성숙되고 은퇴생활자들이 늘어가면서, 은퇴준비 중심이었던 학계와 시장의 관심이 변화하고 있다.

100세 시대로 대변되는 기대수명의 증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정년 축소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은퇴생활기간의 연장을 시사한다. 은퇴를 준비하는 기간보다 은퇴생활을 영위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은퇴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없이 필요자금 마련에 초점을 맞춘 은퇴준비는 길어진 은퇴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 속에 은퇴에 대한 관심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은퇴 자산의 운용과 인출전략을 세우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은 해당 가계의 필요와 욕구, 라이프스타일, 복지 수준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은퇴자 가계의 소비지출은 그들의 심리적, 재무적 복지감과도 관련이 높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은퇴자 가계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고, 제한적인 공적·사적 이전소득과 자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소비지출에서도 재무적 긴장을 느끼고 한정된 자원의 배분에 보다 신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은퇴자 가계의 소비지출은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보다 밀접하게 반영하며 이에 따라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을 살펴봄으로써 은퇴 이후의 생활과 삶의 변화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은퇴 후 소비지출에 관심을 가져온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소비지출규모의 추정과 소비지출양식에 대한 분석으로 나뉘질 수 있다. 소비지출규모를 추정한 연구들은 은퇴설계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은퇴 생활비를 예측하기 위한 소득대체율 산정연구(석재은, 2003; 안종범·전승훈, 2005)가 있었고, 공적연금의 적정급여수준 도출 및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써 노후 생계비를 추정(이선형, 2000)하기도 하였다. 또한 은퇴 전후의 급격한 소비지출 감소 현상의 존재와 그 이유를 밝히는 ‘은퇴 소비퍼즐’ 연구(안종범·전승훈, 2003; 전승훈, 2005; 윤재호·김현정, 2011) 흐름도 있었다. 한편, 은퇴 후 소비지출양식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은퇴 이슈가 본격적인 관심을 받기 전에 수행된 것으로 대체로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양식(성영애·양세정, 1997; 이윤금, 1999; 임정빈·김윤희, 2000;

이선형·김근홍, 2003; 최옥금, 2011)을 집단별 비교하거나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고찰해왔다.

은퇴 전후, 은퇴생활기간 동안의 가계의 소비지출에 관한 기존의 연구 흐름은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소비지출규모와 소비지출양식을 고찰하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횡단적 접근방식을 취하거나 시점 간 비교에 근거하고 있으며, 은퇴기의 시간 경과에 따른 소비지출규모와 소비지출양식의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은퇴기 가계의 욕구와 필요가 동태적으로 이해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은퇴기 가계의 삶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얇은 수준이었음을 시사한다. 고령사회를 향해가는 우리나라에서 은퇴기 가계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준비와 대응이 사회의 안정과 영속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 본 연구는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을 동태적인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계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을 동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특정 시점의 소비지출규모를 추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소비지출의 변화를 반영해 은퇴기 소비지출을 추정할 때 보다 정교한 은퇴설계가 가능해진다. 은퇴생활기간 동안 가계가 동일한 필요와 욕구를 가지지 않으며, 연령 및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소비니즈가 변하고 생애 이벤트(혼인상태의 변화, 재취업 등) 경험이 소비생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기 소비지출을 변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경향성을 가진 궤적으로 이해한다면 향후 연장될 은퇴생활기에 대한 예측과 대비도 가능해진다.

둘째,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거시경제적 측면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은퇴자 가계는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며 이들 가계의 경제생활은 거시경제 및 재정건전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고령사회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의 상황은 충분한 선례라 할 수 있다. 은퇴자 가계가 앞으로 다가올 노후생활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면 은퇴생활을 지속하면서 막연한 두려움과 자산고갈에 대한 우려로 과도하게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개별 가계의 후생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원활한 경기순환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은퇴가 가계의 변화하는 욕구와 니즈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지급을 효율화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가 가계의 소비지출과 그 변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은퇴가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은퇴로 접어든 시점을 포함해 은퇴생활기간 동안 가계의 소비지출규모와 소비지출양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며, 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이를 통해 개별 가계의 은퇴설계에 있어 좀 더 정확한 은퇴필요자금 산정을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은퇴설계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은퇴가 가계의 필요와 욕구 수준 및 그 변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더욱 확대될 은퇴가 가계에 대한 복지정책의 방향설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본 연구는 다음의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은퇴를 기점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이 경제활동기의 소비지출과 달라지는지 파악할 것이다.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관심을 가져온 은퇴 후 급격한 소비지출 감소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또한 은퇴 전후 소비생활양식을 비교함으로써 은퇴로 인해 가계의 욕구와 필요에 변화가 있는지 분석한다.

다음으로 은퇴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이들 가계의 소비지출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를 겪는지 분석할 것이다. 생애주기가 설이 설명하는 전 생애에 걸친 소비평활화가 은퇴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은퇴가 소비지출을 변화의 관점에

서 살펴보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종단적 접근을 통해 은퇴기 가계의 총 소비지출과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및 비중이 시간에 따라 어떠한 궤적을 보이는지 추정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가계의 은퇴 전후 소비지출의 변화와 은퇴기 동안의 소비지출 변화 양상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기 위해 소비지출양식의 관점을 차용한다. 소비지출양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은퇴기 가계의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비중의 변화를 살피고,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소비지출양식을 통해 가계의 소비행동 이면에 존재하는 욕구와 필요가 무엇이며, 은퇴 전후, 은퇴기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은퇴 전후 뿐 아니라, 은퇴생활기간 동안의 소비지출 변화를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예비은퇴자 및 은퇴자 가계 모두에게 은퇴기 소비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총 소비지출 뿐 아니라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및 비중의 변화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은퇴기 가계의 니즈 변화를 보다 세밀하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 수준과 그 변화를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은퇴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근거로 한 보다 현실성있는 은퇴준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은퇴생활을 하고 있는 가계에게는 은퇴기 소비지출 변화를 고려한 효과적인 자산 인출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실증적 기초자료로써 기능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은퇴를 비롯해 은퇴생활기간 동안 가계의 소비지출에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은퇴자 가계로 하여금 은퇴 후 소비지출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의료비나 식비 등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소비비목의 지출규모 변화와 그 영향요인에 대한 예측은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 소비자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 1장에서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서술하며, 연구 목적과 연구 수행의 의의를 밝힌다. 제 2장은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을 고찰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이론적 근거를 서술하고,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 3장에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을 기술한다. 제 4장은 도출된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필요한 논의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 5장은 본 연구를 요약한 결론과 제언을 담고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이론적 배경

본 절에서는 은퇴 전후와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다. 먼저 은퇴기의 소비지출을 전 생애에 걸친 가계 소비흐름의 일부이자, 은퇴 이전 소비와의 연속선 상에서 설명하는 생애주기가설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은퇴 전후의 소비지출 변화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 은퇴소비패즐에 대해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은퇴기 가계의 욕구와 필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소비지출양식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 고찰하였다.

1.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

생애주기가설(Modigliani and Brumberg, 1954; Ando and Modigliani, 1963; Modigliani, 1986)은 가계의 형성에서 가구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까지 생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계의 소득과 소비, 저축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이다.

생애주기가설은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자원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기간 간 저축과 차입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Fisher의 기간간 선택(intertemporal choice)모형을 전 생애로 확장하였으며, 가계의 소비지출이 일생동안 총 가계소득의 제한을 받음을 기본전제로 한다. 전 생애에 걸쳐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가계의 효용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소득의 적절한 축적과 배분이 이루어져 생애동안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생애주기가설을 수식을 통해 살펴보면, 이자율과 가격이 고정되어 있

는 경우 현재의 균형소비는 일생동안의 총 소득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C_t = f(Y_{PV})$$

가계의 t 시점의 소비 C_t 는 총 가계소득의 현재가치의 함수로 표현되는데, Modigliani와 Ando는 이를 소비자의 근로소득과 자산액으로 측정하였다.

$$Y_{PV} = \sum_{t=0}^T Y_t^L / (1+r)^t + \sum_{t=0}^T Y_t^P / (1+r)^t$$

t : 현재(t=0)에서 기대수명(T)까지의 기간

r : 이자율

Y_t^L : t시점에서의 기대노동소득, Y_t^P : t시점에서의 기대자산액

생애주기가설의 기본 가정은 1) 불확실성이 없고, 2) 자본시장이 완전하며, 3) 실질이자율은 0이고, 4)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시간과 분리가 가능하며(time-separable), 5) 자산상속의 동기는 없다는 것이다.

위의 가정을 기본으로 한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가계소득은 점차 상승하여 장년기 또는 은퇴 직전에 절정을 이루다가 은퇴와 더불어 하락하는 포물선을 그리는 데 반해, 가계의 소비는 소득과 달리 일정한 수준을 유지 또는 매우 완만한 형태의 포물선을 그린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가계가 소비지출보다 소득이 많은 기간에는 저축을 하고,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지출보다 적어지는 기간에는 저축해두었던 자산을 인출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애주기가설의 기본 가정들이 현실과 일치하기 어렵고, 생애주기가설로 설명되기 어려운 가계의 소비지출 행태가 나타나면서 생애주기가설은 가정을 보완 또는 수정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보다 확장된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다. 특히 일련의 연구들은 은퇴 후의 가계소비지출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초기에 가계의 저축 및 소비지출 행태가 기본 생애주기가설과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연구들은 상속동기나 미래(기대수명)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을 가정에 추가하였다. 생애주기가설의 기본 가정에 따르면 가계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자산을 축적하고 상속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생애말기에 모든 자산이 고갈된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자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다면 은퇴자들의 자산은 은퇴 이후 급격히 줄고, 예방적 수준의 잔액을 제외하고는 사망시점이 가까워질수록 0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실증적 연구결과 일부 연구들에서 은퇴한 소비자들에게서 부가 다소 증대되고 자산의 인출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발견됨에 따라 상속동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산의 인출을 줄이고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Mirer,1979; Blinder et al, 1983; 정영숙(2002)에서 재인용). Kopcuk&Lupton(2007)은 노인단독가구의 3/4가 상속동기를 가지며, 상속동기가 있는 가계는 평균적으로 약 25% 덜 소비함을 밝히기도 하였다.

Davies(1981)는 은퇴자 가계의 지속적인 자산 축적과, 완만한 자산인출 현상을 기대여명의 불확실성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연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유동성제약에 영향을 받는 은퇴 후 초기 시점 이후 상대적으로 위험 회피적인 은퇴자의 기대수명의 불확실성은 소비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Harmermesh(1982) 역시 은퇴 후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이자율과 시간선호율의 차이 뿐 아니라 상속의 동기나 수명의 불확실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라 분석하였다.

Hurd & Rohwedder(2005)는 시간에 대한 선호가 존재하고, 실질이자율이 0이 아닌 형태로 모형을 가정한다면, 생애주기에 따라 소비가 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자산에 대한 할인율(미래의 자산을 현재에 끌어쓰는)이 이자율보다 클 경우 Y_{PV} 의 감소로 총 가계소득의 함수인 현재소비 역시 감소하게 되며, 소비자의 할인율과 이자율에 따라 소비가 감소, 증가 또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애주기가설은 가계의 전 생애에 걸친 소비지출을 설명하는 기본 모형으로써 생애 소비를 완만한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가정을 변형, 확

대하면서 실제 가계의 소비지출양상을 설명해내고자 이론적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생애주기가설은 효용극대화의 관점에서 전 생애의 소비의 평활화를 기본 가정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발전한 재무설계 및 은퇴설계 솔루션은 은퇴 후의 소비지출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으로써 생애주기가설을 통념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에 대해 생애주기가설이 상정하고 있는 전 생애에 걸친 소비평활화가 은퇴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가계의 소비지출수준에 변화를 가져오는 상속동기나 기대수명의 불확실성 등의 요인이 우리나라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은퇴소비퍼즐 (Retirement Consumption Puzzle)

1990년대 이후 해외에서 행해진 은퇴와 가계소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가계가 은퇴 후에 갑작스러운 소비의 감소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Bank, Blundell and Tanner, 1998; Bernheim Skinner and Weinberg, 2001; Hurd and Rohwedder, 2003; Laitner and Silverman, 2004; Haider and Stephens, 2004; Smith, 2006; Fisher et al, 2005, Aguiar and Hurst, 2008) 이러한 현상은 가계가 일생에 걸쳐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교적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한다는 이론인 생애주기가설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이에 “은퇴소비퍼즐(Retirement-consumption Puzzle)”로 지칭되었고, 가계의 은퇴 후 소비를 설명하는 주요한 연구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많은 연구들이 은퇴 후 갑작스러운 소비 감소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 규모는 어떠한지 원인은 무엇인지 해석하고자 했다.

은퇴소비퍼즐을 해석하는 한 흐름은 생애주기가설의 기본 모형이 가정하지 않았던 요인을 통해 은퇴 후 소비감소의 원인을 설명한다. Banks et al.(1998)은 은퇴 시점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그 이유로 보았다. 가계가 미래의 연금수급 조건을 과소추정하거나 질병이나 건강의 악화를 예

상하지 못하는 등의 충격이 급격히 소비를 줄이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Hurd & Rohwedder(2003), Smith(2006)를 비롯한 Barrett and Brzozowski(2010), Chiang(2012)은 은퇴시기의 불확실성과 갑작스러운 조기은퇴, 또는 비자발적인 은퇴로 인해 자산충격이 발생하며 가계가 자산 충격 하에서 새로운 소비경로를 만들기 위해 소비를 조정하면서 소비 감소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Laitner & Silverman(2005)은 소비와 여가 효용함수의 비분리성을 가정한 생애주기모형을 통해 은퇴 후 소비감소를 설명하였다. 현실에서 가계의 은퇴 연령 결정이 자유롭지 않고, 시장에서의 노동기회 역시 연속적이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은퇴로 인한 노동시간의 급격한 단절은 여가시간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 여가와 노동의 영향을 받는 소비에도 불연속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비와 여가의 대체탄력성과 기간 간 소비평활화 욕구(기간간 대체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은퇴 후 소비의 변화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Bernheim et al.(2001)과 Haider and Stephens(2004)은 가계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소비감소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Bernheim et al.(2001)은 합리적이지 못한 가계가 미래를 대비해 사전에 자산 규모를 평가하고 미리 소비를 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비를 줄인다고 해석하였다. Haider and Stephens(2004) 역시 가계가 은퇴연령(시기)을 예측했다고 하더라도 은퇴 후 소비가 감소되는 것으로 볼 때 합리적인 가계가 의도를 가지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생애주기가설 속의 합리적 가계에 대한 가정에 반론을 제시하며 은퇴소비퍼즐을 해석하였다.

다른 관점에서 은퇴소비퍼즐을 다룬 연구들은 가계가 처한 현실의 환경적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은퇴소비퍼즐에 접근하였다. 즉 은퇴 후 소비감소 현상은 원인을 밝혀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Hurst(2007, 2008)는 은퇴 후 소비가 감소하는 비목은 식료품비와 노동관련지출 뿐이며 이들 비목에 대한 소비감소는

퇴직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Hurd and Rohwedder(2008)는 은퇴 후 소비감소의 규모가 크지 않고 모든 계층에서 은퇴 후 소비감소를 겪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은퇴는 가계 생애의 한 부분에 속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은퇴 전후의 소비지출도 생애주기가설의 패러다임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상적으로 은퇴 전후의 소비지출이 생애주기가설과 대치되면서 은퇴소비퍼즐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초기의 은퇴소비퍼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생애주기가설의 가정을 변형, 확대한 모형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점차 은퇴소비퍼즐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고, 활용가능한 자료가 풍부해지면서 은퇴 전후 소비지출을 다루는 연구 모형과 해석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가계의 은퇴 전후 소비지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은퇴소비퍼즐연구의 방법론과 현상에 대한 해석을 일부 차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가계에도 은퇴소비퍼즐로 불릴 수 있는 은퇴 후 급격한 소비감소 현상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비중에 대한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소비지출양식

경제학에서 소비는 소비자의 효용극대화행동의 결과로 이해된다. 즉 소비자가 주어진 경제자원을 가지고 자신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조합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적 입장에서 소비는 개인의 내재된 욕구충족을 위한 선택행동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신의 욕구에 따라 조합하여 구매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을 강조하면, 소비에 대한 접근에 있어 총 소비지출 규모 뿐 아니라 그 내부의 소비비목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가계가 소비하는 소비비목의 구성과 자원이 할당되는 구조는

소비패턴, 소비양식, 소비지출양식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어왔다.

정영숙(2000)은 ‘상호 연관된 소비지출비목들이 내재적으로 구조화되는 방식’으로 소비패턴을 정의하였고, 손상희(1993)는 소비패턴이 생활양식의 한 측면을 나타내며 소비자가 속해 있는 문화나 집단에 따라 나타나는 소비행동의 차이와 이면에 존재하는 소비자의 욕구와 선호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은 소득과 자산, 가계의 인구사회적특성 등에 따라 다르다. 경제학에서 합리적인 소비자는 자원의 범위 내에서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재화와 서비스의 조합을 선택하는데, 소득과 자산은 자원의 범위 즉 구매력을 대변하는 변수가 되며, 가계의 인구사회적특성과 가계 생애주기 등의 요소는 가계 선호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가계 소득과 소비지출양식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앵겔법칙과 슈바베의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앵겔(E.Engel)은 가계소득이 높아질수록 총 생계비 중에서 식품비의 비중이 점차 감소한다는 앵겔의 법칙을 도출하였고, 슈바베(S.Schwabe)는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주택에 드는 절대액이 증가하지만 총소비지출과 비교할 때 주거비 비중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산은 생애주기가설에서 생애소득을 추정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김혜련·최현자(1999)는 순자산이 소득과 별개로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며, 가계의 주거형태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나며, 외식비, 교양오락비, 경조사비와 같은 선택적 비목이 순자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고, 양세정·강미나(1995)는 토지자산가치의 상승이 가계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가계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이나 습관의 지속성은 직접관찰이 불가능한 가계의 선호를 예측하게 하는 요소이다. 가계규모와 구성, 그리고 생애주기 상의 위치가 가계의 선호를 대표하는 변수로 활용되며 그 외에 가구주나 배우자의 연령, 직업이나 교육수준 혹은 주택보유여부나 주거유형 등도 선호에 영향을 준다. 생애주기에 따라 가계의 자원에 대한 요구가 달라지고, 가구의 구성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 및 세부 소비비목에 대한 지출니즈에 차이가 발생한다. 최현자·최은숙(1986)

에 따르면 가정형성기는 가구원 수에 비해 소득이 높으나 소비가 큰 시기이며, 자녀의 출생과 함께 소비지출이 증가하며, 자녀의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에는 교육비와 잡비 등으로 인한 소비지출액이 많지만 평균소비성향은 이전에 비해 낮아진다고 하였고, 최홍철·최현자(2014)는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와 소비지출양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같은 생애주기에 속한 가계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소비지출양식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가계의 은퇴 전후 소비지출의 변화와 은퇴기 동안의 소비지출 변화 양상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기 위해 소비지출양식의 관점을 차용하였다. 소비지출양식을 통해 가계의 소비행동 이면에 존재하는 욕구와 필요가 무엇이며, 은퇴를 전후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러한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지출양식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토대로 은퇴기 가계의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본 절에서는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 특징과 그 변화를 다루었던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은퇴기 소비지출 변화양상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적용하고자 한다. 먼저 은퇴 전 후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은퇴소비패즐 연구를 통해 은퇴를 전후로 한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를 살펴보고, 은퇴자 및 노년기 가계의 소비지출을 다룬 연구를 통해 은퇴생활을 영위하는 가계의 소비지출 양태와 변화를 고찰하였다.

소비지출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관련 연구들을 총 소비지출 규모의 변화를 다룬 부분과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및 비중 변화를 다룬 부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은퇴 전후 소비지출 변화에 관한 연구

1) 은퇴 전후 소비지출규모 변화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합리적인 가계는 은퇴와 관계없이 전 생애에 걸쳐 일정한 수준의 소비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나, 현실에서 은퇴자 가계의 소비수준이 은퇴 이전에 비해 불연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되면서 국내·외에서 이러한 ‘은퇴소비퍼즐’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은퇴소비퍼즐의 관점에서 접근한 해외 연구들이 은퇴 전후 소비지출의 변화 정도와 그 원인을 밝히는데 집중하였다면, 국내 연구들은 은퇴 전후 소비지출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의 실증적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1) 은퇴 전후 소비지출규모 변화에 관한 해외 연구

Banks et al.(1998)는 생애주기가설의 가정 하에서 은퇴 후 소비감소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가구규모나, 가구 내 성인 근로자의 수, 사망률이나 노화(aging) 등의 요인들을 통제하면서 연령에 따른 소비곡선을 산출하였다. 1968~1992년 25년 동안의 British Family Expenditure Survey를 활용해 영국가계소비를 분석한 결과 모델이 예측한 소비감소는 약 2%였으나 실제 은퇴시점에서 3%의 소비감소가 관측되었다. 생애주기모델 안에서 예상 가능한 가계의 인구학적 변화와 노동시장 지위의 변화가 은퇴 후 소비감소의 일부를 해석하였으나,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1%p)이 존재하는데 그 원인은 은퇴 전후에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충격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가계가 미래의 연금수급 조건에 대해 과소추정을 하거나 질병이나 건강악화의 영향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Smith(2006), Barrett and Brzozowski(2010), Chiang(2012)는 각각 영국, 호주, 미국의 데이터를 활용해 은퇴시기의 불확실성 및 갑작스러운

조기은퇴가 은퇴시점의 갑작스러운 소비감소로 이어짐을 보여주었다. Smith(2006)는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BHPS, 1991-2001)의 45-64세¹⁾ 남성 코호트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인이 원하거나 예상한 시기보다 일찍 은퇴한 비자발적 은퇴자들은 소득의 상실이나 연금액의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자산충격을 경험하고 지출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최적 소비 경로로 재조정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은퇴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소비감소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은퇴 변수를 포함한 회귀식에서 약 11%의 유의한 식품소비감소가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이 지지되어, 비자발적인 조기퇴직으로 인한 부정적 자산 충격이 은퇴 후 소비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Barrett and Brzozowski(2010)의 연구 역시 Smith(2006)와 유사하게 비자발적 은퇴와 소비변화(식료품 지출)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호주의 연간 가구 패널인 HILDA(Household Income and Labor Dynamics in Australia)의 2001-2007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주 연령이 45세 이상인 가계를 근로가계, 자발적 은퇴가계, 비자발적 은퇴가계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거주지, 성별, 교육, 가구 유형, 가구규모, 건강을 통제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은퇴가계는 근로가계보다 식료품 소비가 2.6% 적었으나 비자발적 은퇴 변수를 포함한 분석에서는 예상대로 은퇴했음을 의미하는 변수는 유의하지 않았고, 비자발적으로 은퇴했다고 응답한 경우 약 3.3~3.9%의 유의한 소비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된 은퇴는 은퇴 후 소비감소를 가져오지 않으며, 다만 예상하지 못한 비자발적 은퇴가 자산 충격을 가져옴으로써 은퇴 후 소비감소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Chiang(2012)은 2001-2009년의 HRS CAMS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하위표본 패널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총 샘플을 자발적인 은퇴를 한 경우와 비자발적인 은퇴를 한 경우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생애주기 모델의 프레임에 따라, 은퇴가 자발적이고 예측된다면 은퇴로 인한 소비감소가 나타나지 않지만 만약 가구주가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건강의 악화로 예

1) 첫번째 wave 기준 나이

상보다 일찍 퇴직하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자산 충격으로 소비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자발적으로 은퇴한 가계의 경우 은퇴 후 약 6%의 소비 증가가 있었고, 비자발적으로 은퇴한 경우 총소비지출은 7%, 비내구재 소비는 6% 감소하였다.

한편, 은퇴소비패즐의 해석에 있어 가계의 제한된 합리성을 그 원인으로 제기한 연구들도 있다. 먼저 Bernheim et al(2001)은 1978-1990년의 PSID 430가구를 분석하여 은퇴시에 평균적으로 약 14%의 소비감소가 나타남을 관측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가계가 은퇴를 함과 동시에 그들이 축적해 둔 경제적 자산을 헤아려보고는 예상보다 적음을 발견하고, 소비를 급격히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들의 견해는 가계가 미래를 예측하여 행동하는 합리적인 주체라고 가정하는 생애주기모델과 달리 실제로 가계는 사전에 자산의 규모를 평가하여 은퇴 전에 소비를 미리 조정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Haider and Stephens(2004)은 HRS와 RHS(Retirement History Survey)를 활용하여 은퇴시기를 예상치 못함으로 인해 은퇴 후의 갑작스럽게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세우로 개인의 기대 은퇴연령에 대한 예측과 실제 은퇴연령을 비교하며 은퇴 후 소비감소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실제 은퇴연령과 기대 은퇴연령이 일치하더라도 은퇴 후 소비가 7~11%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가계가 예상치 못한 은퇴를 경험하면서 의도적으로 급격히 소비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Banks et al(1998)의 해석과 차이를 갖는 것으로, 오히려 Bernheim et al(2001)이 말했듯 가계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여서 은퇴 후 급격히 소비를 줄이게 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점차 은퇴 후 소비감소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2000년 대 후반에는 은퇴에 따른 소비감소 폭이 용인할 만한 수준이라거나 일부 계층이나 특정 소비비목에 한정되므로, 더 이상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아니라는 견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Hurd and Rohwedder(2008)는 은퇴 후 소비감소의 규모가 크지 않고, 모든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지는 않음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HRS와 CAMS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은퇴에 접어들면서 총소비, 비내구재 및 식료품 소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은퇴 전후의 데이터를 가진 샘플에서 총소비지출의 감소는 약 5.7%²⁾으로, Bernheim et al.(2001)과 Banks et al.(1998)이 제시한 소비감소율보다 작았다. 또한 비내구재 소비는 측정방식에 따라 약 0.5-3.1%의 감소를 보였고, 식료품비는 3.0-3.6%의 감소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를 노동과 관련 비용의 감소나 예상치 못한 은퇴, 은퇴 후 시간이 소비의 효율성은 높이는 현상 등으로 설명이 가능한 정도의 소비 감소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보편적으로 은퇴 소비퍼즐을 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Hurst(2007, 2008) 역시 은퇴소비퍼즐을 설명하고자 한 일련의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대부분의 가계의 은퇴 후 소비 패턴 있어 더 이상 수수께끼는 없으며,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Hurst(2008)는 은퇴 시기 소비 변화에 있어 소비비목 간 상당히 이질적인 모습이 나타나며, 평균적인 가계의 소비 감소는 식료품비와 노동관련지출 비목에 국한된다고 하였다. Aguiar and Hurst(2007a, 2007b)는 은퇴와 더불어 시간이 증가하면서 비교구매를 통해 가계가 더 싼 가격에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고,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실제 음식 섭취가 감소하지 않지만 식료품비는 줄어들게 된다고 하였다. Hurst(2007)은 가계 생산과 불확실한 건강 악화를 반영한 생애주기모형을 통해 가계가 은퇴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소비 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며, 생애주기가설을 지지하고, 은퇴소비퍼즐은 더 이상 퍼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은퇴소비퍼즐에 관한 해외의 선행연구들은 소비지출감소의 규모나 대상이 되는 소비비목에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갑작스러운 소비감소가 나타남을 관측한 경우가 많았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생애주기가설의 가정을 변형하거나, 하위 소비비목별 지출규모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는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2) 중간값(median) 기준

<표2-1> 은퇴 전후 소비지출규모 변화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

연구자	자료특징/자료명	소비지출 항목	은퇴자 정의	주요결과	은퇴소비패턴 해석
Bank, Blundell and Tanner (1998)	유사패널/U.K British Family Expenditure Survey ,25년(1968-1992)	비내구재	스스로 응답 (실업 및 은퇴)	은퇴 전후에 대해 모델을 통해 예측한 소비경로와 실제의 소비경로를 비교. 모델에서의 소비감소는 약 2%였으나 실제 3%의 소비감소 발생.	예상치 못한 충격
Bernheim, Skinner and Weinberg (2001)	패널/U.S. PSID(Panel Study on Income Dynamics) ,13년(1978~1990)	식료품비 (가구내 식비+ 외식), 주거비	부부 중 한사람의 노동시간이 연간 500시간 이하	은퇴 시 평균적으로 약 14%, 중간값을 기준으로 약 12%의 소비감소가 관측됨.	미래예측 및 자기통제의 실패
Hurd and Rohwedder (2003)	횡단자료/U.S.CAMS (Consumption and Activities Mail Survey) (2001)	총소비지출	은퇴여부 및 시기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경우	은퇴 시 약 15~20%의 소비감소가 발생.은퇴 전에 예측한 소비감소와 실제 소비감소를 비교한 결과 은퇴 시 소비감소의 상당부분이 이미 예측되었음.	일 관련 지출의 감소 및 가계 생산의 구매대체
Haider and Stephens (2004)	패널/U.S. PSID, RHS, HRS)	식료품비	가구주가 은퇴했다고 응답한 경우	기대 연령과 실제연령이 일치함에도 은퇴후 소비가 약 7~11%감소.	-
Laitner and Silverman (2005)	유사패널/U.S. CEX (Consumer Expenditure Survey)	총소비지출	-	은퇴직후 총 소비가 16% 감소	여가-소비 대체탄력성, 기간간 대체탄력성
Smith (2006)	패널/U.K. BPHS(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11년(1991-2001)	식료품비	은퇴 또는 실업으로 응답한 45-64세 가구주	전체 은퇴자 샘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소비감소 관측. 비자발적 은퇴여부를 포함한 경우 약 11%의 유의한 식료품소비 감소가 발견됨.	비자발적인 조기퇴직

Aguilar and Hurst (2007b)	유사패널/U.S. CEX (Consumer Expenditure Survey)	총소비지출, 소비비목	연령을 은퇴의 대리변수로 활용	60대 초반에서 60대 후반 사이에 식비, 비내구재, 의류비가 각각 7, 18, 15% 감소하나 주거비용, 자선, 오락비용은 일정하거나 증가. 소비비목별 증감에 차등	시간의 대체재 소비비목의 감소
Hurd and Rohwedder (2008)	패널/U.S. HRS, CAMS, 1~3rd	총소비지출, 비내구재, 식료품비	은퇴여부 및 시기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경우	은퇴 후 총소비지출의 감소는 약 5.7%이며, 비내구재는 약 0.5~3.1% 감소, 식료품비는 3.0-3.6% 감소	노동관련지출 감소, 예상치 못한 은퇴, 은퇴 후 소비 효율성 증가
Barrett and Brzozowski (2010)	패널/Australia HILDA, 7년(2001-2007)	비내구재, 식료품 (가구내 식비+외식)	최소 2년 동안 실직상태 또는 은퇴로 응답한 경우	은퇴 이후 식료품과 가구 내 식품소비 지출이 (2.6-4.2%) 감소. 비자발적 은퇴 여부를 포함한 경우 은퇴여부에 따른 소비지출변화는 유의하지 않고, 유의한 식료품 및 가구내 식품소비지출 감소 (3.3-7.5%)	비자발적인 조기퇴직 (실직 및 질병으로 인한)
Chiang (2012)	패널/HRS, CAMS, 9년(2001-2009)	총소비지출, 비내구재	은퇴여부 및 시기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경우	횡단분석결과 은퇴 후 소비가 감소. 패널데이터분석결과 소비감소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약 3% 증가. 비자발적 은퇴시 총소비의 7%, 비내구재소비의 6% 감소(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음)	비자발적 퇴직

(2) 은퇴 전후 소비지출규모 변화에 관한 국내 연구

우리나라 연구들 중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들은 연구 내에서 횡단적 분석방법과 종단적 분석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횡단적 접근을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한 여운경(2002), 석재은(2003)의 연구와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윤재호·김현정(2010)이 있다.

여운경(2002)는 가구주연령이 50세 이상인 가구 중 가구주연령이 65세 이상인 은퇴가계와 비은퇴가계의 총소비지출 및 비목별 월 소비지출액의 평균값을 t-test하였는데, 비은퇴가계의 총소비지출은 135.9만원이나 은퇴자가계의 경우 107.8만원으로 은퇴자가계의 총소비지출이 유의하게 적었다. 해당 연구는 은퇴한 가계를 부부가계와 독인가계로 구분하여 은퇴 전후 소비수준을 비교하기도 하였는데, 은퇴한 부부가계와 독인가계의 소비수준은 은퇴하지 않은 부부가계, 독인가계 대비 각각 89.5%, 78.5% 수준이어서 가구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석재은(2003)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령계층과 20-64세인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을 비교하였는데, 가구규모의 통제를 위해 OECD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후 소비지출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령계층의 총소비지출은 근로연령계층(86.5만원)의 63% 수준인 54.5만원으로 나타났다.

윤재호·김현정(2010)은 2006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주 연령이 50~80세 인 가구주를 은퇴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은퇴가계와 비은퇴 가계의 소비를 비교하였다. 가구원수로 균등화한 은퇴자 가계의 소비는 비은퇴자 가계보다 연간 약 432.6만원(월 36만원) 유의하게 적었고, 자산분위별로 비교를 확대하였을 때에도 모든 분위에서 은퇴자 가계와 비은퇴자 가계의 소비 차이가 유의하였다.

앞선 연구들은 가구주의 연령이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은퇴여부를 구분하고 동일시점의 은퇴자 가계와 비은퇴자 가계의 소비지출을 횡단적으로 비교한 것으로 간명하고 명확한 결과를 제시해주기는 하지만 연구방

법 상 동일 가계가 비은퇴에서 은퇴상태로 전환되면서 가계 내에서 소비 지출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를 설명할 수 없고, 가계 소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적절히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연구들은 동일가계의 은퇴 전후 소비를 비교하거나 패널분석을 통해 종단적으로 은퇴 후 소비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승훈(2005)은 한국노동패널을, 석상훈(2010)과 유경원(2012)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을 활용해 동일가구의 은퇴 전후 소비를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으로 비교하였다. 전승훈(2005)의 연구는 가구주가 1998년에서 2001년 사이에 은퇴한 193가구의 은퇴 전후 균등소비를 비교한 결과 은퇴 후 소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표본 측정시기가 IMF 위기 직후 경제 회복기에 속해있고 표본의 연령대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대체율 차원에서 접근한 석상훈(2010)의 후속 연구에서는 2005년과 2007년에 은퇴한 가계의 균등소비지출은 연평균 603.6만원으로, 은퇴 전과 비교하여 약 13.3%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유경원(2012)의 연구는 은퇴 전후 가계의 총소비지출 및 경상소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자산1분위 가계에서만 총지출 및 경상소비가 은퇴 후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였다.

안중범·전승훈(2003)을 비롯한 이후의 연구들은 은퇴더미 변수를 포함한 가계 소비지출함수를 구성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안중범·전승훈(2003)이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퇴여부가 가계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료를 좀 더 확대하여 한국노동패널 1-6차 자료를 분석한 전승훈(2005)의 연구 결과 은퇴 변수가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은퇴가계의 균등화된 소비지출이 비은퇴가계보다 약 1.16~1.45만원 높아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은퇴가계가 더 많이 소비하였다.

윤재호·김현정(2011)도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였는데 앞선 연구들이 은퇴여부를 직접 묻는 문항으로 은퇴가계를 구분한 반면, 해당연구는 '연령 50세 이상,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조사기간 동안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은퇴여

부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패널회귀분석 결과 안중범·전승훈(2003)의 결과와 유사하게 은퇴더미변수는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고자 은퇴확률을 나타내는 성향점수 결정식을 추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처치효과기법을 적용해 은퇴와 소비지출의 관계를 분석한 모형에서는 은퇴 소비가 비은퇴 소비보다 연간 88만원 가량 작아 은퇴 전 대비 은퇴 후 소비가 9.3% 감소하였고, 보유자산이 적은 최하위 자산계층의 경우 은퇴와 비은퇴 소비가 17.1%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의 선행연구들이 저자산 계층에서 은퇴로 인한 소비감소가 두드러진다고 한 결과(Hurst, 2005; Hurd and Rohwedder, 2003·2008)와 일치하였다.

유경원(2012)는 2년 마다 실시되는 패널조사인 국민노후보장패널의 1-3차(2005-2009)자료를 이용해 도구변수모형을 통해 은퇴의 효과를 측정하였으나 은퇴는 총 소비지출 및 소비비목별 지출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연구들은 우리나라 가게에서 은퇴 후 급격한 소비지출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이며, 나아가 은퇴소비퍼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은퇴 후 소비지출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을 밝히고자하는 연구들도 일부 있었다.

안중범·전승훈(2004)은 은퇴 결정과 은퇴 전후 소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60세 이전에 조기은퇴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은퇴 전후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 1-5차 자료 분석한 결과 조기은퇴자의 경우 은퇴 전의 소비가 감소하긴 하였으나, 은퇴 후의 소비나 은퇴 전 소비대비 은퇴 후 소비의 비율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전승훈(2005)도 이와 동일한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은퇴자의 은퇴시기 및 가구 수를 달리하여 분석하였는데³⁾, 조기은퇴가 은퇴 후 소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 앞선 안중범·전승훈(2004)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3) 안중범·전승훈(2004)의 연구에서는 1998-2001년에 은퇴한 102 가구를 분석하였으나, 전승훈(2005)는 1999~2002년에 은퇴한 160 가구를 분석하였다.

<표 2-2> 은퇴 전후 소비지출규모 변화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전후 표본	연구자	분석 데이터	은퇴가계의 정의	분석방법	주요 연구 결과	은퇴 후 소비
비 동일 표본	여윤경 (2002)	가구소비실태 조사(1996)	가구주연령 65세 이 상인 가구	은퇴가계와 비은 퇴가계의 소비지 출 비교(t-검정)	은퇴가계는 비은퇴가계에 비해 총소비지출 이 적음. 은퇴한 부부가계와 독인가계는 비은퇴한 부부, 독인가계 대비 89.5%, 78.5%의 지출수준을 보임.	감소
	석재은 (2003)	가구소비실태 조사(2000)	가구주연령 65세 이 상인 가구	노령계층, 근로연 령계층 소비지출 비교(t-검정)	-노령계층 소비지출은 근로연령계층 소비 지출의 63% 수준(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시) 임 -소득효과를 통제하고 연령효과, 가구규모 축소효과에 의한 소비지출 수준 변화를 살 펴본 결과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은 근로연 령계층의 평균 83% 수준	감소
	윤재호· 김현정 (2010)	한국노동패널 2006년기준 횡단면자료	연령 50세 이상,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료, 최초 근 로시간이 30시간 미 만으로 떨어진 이후 조사기간 동안 그 상 태가 지속되는 경우	은퇴가계와 비은 퇴가계의 소비지 출액 비교	은퇴가계는 연 862만원, 비은퇴계는 연 1,295만원 소비. 모든 자산분위에서 은퇴가 계는 비은퇴가계보다 소비가 유의하게 적 음.	감소
동일 표본	윤재호· 김현정 (2010)	한국노동패널 3~10차 (2000~2007)	연령 50세 이상,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 만인 자료, 최초 근 로시간이 30시간 미 만으로 떨어진 이후 조사기간 동안 그 상 태가 지속되는 경우	패널회귀분석	은퇴더미변수는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 형에서도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음.	불확실
		한국노동패널 2006년기준 횡단면자료		처치효과분석	처치효과분석결과 은퇴는 소비지출을 약 9.3%감소시키고, 최하위 1분위 계층에서 전체소비가 17.1%로 가장 크게 감소함.	감소
	안중범· 전승훈 (2003)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 (1998-2001)	가구주가 은퇴했다고 응답한 가계	패널회귀분석	은퇴더미변수를 포함한 가구소비함수를 패 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은퇴여부가 가계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음.	불확실

전승훈 (2005)	한국노동패널 1-6차 (1998-2003)	가구주가 은퇴했다고 응답한 가계	은퇴전후 소비의 paired t-test	은퇴 후 월 소비액수 약 7.5만원 증가하였 으나 표본의 측정시기 및 연령대의 영향 등에 대한 고려 필요.	증가
	한국노동패널 1-6차 (1998-2003)	가구주가 은퇴했다고 응답한 가계	패널회귀분석	Pooled OLS 및 집단간 추정에서 은퇴더미 가 소비를 증가시키는 유의한 변수이나 계 수의 크기가 크지 않음.	증가
석상훈 (2010)	국민노후보장 패널1-3차 (2005-2009)	1-3차 직업력정보 참 조 50세 이상으로, 생 애근로경험을 그만둔 자가 있는 가계	은퇴전후 소비 paired t-test	은퇴가계의 균등소비지출은 연평균 603.6 만원으로, 은퇴전과 비교하여 약 13.3% 감 소.	감소
유경원 (2012)	국민노후보장 패널1-3차 (2005-2009)	가구주가 은퇴했다고 응답한 가계	은퇴전후 소비 paired t-test	은퇴 후 총소비지출 및 경상소비지출이 소 폭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고, 자산1분위 가계의 은퇴 후 지출감소가 유의하였음	불확실
	국민노후보장 패널1-3차 (2005-2009)	가구주가 은퇴했다고 응답한 가계	패널회귀분석	도구변수분석 결과 은퇴는 총지출에 유의 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음	불확실
안중범· 전승훈 (2004)	한국노동패널 1-4차 (1998-2001)	은퇴여부 질문에 은 퇴로 대답하고, 60세 전 은퇴한 조기은퇴 자 가계	2단계 전환회귀분 석	조기은퇴를 결정했을 경우 조기은퇴 결정 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은 퇴 전 소비는 감소함	-
전승훈 (2005)	한국노동패널 1-6차 (1998-2003)	은퇴여부 질문에 은 퇴로 대답하고, 60세 전 은퇴한 조기은퇴 자 가계	2단계 전환회귀분 석	조기은퇴를 결정했을 경우 조기은퇴 결정 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은 퇴 후 소비가 감소함	감소

(3) 소결

은퇴 전후 소비지출규모의 변화를 다룬 국내외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은퇴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자료와 연구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은퇴 전후 총 소비지출의 변화를 다룬 해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5.7%에서 최대 20%까지 총 소비지출의 감소가 보고되었고, 식료품비와 비내구재구입비를 이용해 분석한 경우 대체로 은퇴 후 해당 소비지출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국내의 연구 중 동일가계의 은퇴 전후를 비교한 경우를 살펴보면 은퇴가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많았고,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도 연구방법에 따라 은퇴 후 소비지출의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 일반화가 어려웠다.

은퇴 후 소비지출 변화에 대해 타당성있고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은퇴, 가계 소비지출(소비비목) 등의 주요 변수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조사자료라 하더라도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해석을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계 소비지출의 내재적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가계의 소비는 자원의 제약 하에 이루어지므로, 가구소득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은퇴자 가계의 경우 직접적인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인출 가능한 자산이 잠재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소득 및 자산분위에 따라 은퇴 후 소비지출변화를 파악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 내 상황이 가계소비의 소득탄력성을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가구주가 은퇴하였더라도 자녀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과업이 남아있다면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은퇴 이전에 비해 소비수준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은퇴자 가계가 속한 생애주기 및 가구원 구성 등 가계특성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은퇴 전후 소비지출양식 변화

경제학에서는 소비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최옥금, 2011) 이는 가계의 소비지출을 파악함으로써 가계의 욕구와 니즈가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계의 소비는 총 소비지출의 규모 뿐 아니라 소비비목별 지출이 구조화된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상호연관된 소비지출비목들이 내재적으로 구조화되는 방식(정영숙, 2000)으로써 소비지출양식을 고찰해왔다.

은퇴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기 전 까지 은퇴자 가계의 소비지출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드물었고, 다만 노인소비자 또는 노인 가계의 소비지출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 가계와 노인가계의 소비지출을 비교함으로써 다른 연령집단과 노인가계의 욕구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들(성영애·양세정, 1997; 임정빈·김윤희, 2000)이다. 은퇴자 가계와 노인 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구주 연령대 및 생애주기 상 공통점이 있고 소득구조가 유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인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은퇴 후 가계의 소비지출양식 특성과 변화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고찰하였다.

성영애·양세정(1997)은 1994년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노인가계⁴⁾는 비노인가계에 비해 전체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기타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식료품비와 광열수도비 등 필수재 중심으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음을 밝혔다. 연구자들은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였는데, Chow-test결과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간 주거비를 제외한 8개 비목에서 가계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호 다르게 나타나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욕구와 필요가 이질적임을 확인하였다. 노

4)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계를 의미한다.

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총 소비지출의 38.5%)은 가족 수, 가구주의 직업과 교육수준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의료비 지출(7.9%)은 가계의 소득과 교육수준, 가구주 성별에 영향을 받았다.

여운경(2002)은 65세를 은퇴연령으로 설정하고, 은퇴자 가계와 비은퇴자 가계의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비중을 비교하였다.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통한 비교 결과 은퇴자 가계의 평균소비지출액은 비은퇴자 가계보다 유의하게 적었다. 비은퇴자 가계 대비 은퇴자 가계의 소비비목별 지출액 비율을 살펴보면, 은퇴자 가계는 식료품비(78.5%), 피복·신발비(69.0%), 교육비(59.5%), 기타소비지출(71.3%), 교통·통신비(79.4%)를 비은퇴자 가계보다 적게 지출하고, 주거비(110.8%), 보건의료비(105.8%)는 더 많이 지출하였다.

석재은(2003)은 소득수준의 감소, 부양할 가구원의 감소, 생애주기 상 연령에 따른 욕구의 상이성으로 인해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앞서 언급한 소득효과,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를 고려한 비교 집단을 구성⁵⁾하여 소비지출수준을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근로연령계층 대비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이 적은 소비비목은 교육비(0%), 교통통신비(63%), 식료품비(82%), 교양오락비(84%) 등이었고, 노령계층의 보건의료비는 근로연령계층의 215%로 두 배 이상 지출되었다.

윤재호·김현정(2010)은 가계의 은퇴 전후 소비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기초 분석으로, 연령이 50세 이상,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은퇴상태로 정의하고 은퇴자 가계와 비은퇴자 가계의 소비비목별 지출규모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비은퇴자 가계 대비 은퇴자 가계의 지출이 유의하게 적은 비목은 식비, 교육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교양오락비, 기타 비목이었고, 은퇴자 가계가 더 많이 지출하는 비목은 보건의료비였다.

5) 동일 소득분위의 65세 이상 2인가구와 20-59세의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비교하였다.

최홍철·최현자(2014)는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중년기, 은퇴기⁶⁾ 가계를 구분하였으며, 중년기가계의 경우 주된 소비비목은 식료품비와 음식숙박비, 교육비, 주거수도광열비 순으로 많았으나 은퇴기 가계의 경우 음식숙박비와 교육비 지출이 줄어 소비비목별 지출액 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은퇴기 가계는 중년기 가계에 비해 의류·신발, 교통통신비, 오락문화, 교육비, 음식숙박비 등의 지출이 적고, 보건의료비를 포함해 식료품비, 주류 및 담배, 주거수도광열비, 가정용품비 등의 지출이 많았다.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상세한 소비지출비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였던 최홍철·최현자(2014)의 연구는 은퇴기 가계와 중년기 가계의 소비욕구 및 니즈의 차이를 보다 상세히 보여주었다.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은퇴 전후의 소비지출양식을 살펴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석상훈(2010)은 국민노후보장패널 1-3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조사기간 중 은퇴한 50세 이상의 은퇴자가 있는 세대의 은퇴 전후 소비를 비교하였다. 은퇴 전후 소비비목 별 지출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었고, 은퇴 후 주거/광열수도비와 피복비 지출이 1% 수준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유경원(2012) 역시 국민노후보장패널 1-3차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은퇴 전에 비해 식비와 주거광열비, 교육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었고 은퇴 후 지출이 유의하게 증가한 소비비목은 보건의료비와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등 이었다.

<표2-3>은 은퇴 전후 소비지출양식을 다룬 선행연구를 정리한 표이다. 크게 동일 시점의 은퇴자(노인)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을 비은퇴자(비노인, 근로연령계층)가계의 소비지출양식과 비교하는 연구들과 동일가계의 은퇴 전후 소비지출양식을 시점 간 비교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은퇴 후에 보건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은퇴 전에 비해 지출액이 감소하는 소비비목은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⁷⁾ 등이

6) 가구주 연령이 40-59세인 가계를 중년기 가계, 60세 이상인 경우 은퇴기 가계로 구분하였다.

7)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 따라 소비비목의 구분이 상이하고 비교에 활용한 비목의 수가 상이하였으며, 참고한 선행연구들 중 과반 이상에서 공통된 결과를 보인 소비비목에 대해 서술하였다.

었다. 은퇴 전후로 자녀가 독립하는 등 가족 생애주기에 변화가 나타나는 점이 소비지출양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가계의 은퇴 전후 소비지출양식을 비교한 연구가 부족하고, 연구마다 분석에 활용한 소비비목이 통일되지 않은 경향이 있어 은퇴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양식 변화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 동일 가계를 장기간 추적조사한 패널자료에서 가계의 은퇴 전후 소비지출 자료를 확보하고, 그 중 동일한 분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소비비목의 지출규모와 비중 변화를 분석하여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양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2-3> 은퇴 전후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가계 구분	자료	비은퇴자 가계의 주요 소비비목 순위	은퇴자 가계의 주요 소비 비목 순위	은퇴 후 (노인가계) 지출이 적은(감소) 소비비목	은퇴 후 (노인가계) 지출이 많은(증가) 소비비목
성영애· 양세정 (1997)	노인가계 (가구주연령 60세이상) vs. 비노인가계	1994년 도시가계 조사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기타
여윤경 (2002)	은퇴자가계 (가구주연령 65세이상) vs. 비은퇴자가계 (가구주연령 50-64세)	1996년 가구소비 실태조사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주거비 보건의료비
석재은 (2003)	노령계층 (가구주연령 65세이상) vs. 근로연령계층 (가구주연령 20-64세)	2000년 가구소비 실태조사	식료품 교통통신 기타소비 교육	식료품 기타소비 주거 교통통신	교육비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보건의료비
윤재호· 김현정 (2010)	은퇴자 가계 vs. 비은퇴자가계	2006년 한국노동 패널	식비 교육비 주거비 차량유지비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차량유지비	식비 교육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교양오락비 기타	보건의료비
최홍철· 최현자 (2014)	은퇴자가계 (가구주연령 60세이상) vs. 중년기가계 (가구주연령 40-59세)	2012년 가계동향 조사	(중년기가계) 식료품비 음식숙박비 교육비 주거수도광열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 보건의료비 음식숙박비	의류신발, 교통통신비 오락문화 교육비 음식숙박비 기타	식료품비 주류및담배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 보건의료비
석상훈 (2010)	(동일가계) 은퇴 전 vs. 은퇴 후	2005 -2009년 국민노후 보장패널	식비 주거광열수도 보건의료비 기타	식비 주거광열수도 기타 보건의료비	주거광열수도 피복비	
유경원 (2012)	(동일가계) 은퇴 전 vs. 은퇴 후	2005 -2009년 국민노후 보장패널	-	-	식비 주거광열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2.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 추정 및 영향요인 연구

본 절에는 가계지출함수를 통해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을 추정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가계소비지출규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은퇴생활을 영위하면서 은퇴자 가계가 경험하는 소비지출의 변화양상과 그 영향요인을 고찰하였다. 먼저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규모의 추정과 변화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양식 특성과 그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1)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규모

(1)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규모 추정과 결정요인

은퇴기의 소비지출규모를 추정하거나, 은퇴 전후의 소비지출규모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가계지출함수를 활용하였다. 가계지출함수는 가계의 총 소비지출 및 각 소비비목별 지출규모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식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 일반적인 가계지출함수에 은퇴 여부 더미변수를 포함함으로써 은퇴자 가계를 구분하였고, 이를 통해 은퇴가 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활용해 왔다.

여윤경(2002)은 은퇴 후 필요한 소비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가계지출함수를 구성하였는데, 가구주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의 가구주 특성과, 가구원 수, 도시거주여부, 과소비여부, 주택소유상태 등 가구 특성, 소득 및 자산 등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은퇴 이전 소비수준 대비 가계지출함수를 통해 추정된 은퇴 이후 소비수준을 목표소득대체율로 정의하여 부부가계의 목표소득대체율은 약 83.4%(중앙값)이며, 독신가계의 목표소득대체율은 85.1% 수준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석재은(2003)은 총 소비지출 및 소비비목별 지출규모를 종속변수로 한 가계지출함수에 영향변수로 가구주의 연령 및 연령제곱과 성별, 취업여

부, 종사산업 등 가구주 특성, 거주지역, 가구원 수, 취업자 수 등의 가구 특성, 가구소득 등 경제적 특성을 투입하였다. 취업자 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가계소비지출을 결정하는 유의한 요인이었으며, 가계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가구주 연령, 가구소득, 가구원 수였다.

안중범·전승훈(2005)은 가계의 소비수준은 현재까지 축적해 놓은 자산과 예상되는 미래 소득의 플로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가계지출함수를 구성하였다. 가계지출함수의 주요 설명변수로 가구주 연령, 가구소득을 포함하고 부의 척도로써 가구 부채액, 주택보유여부 등을 활용하였다. 이 외에 가계 소비니즈를 반영하는 변수로 가구주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연수, 가구원 수 등을 포함한 후 마지막으로 은퇴 여부에 따라 소비지출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은퇴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추정결과 가계소비지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가구주 연령(-)과 가구주 성별(남), 교육수준(고학력)이 있었고, 소득 및 주택보유 등 경제적 특성도 가계소비지출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호·김현정(2010)도 은퇴 전후 가계소비지출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패널회귀분석에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설명변수들을 포함하였다. 소득, 자산, 부채 등의 경제변수를 로그화하고, 로그변수를 제공하여 비선형적인 영향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들 변수는 선택한 분석모형에 따라 다소 유의성에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유의한 설명변수였다.

유경원(2010) 역시 가구주의 연령, 연령제곱, 교육수준과 가구원 수 등 가구주 및 가구특성과 총소득, 총자산, 총부채 등의 경제적 특성, 은퇴여부를 가계지출함수 구성에 활용하였고 연구결과 은퇴여부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이 모두 유의하게 가계소비지출을 설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가계지출함수와 그 영향요인을 비교한 결과 석재은(2003)과 안중범·전승훈(2005)의 가계지출함수에서 연령이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는 각 연구자들이 활용한 자료의 가구주 연령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석재은(2003)의 경우 20~64세 근로계층과 65세 이상 노령계층이 모두 포함된

자료를 활용한 반면, 안중범·전승훈(2005)의 경우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가구주 연령이 45세 이상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교적 젊은 근로계층이 많이 포함된 자료에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고 생애주기 상 가계지출이 확장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연령과 가계소비지출이 양의 관계를 띠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가구주 연령대가 높은 가계에서는 은퇴 등의 이벤트를 겪으며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자녀가 독립하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계지출함수를 통해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을 추정한 연구들은 주로 가구주 및 가구특성과 경제적 특성을 소비지출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았으며, 은퇴기 가계와 그 외 생애주기에 놓인 가계의 지출함수 구성에 있어 은퇴를 제외한 다른 설명요인은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그러나 은퇴 이후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소득이 제한적인 은퇴기 가계의 소비심리는 이전 생애주기에 놓인 가계의 그것과 다를 여지가 있다. 기대수명의 불확실성(장수 위험)에 대한 염려와 자녀에 대한 상속동기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대수명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는 은퇴기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Hurd(1989)에 따르면, 사망위험(mortality risk)이 크다는 것은 주관적인 시간할인율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여 미래소비대신 현재소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의 크기는 사망위험을 얼마나 회피하는지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사망위험을 회피하는 소비자의 경우 그들의 기대수명보다 오래 살면서 적게 쓰게 될까 봐 우려하여 다른 이들보다 미리 더 많은 돈을 저축할(더 적게 소비할) 것이다. 다시말해 사망위험을 회피한다는 것은 기대수명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불확실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가계가 미래를 대비하는 예방적 저축을 늘리고, 현재의 소비를 줄이게 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Hamermesh(1984)는 생애주기 모형을 확장하여 은퇴 기간이 은퇴 후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하였는데, 사망 시점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여가 및 소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기대여명이 길수록 여가와 소비가 줄어든다는 결론이었는데, 이는 가계가 예방적 동기에 따라 사망시점까지 자산이 고갈되지 않도록 저축을 유지하고 소비를 줄이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실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NHK스페셜 제작팀이 발간한 ‘장수의 악몽 노후파산’ 보고서는 일본의 가난한 노령층의 생활을 보여주었다. NHK스페셜 제작팀은 국가에서 받는 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모아두었던 자산을 인출해 병원비 등으로 활용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일본의 노령층을 조명하였다. 이들은 병이 나서 당장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수명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기 전에 모든 자산이 고갈될까 두려워하며 자산을 인출해 쓰지 못하고 있었다. 적지 않은 예금 잔액이 있음에도 아픈 곳을 치료받지 않고, 편의점의 간단식으로 식사를 대체하며 최소한의 소비로 근근히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기대수명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가계의 소비욕구와 필요를 제어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기본 생애주기가설에서 가계는 유산을 상속할 의지가 없으며, 사망시 가계의 총 자산을 모두 소진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망시점이 가까워진 경우에도 자산을 다 쓰지 않고 남기는 가계가 다수 존재하고, 은퇴 후 자산의 인출속도가 경제학모형으로 추정된 경우보다 느린 경우가 발견되면서 상속동기가 은퇴기 가계의 저축 및 소비지출에 영향을 준다는 논의가 있었다.

유산상속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타적 유산상속동기이다. 이는 이타적인 부모가 자신의 소비효용뿐 아니라 자녀들의 소비효용을 위해 자산을 저축하고 자녀들에게 인적 자본투자를 한다는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Becke(1974), Tomes(1981), Menchik & David(1988) 등이 주장하였다. 특히 Tomes(1981)는 부모의 소득과 교육수준이 일정할 때 유산 상속액이 자녀소득과 부적(-)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유산을 남김으로

써 더 지원한다는 이타적 유산상속동기 가설을 지지하였다. 다른 이론으로는 전략적 유산상속동기가 있다. 이는 부모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서비스의 대가로 자신의 소유자산을 상속함으로써 자원을 교환한다는 것이다. Bernheim et al.(1985)은 자녀의 방문횟수와 유산상속액이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임으로써 전략적 유산상속동기가 유의함을 보여주었다.

홍공숙 외(1995)는 미국 노인가계의 유산상속 결정과 영향요인을 연구하였는데, 부모에게 상속을 받았거나 부모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지 여부가 상속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직업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 은퇴 준비기간 및 건강관련 요인도 언급되었다. 김용진(2013)은 유산상속 의향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교육수준, 결혼상태, 상속경험 여부가 상속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경제적 특성으로는 연소득, 주택지분, 기타 부동산자산 및 예·적금·펀드액, 주식 및 채권 보유 규모가 클수록 유산상속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연금 및 저축성 보험은 유산상속 의향에 부적 영향을 보였다. 자녀 관련 특성으로는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할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유산상속 확률이 높았다. 특히 자녀의 효도 및 부모에 대한 서비스의 대가로 유산을 상속한다는 가설이 일부 대리변수에 의해 증명되었다.

정리하면,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규모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가계지출함수를 구성하여 은퇴기의 소비지출수준을 추정하고 있으며, 소비지출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가구주 특성, 가구 특성, 가계의 경제적 특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 외에 기대수명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로 인한 소비위축,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지출 억제 등 가계의 심리적요인이 소비지출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규모 변화

앞선 연구들은 은퇴기를 하나의 동질적인 기간으로 여기고 그 시기의 평균 소비지출규모를 추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은퇴기에 다양

한 요인에 의해 소비지출이 변화함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

Basu(2005)는 은퇴생활기간 동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소비지출에 변화가 생긴다는 가정 하에 은퇴기에 변화되는 소비지출수준을 추정하였다. Basu(2005)는 66세에서 95세까지 부부가계가 30년의 은퇴생활을 할 때, 10년 단위로 그들의 소비니즈가 변한다고 가정하였다. 예를 들어 66세 시점에 총 지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지출 요소는 기초생활비로 약 45%이고 그 다음이 세금(약 24%), 여가비와 건강관련비용이 각각 17%, 14% 수준이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은퇴자 가계의 소비니즈가 변화하고, 각 소비지출 범주별로 상이한 물가 상승률이 적용되면서 총 소비지출 규모와 그 구성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연구자의 계산에 따르면, 연령증가에 따라 기초 생활비와 여가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건강관련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95세 때는 건강 관련 비용이 지출의 50%를 초과하고, 기초생활비가 약 25%, 여가비용은 5%를 하회하게 된다고 추정하였다.

Basu(2005)의 연구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지출의 변동을 관찰한 살펴본 연구는 아니다. 그러나 은퇴기 소비지출을 추정함에 있어 은퇴생활을 영위하는 기간에 가계가 경험하는 소비니즈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생활비를 상정하는 기존의 방식을 개선해 보다 현실적으로 은퇴기 소비지출을 추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Hurd and Rohwedder(2006) 역시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을 고정된 수준으로 이해하여 은퇴 소득대체율을 산정하는 기존의 추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세금, 일과 관련된 비용, 가계의 시간조망(time horizon), 소비 영역에서의 규모의 경제(returns to scale),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의 인당 소비 증가, 연령증가에 따른 소비 행태 변화, 은퇴 후 소비에 영향을 주는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된 대체율을 추정하였다. 연구자들은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의 부가조사인 CAMS(Consumption and Activity Mail Survey)를 활용하였으며, 2년 간격으로 측정된 패널 데이터에서 연령대별 가계 소비지출 수준을 살펴보고 변화율을 계산하였

다. 예를 들어 60-64세 부부 가계⁸⁾의 평균 지출은 연간 0.82% 증가하고, 65-69세 구간에서는 연간 0.27% 증가하다가 70-74세 구간에서는 연간 0.26% 지출감소가 나타나는 등 연령대에 따라 소비지출규모가 달라짐을 보였다.⁹⁾ 한편, 연구자들은 부부가계가 아닌 단독 가구주 가계의 소비경로도 계산하였는데, 단독 가구주 가계의 경우 60-64세 시기의 평균지출 증가율이 1.19%로 부부가계보다 높고, 80세 이후의 소비 감소가 부부가계에 보다 크게 나타나 배우자의 유무가 은퇴기 소비지출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

Hurd and Rohwedder(2006)의 연구는 패널데이터에서 나타난 연령대별 소비지출 변화율을 계산하고, 배우자의 사망 등의 영향을 종합해 은퇴기 소비지출경로를 도출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각 가계의 2년 간의 소비지출변화율을 조합하여 은퇴기의 전체적인 소비경로를 그렸기 때문에 이를 한 가계가 장기의 은퇴생활 속에서 겪는 소비지출변화라고 말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고, 개별 소비비목에 까지 관심을 두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은퇴기 가계의 가구주 연령변화와 배우자의 유무 또는 생존 여부가 소비지출변화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른 소비지출규모 변화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석상훈·장선구(2009)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 전후의 가계소득 및 소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그 흐름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서 발생하는지 성장곡선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가구주 은퇴에 따른 은퇴 전후의 가계소득과 소비의 성장곡선은 3차 함수의 형태를 보이는데, 그 중 소비의 경우 가구주 은퇴와 상관없이 대체로 은퇴 이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생애주기가설을 현상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가구주가 여성이거나 단독가구인 경우 은퇴 당시 초기 소비수준이 낮으며, 단독가구의 경우 그 성장률도 낮다고 하였다. 또한 가구주 은퇴 연령이 60세

8) 부부가계의 나이는 임의로 선택된 한쪽 배우자의 나이를 말한다.

9) 2년 간격으로 측정된 패널데이터에서 얻은 지출의 변화율을 산술평균하여 1년 기준변화율로 표시하였다.

이상인 경우 은퇴 당시 초기 소비수준도 높고 성장률도 높아 은퇴를 지연함으로써 은퇴 후 소비수준이나 그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석상훈·장선구(2009)의 연구는 성장곡선의 형태로 소비지출 변화 양상을 보기 쉽게 표현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성장곡선의 초기 시작점과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가계특성 요인을 식별함으로써 가계특성에 따라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

한편, 은퇴기에 가계 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요소들에 의해 가계의 소비지출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먼저 은퇴기에 가족 구성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그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강혜원·한경혜(2005)의 연구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그들이 겪는 생애사건이 부부관계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면서 생애사건으로 경제사건, 건강사건, 가족원의 사망사건을 언급하였다. 경제사건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둔 경험, 직장이나 사업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경우 등이 있고, 건강사건으로는 만성질환이나 입원한 가족의 여부를 꼽았다. 손정연·한경혜(2015)는 베이비부머가 겪는 은퇴나 실직과 같은 일자리의 변화, 건강문제, 부모의 노화 및 부양에 대한 부담이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은퇴기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은 심리적 복지감과 부부관계 뿐 아니라, 해당 이벤트에 경제적인 부담이나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 가계의 소비지출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정근(2014)은 배우자 사별과 중고령층의 소득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배우자의 사망을 경험한 중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소득수준이 낮다고 하였고, 특히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에 비해 배우자 사별 후 더 낮은 소득을 갖는다고 하였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가 가계 소비수준 및 복지 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은퇴기 소비지출에 있어 배우자 사망 등의 이벤트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은퇴기 가계가 겪는 대표적인 경제적 이벤트에는 가구주의 소득활동 참여, 재취업 등이 있다. 김은영(2014)은 은퇴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채취업에 주요한 영향요인이라고 하였고, 홍중구·손재영(2016)은 중고령 가구 전 연령대에서 부동산 및 금융소득보다 근로소득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도 가구주의 노동활동이나 소득은 가계의 소비지출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지만 은퇴자 가계의 경우 이미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 소득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다가 다시 소득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가계 경제에서 갖는 의미가 경제활동기 가계와 다를 수 있다. 은퇴기 가계의 소득활동은 시간활용과 가용자원의 일시적 변화를 수반하여 가계소비지출이 즉각적으로 변화시킬 여지가 있다.

은퇴기 가계의 주거이동 역시 가계 소비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진영·권오정(2015)은 노인들의 경우 자식들의 분가나 배우자와의 사별과 같은 가족규모의 축소, 은퇴와 수입 감소, 건강악화 등의 동기로 주거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경제활동기 가계의 주거이동 동기와 다르기 때문에 노년기의 주거이동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5년 이내 주거를 이동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거이동으로 인해 재정적 환경 부분에서 생활비 부담감이 줄어들고, 집값이나 보증금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퇴기 가계의 주거이동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기 가계의 건강변화 또한 소비지출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조홍중(2013)은 HRS CAMS의 2005년과 2007년 데이터를 활용해 미국 50세 이상 노년기 부부의 건강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년 사이 아내가 심각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가계 소비가 증가하지만, 남편이 심각하게 아픈 경우에 가계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아픈 경우 가족들이 외식을 더 자주하거나 가전제품을 이용해 집안일을 처리하기 때문이고, 남편이 아픈 경우 노동능력 부족을 초래해 소득과 부를 처분하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한다고 해석하였다. 대다수의 은퇴기 가계는 건강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는데, 부부 중 누구에게 심각한 건강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 소결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규모를 추정해 온 연구들은 가구주 연령 및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배우자 유무), 취업여부와 거주지역, 가구원 수 등의 가구주 및 가구 특성과 소득 및 자산 등의 경제특성을 반영하여 가계지출함수를 구성하였으며, 대체로 이들 특성은 가계소비지출의 유의한 설명요인이었다. 한편, 생애주기가설의 패러다임에 기대수명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와 상속동기를 반영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에 대한 심리적 태도가 다른 생애주기 상의 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보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을 이해함에 있어 가구주와 가구 특성 및 가계 경제적 특성 뿐 아니라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규모는 시간의 경과 및 가계가 겪는 다양한 이벤트에 의해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퇴기 가계는 가구원의 연령 증가에 따라 소비욕구와 필요가 변화되면서 소비지출의 증감을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은퇴기 가계는 주거 이동, 가족구성원의 변화(배우자와의 사별, 혼인상태의 변화 등)나 재취업, 건강상태의 변화를 겪으며 이러한 이벤트와 관련해 소비지출규모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동안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규모와 그 결정요인을 추정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으나 은퇴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구 특성 및 가계 경제적 특성 뿐 아니라 심리적 요인, 이벤트 요인을 포함하여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과 그 변화 궤적을 종합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2)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양식

(1)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양식과 영향요인

소비지출양식은 개인이나 가계가 속해 있는 문화양식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소비 행동의 차이와 개인의 욕구 및 선호의 차이를 나타내는데(손상희, 1993),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말미암아 은퇴 후 생활기간이 길어지면서, 은퇴기 가계 내에서도 연령이나 문화양식, 인구사회학적 집단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소비지출양식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종단적인 접근으로 은퇴기 소비지출양식의 변화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주로 은퇴기 가계의 연령대에 따라 소비지출양식을 비교하여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시간에 따른 변화 외에 은퇴기 가계의 가구유형(혼인상태 및 가구원 구성)이나 경제적여건, 취업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은퇴기 소비지출양식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었다.

조혜진·김민정(2011)은 은퇴기를 세 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에 속하는 은퇴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은퇴생활기간 경과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은퇴기의 세 단계는 한국FPSB(2011)의 분류에 따라 나누어졌는데, 연령과 사회적 활동, 건강 및 은퇴생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은퇴기를 활동적인 시기(go-go years, 은퇴 후 70세 미만까지), 과거를 회상하는 시기(reflective years, 70세~80세 미만), 그리고 간병을 받아야 하는 시기(care years, 80세 이상)로 분류하였다. 해당 연구는 은퇴생활이 진행됨에 따라 배우자의 사망, 건강 악화로 인한 거동의 제약 및 자산의 처분 등 굵직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은퇴기 가계는 다양한 소비니즈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함으로써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을 시기적으로 분리하여 이해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Harrison(1986)은 노인 가계의 연령에 따라 소비지출양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소비자지출조사(CEX, 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활용하여 65-74세, 75세 이상 노령자의 소득과 소비지출 니즈를 비교하였다. 65-74세 집단은 75세 이상에 비해 주거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연료 및 공공요금, 공공서비스 지출도 많았다. young old인 초기 은퇴자 그룹의 경우 모기지 대출을 상환 중인 자가보유자들이 남아있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통관련 비용 역시 65-74세 그룹이 75세 이상의 2배 수준이었는데, 자동차 보유율이 더 높기도 하고, 이용 빈도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건강관련 평균지출액과 지출 비중은 75세 이상에서 확연히 높았다.

Butrica et al.(2005)은 은퇴기 가계를 연령과 혼인지위에 따라서 구분하여 소비지출양식을 관찰하였다. 연구자들은 HRS 및 지출관련 부가 조사인 CAMS의 53세 이상 성인 표본을 연령집단 별(53-64세, 65-74세, 75세 이상), 혼인지위별로 구분하고 총 소비지출규모와 소비지출양식을 비교하였다¹⁰⁾. 전 연령집단 모두에서 주거비용이 30%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53-64세의 경우 주거비용 다음으로 교통비(14%), 건강관련 지출(12%)의 비중이 높았고, 65-74세의 경우 건강관련 지출(16%)과 식료품비(14%)의 비중이 높았다. 가장 나이가 많은 75세 이상 집단의 경우 건강관련 지출이 20%에 달했다. 65세 이상 가계를 따로 구분하여 소비지출양식을 살펴본 결과 주거비용, 건강관련 지출, 교통비, 오락비 등이 주된 지출비목이었고, 주거비용과 건강관련 지출이 전체 소비지출의 1/2를 차지했다. 기혼집단에 비해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주거비와 건강관련 지출 비중이 더 높았다. 65세 이상 기혼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비지출 경향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주거비용과 건강관련 지출 비중이 높았다. 자가보유 여부 및 거주 지역은 주거비용의 비중, 주관적인 건강상태 평가와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종류는 건강관련 지출비중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었다.

최홍철·최현자(2014)는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와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에서 생애주기 뿐 아니라 가구유형이 소비지출양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장년기, 중년기, 은퇴기로 구분하고, 가구 유형에 따라서는 일인가구, 무자녀부부가구, 자녀독립 전 가구, 자녀독립 후 가구, 자녀독립 전 한부모 가구, 자녀독립 한부모 가구 등 6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은퇴기의 경우 음식숙박비와 지출 비중이 이전에 비해 감소하고, 외식이 가구 내 식사로 대체되면서 식료

10) 각 집단의 45-55 백분위수의 평균값을 비교에 활용하였다.

품의 지출비중이 25.3%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은퇴기 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지출비중이 중, 장년기에 비해 높았고, 특히 보건비의 비중이 12.6%로 다른 생애주기 단계보다 높았다. 은퇴기 가구는 전반적으로 식료품 소비지출비중이 20%이상으로 높고, 자녀가 있는 경우 외식비나 교통·통신비 지출이 많았다. 은퇴기 일인가구의 경우 주거수도광열비와 보건비 지출이 24.3%와 14.6%로 두드러지게 높았고, 생계를 위한 필수 비목 지출이 총 지출의 70%를 차지하였다. 은퇴기 무자녀부부가구는 대체로 은퇴기 일인가구와 유사한 소비지출양식을 보였으나 교통비 지출비중이 조금 더 높았고 유자녀부부 가구와 유자녀 한부모 가구는 공통적으로 외식비를 포함한 음식숙박비 지출비중이 높았다. 정리하면, 대체로 은퇴기 가계의 경우 자녀의 유무가 소비지출양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선형·김근홍(2003)은 취업상태, 건강상태, 생활수준(총 소비지출 규모) 등 노령기 가계의 생활양식에 따라 소비지출양식이 다른지 분석하였다. 도시가계조사 99년 원자료 중 부모모두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계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노령기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와 주거비 등 필수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생활양식 측면에서 건강이 좋은 가계는 건강하지 못한 가계에 비해 외식으로 인한 식료품비 비중이 높고, 회비 및 관혼상제 비용이 많이 들었다. 또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비취업자 가계보다 월평균 지출이 약 23만 2천원 많고, 식료품비 비중이 더 높았으며, 노동관련 소비비목인 신발비, 교통통신비, 기타 비소비 지출 지출이 많았다. 한편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소비비목별 비중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은 은퇴기 가계의 취업상태와 건강상태가 소비지출양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특성임을 시사하였다.

백학영(2010)은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라 노인가구의 소비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지위 및 가구유형에 따라 소비성향과 소비지출항목의 비중, 소득탄력성 등에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공통적으로 노인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에서 식비(가정식비와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가구유형 중 독거가구

는 가정식비 지출비중이 가장 높고, 광열수도비와 주거비의 지출비중도 높았다. 해당 연구는 추가적인 소득이 제한되는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 양식이 소득의 규모(빈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노인 빈곤 가구 내에서도 가구 유형에 따라 소비지출양식이 다름을 밝혔다.

최옥금(2011)의 연구 역시 은퇴기 가계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소비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빈곤여부나 공공부조의 수급 여부와 소비지출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노인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로 나눠 살펴본 결과, 빈곤가구의 경우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비 비중이 34%로 비빈곤가구의 29%보다 높았으나, 보건의료비의 경우 빈곤여부에 상관없이 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지출양식을 유형화한 결과 노인가계는 의료지출 중심형(11.93%), 주거지출 중심형(12.1%), 기본생활지출 중심형(67.03%), 관계지출 중심형(13.39%)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의료지출 중심형의 경우 질환을 가진 가구원이 많았고, 가구원의 평균연령이 높은 특성을 가졌다. 의료지출 중심형의 경우 연령(+), 취업(-), 질환보유(+), 빈곤(-), 국가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영향을 미쳤다. 최옥금(2011)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의 증가와 건강상태, 취업여부, 교육년수, 거주형태 및 지역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뿐 아니라, 빈곤의 여부(소득 수준) 및 국가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등 경제적 요인과 사회복지정책의 수혜 등도 은퇴기 소비지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 은퇴기 가계 주요 소비비목의 지출규모 및 영향요인

선행연구를 통해 은퇴기 가계는 비은퇴 가계와 다른 소비지출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은퇴기 시간경과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소비니즈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와 보건의료비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소비비목일 뿐 아니라, 필수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은퇴기 가계의 복지측면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된

다. 다음의 일련의 연구들은 식료품비 및 보건의료비를 비롯한 은퇴기 가계의 주요 소비비목의 지출특성이 어떠한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연구들이다.

이윤금(1999)은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 및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취업노인가계가 비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전반적으로 식료품비 지출규모가 컸으며, 비취업노인가계의 가정 내 식료품비는 취업노인가계의 74.1% 수준이고 외식비는 취업노인가계의 47.6%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가구주의 은퇴 또는 은퇴기간 동안 일자리를 갖는 것이 식료품비 지출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가정내 식료품비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특성은 가계 소득, 가구원 수, 가구주 학력, 혼인상태, 거주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윤정혜 외(2010)의 연구는 중고령자 단독가계의 의료비 지출규모와 의료비 지출비중 추이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1-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조사결과 중·고령자 단독가구의 의료비지출규모는 질환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건강상태 역시 의료비 지출에 주요한 영향요인이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컸다.

양세화·오찬옥(2001)은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노인가계(가구주 연령 60세 이상)와 비노인가계의 주거비 지출을 비교하고, 가계 특성이 주거비 지출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노인가계는 비노인가계에 비해 주택설비와 수선비를 제외한 총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의 지출액이 유의하게 작았다. 노인가계의 총 주거비는 총 소비지출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감소할수록, 가구주가 무직일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지출액이 증가하였다.

이지현(2012)은 중고령자 가계의 문화생활비 지출과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가구주 연령에 따라 40~64세의 중년기 가계, 65~74세의 고령전기 가계, 75세 이상의 고령 후기 가계를 나누어 각 연령 집단별로 문화생활비 지출과 여가생활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중년기 가계의 총소득 대비 문화생활비 비중은 평균 2.2%(월 평균 54,921원)로 고령전기(2.7%, 월 평균 38,882원)나 고령후기(3.4%, 33,681원) 가계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문화생활비 지출액수는 가장 컸다. 연구에 따르면 연령 뿐 아니라 중고령자 가계의 가구주 학력, 가구원 수, 주택유무, 저축액, 금융자산, 총부채액, 근로소득 및 이전 소득의 유무, 주중 여가활동 유형도 중고령자 가계의 문화생활비 지출에 영향을 주었다.

(3) 소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차이 및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가구주 연령이 주된 요인이며, 혼인지위(배우자 유무)나 자녀(독립) 유무로 구별되는 가구유형도 영향을 주었다. 대체로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와 주거비 등의 필수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가구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비 지출규모와 비중이 낮아지고, 건강관련 지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같은 은퇴기 가계라도 자녀의 독립여부에 따라 외식비 등 음식숙박비, 교통·통신비 지출에 차이가 있었고, 가구주의 취업여부, 건강상태는 각각 노동관련 지출과 보건의료비 및 외식비 등의 소비비목 지출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은퇴기 가계의 특정 소비비목 지출규모와 영향요인을 밝힌 연구들도 있었는데 각 소비비목의 지출규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반적인 가계지출함수의 구성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비교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시간에 따른 변화 보다는 가계특성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의 증감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총 소비지출에서 각 소비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양식 변화에 관심을 두고,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비중의 변화 궤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고된 요인들이 시간의 경과

안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표2-4>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자	은퇴기 가계의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Harrison(1986)	연령(65-74세 vs. 75세 이상)
Butrica & Johnson (2005)	연령(53-64세, 65-74세, 75세 이상), 혼인지위 인종, 소득분위, 교육수준, 거주지역, 주택보유여부(대출여부)
최홍철·최현자(2014)	생애주기(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청년기, 은퇴기 구분) 가구유형(혼인지위, 자녀 유무 및 독립여부)
이선형·김근홍(2003)	취업상태, 건강상태, 생활수준(총 소비지출 규모)
백학영(2010)	빈곤지위, 가구유형
최옥금(2011)	경제적 여건(빈곤여부, 공공부조 수급여부) 가구유형(단독, 부부), 연령, 건강상태, 취업여부, 교육연수, 거주형태, 자산, 부채
이윤금(1999)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 취업여부, 가계소득, 가구원 수, 가구주 학력, 혼인상태, 거주지역
윤정혜·김시월·장윤희·조향숙·송현주 (2010)	중고령자 단독가계의 의료비 지출규모 질환 및 장애유무(건강상태), 연령, 성별, 배우자 특성
양세화·오찬욱(2001)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주거비 지출규모 총 소비지출, 가구원 수, 가구주 직업, 거주지역, 가구주 성별
이지현(2012)	중고령자 가계의 문화생활비 지출 연령, 가구주학력, 가구원 수, 주택유무, 저축액, 금융자산, 총 부채액, 근로소득 유무, 이전소득 유무, 주중여가활동 유형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및 분석모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 특징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은퇴기 가계의 필요와 욕구를 보다 현실성있게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퇴시점 전후의 차이와 은퇴생활을 영위하는 기간에서의 변화를 포함하여 살펴보아야 하며, 소비지출규모 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및 세부적인 소비욕구와 필요를 반영하는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비중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과 2는 은퇴와 가계 소비지출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연구문제 1에서는 은퇴시점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가계 소비지출의 변화를 살펴보고, 연구문제 2는 가계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은퇴가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연구문제 3의 경우 은퇴기 시간 경과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를 종단적 접근을 통해 살펴본다. 시간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 궤적을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을 어떻게 달라지는가?

[1-1] 은퇴 전후 가계의 총 소비지출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1-2]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비중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 은퇴는 가계의 소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1] 은퇴는 가계의 총 소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2] 은퇴는 가계의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비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은퇴가 가계의 소비지출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3-1] 은퇴가 가계의 총 소비지출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떠한 궤적을 보이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3-2] 은퇴가 가계의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비중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떠한 궤적을 보이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 분석모형

1) 계량모형

은퇴가 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안종범·전승훈(2005), 전승훈(2005), 윤재호·김현정(2010), 유경원(2011) 등의 연구는 은퇴여부를 포함한 가계지출함수를 구성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ln(C_{i,t}) = \alpha + \theta \text{Retire}_{i,t} + \pi Z_{i,t} + e_{i,t} \quad (\text{식 4-1})$$

$C_{i,t}$ 는 가계i의 t기 소비지출이며, Z 는 소비지출에 대한 설명변수의 벡터이다. $\text{Retire}_{i,t}$ 는 가계i의 t시점 은퇴 여부를 의미한다.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회귀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Panel GLS),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모형을 모두 시행

한 후 사후검정을 통해 모형을 비교, 선택한다.

패널개체의 특성을 고려한 회귀모형은 일반적으로 식 4-2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u_i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자료에 관측되지 않는 패널개체의 고유특성을 의미하며, $e_{i,t}$ 는 시간과 패널개체에 따라 변하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식 4-3는 u_i 의 위치를 바꾸어 다시 표현한 식이다.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e_{i,t} \quad (\text{식 4-2})$$

$$y_{i,t} = (\alpha + u_i) + \beta x_{i,t} + e_{i,t} \quad (\text{식 4-3})$$

가장 기본적인 분석방법으로 단순회귀분석(pooled OLS)이나 패널 GLS(Generalized Least Squares)를 활용할 수 있다. 두 방법은 식 4-3의 u_i 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e_{i,t}$ 에 포함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패널 개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α 와 β 는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정된다. 패널GLS의 경우 OLS의 공분산행렬가정이 위배되는 경우 위반된 가정을 처치하고 GLS방식으로 추정하여 효율적인 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¹¹⁾

한편, 각 패널 개체의 특성(u_i)을 고려하는 고정효과, 확률효과 모형은 식 4-3의 기울기 모수인 β 가 모든 패널개체에 대해 동일하지만, 상수항 $\alpha + u_i$ 이 패널 개체마다 다르다고 가정하여 추정한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차이는 오차항 u_i 를 다루는 방식에 있다.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은 패널 개체에 따른 이질성을 나타내는 오차항 u_i 를 추정할 수 있는 모수로 간주한다.¹²⁾ 상수항 $\alpha + u_i$ 은 u_i 로 인해 패널 개체별로

11) 패널자료의 OLS추정량이 BLUE(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 최우수선형불편추정량)이 되기 위한 조건 ① 모든 개체의 모든 시점에서의 오차항의 기댓값이 0이며, ②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모든 시점에서 오차항의 분산이 σ^2 로 동일(동분산성)하고, ③ 모든 패널 개체의 오차항은 서로 상관관계(동시적 상관)가 없고 동일 개체의 서로 다른 시점의 오차항 사이에도 상관관계(자기상관)가 없어야 하며, ④ 오차항과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을 충족하는 경우 Pooled OLS와 패널GLS는 동일한 추정값을 얻지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Pooled OLS의 추정값을 신뢰할 수 없다.

서로 다르긴 하지만, u_i 는 모수이므로 $\alpha + u_i$ 는 고정값이라고 본다. 고정효과 모형은 추정과정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 개체별 특성 $\alpha + u_i$ 의 추정값을 직접 구하기 보다는 패널차수 간 차분 등의 방법으로 모형에서 제거한다. 이로 인해 오차항 u_i 와 $x_{i,t}$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해도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으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 개체의 특성(성별 등)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규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확률효과 모형은 u_i 를 추정할 모수가 아닌 확률변수($u_i \sim N(0, \sigma_u^2)$)로 가정한다. 따라서 패널 개체별 상수항인 확률변수 $\alpha + u_i$ 의 기댓값은 패널 개체별 상수항의 평균을 추정한 값¹³⁾이 되므로, 오차항의 1계 자기상관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기 위해 확률효과모형은 GLS 추정을 사용한다. 확률효과모형의 추정값이 일치추정량이기 위해서는 개체특성 오차항 u_i 와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패널회귀분석에서 고정효과 모형(이하 FE모형)이 적합한지 확률효과 모형(이하 RE모형) 모형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자료에서 패널 개체의 특성을 의미하는 u_i 와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오차항 u_i 과 설명변수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FE모형과 RE모형의 추정량은 모두 일치추정량이다. 그러나 오차항과 설명변수에 상관관계가 존재해 $cov(x_{i,t}, u_i) \neq 0$ 이면 두 모형의 추정결과에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¹⁴⁾ 이를 검증하는 것이 Hausman검증으로, 귀무가설인 $cov(x_{i,t}, u_i) = 0$ 이 기각되면 FE모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실증모형

12) 오차항 u_i 가 확률적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3) $E(\alpha + u_i) = \alpha + E(u_i) = \alpha$ (u_i 의 평균이 0 임)

14) FE모형의 경우 추정과정에서 u_i 를 within변환(기본 회귀식에서 각 변수의 개체별 평균값으로 이루어진 회귀식을 빼주는 방식)을 통해 제거하므로 추정값이 u_i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계량모형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 실증모형을 구성하였다. 은퇴 전후 소비지출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가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 요인들을 반영하였으며, 가계 총 소비지출,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가계지출함수를 구성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변수는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가구주관련 특성(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및 연령제곱, 교육수준), 가계특성(가구원 수, 거주형태, 혼인상태), 가계경제특성(가구소득, 금융자산, 부채규모 등)을 포함하였다.

$$\begin{aligned} \ln(\text{소비지출}) = & \alpha + \beta \text{은퇴여부} + \gamma_1 \text{가구주 성별} + \gamma_2 \text{가구주연령} + \gamma_3 \text{가구주연령}^2 \\ & + \gamma_4 \text{가구주 교육수준} + \delta_1 \text{가구원 수} + \delta_2 \text{거주형태} + \delta_3 \text{혼인상태} \\ & + \theta_1 \ln(\text{가구소득}) + \theta_2 \ln(\text{금융자산}) + \theta_3 \ln(\text{부채규모}) \end{aligned}$$

(식 4-4)

소득 및 지출은 경우 패널자료 상 측정값이 조사년도 이전 해의 소득 및 지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사년도 이전 해의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하였으며, 패널 회차별로 소득 및 소비지출 변수를 포함한 모든 변수값이 동일한 연도의 가계특성을 반영하도록 데이터를 정돈하였다. 또한 소득 및 소비지출, 소득, 자산과 부채규모 등 경제변수는 극단값을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로그화하였다.

3.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 분석모형

1) 계량모형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궤적을 파악하고자 종단적 다층모형(Multilevel Models)을 활용하였다. 다층모형¹⁵⁾은 관측치가 특정 그룹에

15) 다층모형은 연구자에 따라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s,

속하거나 군집되어 있는 경우에 상위레벨(집단)에 속한 관측치들과 하위레벨(개인)의 관측치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료의 구조에서 오는 영향관계를 반영해 분석하는 모형이다.

다층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기울기와 상수항이 모든 개체에 대해 동일하다고 보는 일반 선형회귀분석과 다르게 각 개체가 다른 기울기와 상수항을 가지며, 기울기와 상수항의 상관관계 및 각 개체 간 기울기와 상수항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층모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므로 결측치를 포함한 자료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Bryk & Raudenbush, 2002; MacCullum, Kim, Malarkey & Kiecolt-Glaser, 1997; 김지연, 2006에서 재인용) 모든 개체의 측정 시점이 같을 필요가 없으며 측정 간격 또한 제한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Willett & Sayer, 1994; 김지연, 2006에서 재인용).

한편, 패널데이터는 특정 개인 또는 가계(상위레벨)가 여러 시점의 관측치를 갖는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다층모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간의 변화에 따른 관측치의 성장궤적을 탐색하게 되기 때문에 다층성장모형(김은경·김순규, 2015) 또는 종단적 다층모형(김지연, 2006)으로 불린다. 종단적 다층모형을 통해 시간에 따른 개체의 평균적 변화와 그 변화의 개체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종단적 다층모형 분석의 첫 단계는 비조건부 성장모형을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가계소비지출의 변화궤적을 추정하는 것으로 먼저 비조건부 성장모형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6)

$$\begin{aligned}
 y_{ij} &= \alpha_j + \beta_j \text{TIME}_{ij} + e_{ij} \\
 \alpha_j &= \alpha_0 + u_{1j} \\
 \beta_j &= \beta_0 + u_{2j} \\
 y_{ij} &= \alpha_0 + \beta_0 \text{TIME}_{ij} + u_{1j} + u_{2j} \text{TIME}_{ij} + e_{ij} \quad (\text{식 4-5})
 \end{aligned}$$

Bryk&Raudenbush, 1987), 혼합된 선형모형(mixed linear models, Goldstein, 1986)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김지연, 2006).

16) 민인식·최필선(2012)를 참조하였다.

식 4-5는 하위레벨(가계의 시간별 관측치) 수준에서 표현된 식이다. y_{ij} 는 특정시점 i 에서 가계 j 의 종속변수 값이다. α_j 와 β_j 는 설명변수 없이 평균과 확률적 분포를 지닌 오차항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비조건부 성장모형에서 상수항과 기울기 모두 가계 j 의 특성(상위레벨의 특성, u_{1j}, u_{2j})에 따라 달라지는 확률계수를 갖게 된다. 식 4-5의 배치를 조정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_{ij} = (\alpha_0 + \beta_0 TIME_{ij}) + (u_{1j} + u_{2j} TIME_{ij} + e_{ij}) \quad (\text{식 4-6})$$

이때 앞쪽 괄호는 고정요소가 되며 뒤쪽은 확률요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상수항 α_0 는 최초 시점의 종속변수 y 의 평균이며 주로 초기치로 명명하고, β_0 는 시간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이때 $var(u_{1j})$ 가 0이 아니면 상위레벨인 가계 j 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치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var(u_{2j})$ 가 0이 아니면 종속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개체 간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건부 성장모형은 비조건부 성장모형에 설명변수가 포함된 형태이다. 설명변수에는 개체 별로 상이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z_j)와 개체 뿐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는 변수(x_{ij})가 있다.¹⁷⁾ 비조건부 성장모형은 α_j 와 β_j 에 영향을 주는 변수 z_j 와 종속변수 y_{ij} 에 영향을 주는 변수 x_{ij} 가 있는 형태이다. 먼저 초기치와 시간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 z_j 를 반영하면 $\alpha_j = \alpha_0 + \alpha_1 z_j + u_{1j}$, $\beta_j = \beta_0 + \beta_1 z_j + u_{2j}$ 이며, 이 때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y_{ij} = \alpha_0 + \alpha_1 z_j + \beta_0 TIME_{ij} + \beta_1 z_j TIME_{ij} + u_{1j} + u_{2j} TIME_{ij} + e_{ij} \quad (\text{식 4-7})$$

조건부 성장모형에서 β_0 는 시간에 따른 종속변수 y 의 변화율이다.

17) 개체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는 변수는 시불변변수(TIC, Time-invariant covariate), 시간과 개체에 따라 다른 변수는 시변변수(TVC, Time-varying covariate)라고 불린다.

$z_j TIME_{ij}$ 의 계수 β_1 는 설명변수 z_j 와 시간의 상호작용의 크기를 나타낸다. 시간과 개체에 따라 변하는 설명변수 x_{ij} 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y_{ij} = \alpha_0 + \alpha_1 z_j + \beta_0 TIME_{ij} + \beta_1 z_j TIME_{ij} + \gamma_1 x_{ij} + u_{1j} + u_{2j} TIME_{ij} + e_{ij} \quad (\text{식 4-8})$$

식 4-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건부 성장모형에서 시변변수 x_{ij} 는 하위레벨 변수로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하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시불변변수 z_j (성별, 인종 등 개체 특성, 상위레벨 변수)는 상호작용변수로도 작용하여 종속변수 값의 변화 뿐 아니라 종속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β_1)도 파악할 수 있다.

2) 실증모형

본 연구에서는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궤적을 파악하기 위한 비조건부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ln(C_{ij}) = \alpha_0 + \beta_0 wave_{ij} + u_{1j} + u_{2j} wave + e_{ij} \quad (\text{식 4-9})$$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 $wave$ 는 한국노동패널 패널차수를 의미한다. 분석에 사용된 한국노동패널자료는 6-17차 자료로, $wave$ 변수는 6-17의 범위값을 갖는다. 그러나 비조건부 모형에서 $wave$ 값이 0인 시점에 의미가 있는 초기치 α_0 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6차 자료의 $wave$ 값이 0이 되도록 $wave$ 변수를 변환해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가계소비지출 변화(초기치 및 변화율)의 가계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투입한 조건부 성장모형을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가계소비지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크게 가계 특성, 경제적 특성, 심리적 요인, 이벤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모형에서는 해당 변수들을 시변변수(TVC)와 시불변변수

(TIC)로 구분하고, 특히 시불변변수는 시간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변화율의 가계 간 차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가정하여 시간의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다.

$$\ln(C_{ij}) = \alpha_j + \beta_j wave_{ij} + \sum_{n=1}^n \gamma_n x_{n,ij} + e_{ij} \quad (\text{식 4-10})$$

$$\alpha_j = \alpha_0 + \alpha_1 household_j(TIC) + \alpha_2 psy_j(TIC) + u_{1j}$$

$$\beta_j = \beta_0 + \beta_1 household_j(TIC) + \beta_2 psy_j(TIC) + u_{2j}$$

$$x_{n,ij} (TVC) : household_{ij}, econ_{ij}, event_{ij}$$

식 4-10에서 α_j 와 β_j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가계j의 특성(TIC)에 영향을 받는 모수이며, γ_n 은 시간과 가계에 따라 변하는 시변변수 $x_{n,ij}$ (TVC)의 영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모형에서 가계 경제적 특성과 이벤트 요인은 모두 시변변수로 반영하였으며, 심리적요인은 모두 시불변변수로 반영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설정된 실증모형은 식 4-11과 같다.

$$\begin{aligned} \ln(C_{ij}) = & \alpha_0 + \alpha_1 household_j + \alpha_2 psy_j \\ & + \beta_0 wave_{ij} + \beta_1 household_j wave_{ij} + \beta_2 psy_j wave_{ij} \\ & + \gamma_1 household_{ij} + \gamma_2 econ_{ij} + \gamma_3 event_{ij} \\ & + u_{1j} + u_{2j} wave_{ij} + e_{ij} \end{aligned} \quad (\text{식 4-11})$$

- $household_j$: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수준, 거주형태, 가구주 혼인상태
- psy_j : 주관적 건강상태, 개인연금 가입여부, 따로사는 자녀와 왕래, 따로사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 $household_{ij}$: 가구주 연령
- $econ_{ij}$: 금융자산, 주택관련자산, 부채, 가구소득
- $event_{ij}$: 이사여부, 거주형태 변화, 혼인상태 변화, 가구주의 소득활동 참여, 건강 변화

가계 특성은 가구주 및 가구구성 관련 특성을 말한다. 가계 특성 중 가구원 수를 제외한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수준, 거주형

태 및 혼인상태는 각 가구의 최초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시불변변수화 하였다. 가계 경제적 특성 변수로는 금융자산, 주택관련자산, 부채, 가구소득이 사용되었으며,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시변변수로 반영하였다. 심리적 요인은 기대수명의 불확실성(장수위험) 염려와 상속동기로, 기대수명의 불확실성 염려에 대한 대리변수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과 개인연금 가입여부를, 상속동기에 대한 대리변수로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 정도와 따로 사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지원을 포함하였다. 심리적 요인의 대리변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소라기 보다는 가구주의 심리적 경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 개체 별로 여러 응답 시점의 값을 평균하여 시불변변수로 재구성해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계가 은퇴기에 경험할 수 있는 이사, 거주형태의 변화, 혼인상태의 변화(이혼 및 배우자 사별), 가구주의 소득활동 참여, 가구주의 건강변화를 이벤트 요인으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거주형태의 변화와 혼인상태의 변화는 연속 측정된 두 시점의 응답값을 비교하여 새로운 변수를 구성한 뒤 더미변수로 포함하였다.

제 2 절 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가구주 은퇴에 따른 가계 소비지출의 변화를 살피고,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변화 궤적을 추정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동일 가계를 추적 조사한 패널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3-18차(2000-2015년)자료¹⁸⁾를 활용하였다.

18) 현재 노동연구원에서 정식으로 공개한 자료는 1-17차(1998-2014)자료이나, 2015년에 조사된 18차 부가조사에 본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인 은퇴 가구주 관

한국노동패널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도시지역을 대표하는 5,000가구와 그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과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을 추적하여 조사하는 종단조사이다. 매년 실시되는 본조사는 소득, 소비, 저축, 자산, 주거, 자녀교육 등을 가구단위로 조사하고, 경제활동상태(고용형태, 근로조건, 노동조합), 교육, 훈련 등에 대해서는 개인단위로 조사한다. 본조사 외에 비정기적으로 청년, 건강과 은퇴, 시간사용과 삶의 질, 장년층 등의 주제로 부가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98년 1차 조사 당시 5,000가구 13,321명의 가구원이 응답에 참여하였고, 2009년 12차 조사에서 1,451가구 표본이 추가되었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대면으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면접원이 컴퓨터를 통해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1-18차(1998-2015년) 조사의 원표본 유지율은 약 68.4%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문제에 따라 데이터세트를 상이하게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 자료의 특징은 <표3-1>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은 은퇴 시점 전후 가계소비지출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은퇴자 가계를 추출한 후, 해당 가계의 은퇴연도를 기준으로 1년 전, 후의 소비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를 선별하였다. 조건에 부합하는 가계는 200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은퇴한 가계이다. 연구문제 2는 은퇴가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여부를 파악¹⁹⁾할 수 있는 은퇴자, 비은퇴자 가계를 모두 포함하였다. 연구문제 3은 은퇴생활기간 동안의 가계소비지출 궤적을 파악하는 것으로 은퇴기에 경험하는 거주형태 변화 및 혼인상태 변화 등 이벤트 요인 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연속한 두 개 연도의 데이터를 조합하여 사용함에 따라 조사차수에 시간 갭이 없는 은퇴자 가계만을 포함하였다. 또한 패널조사기간 중 은퇴한 가계의 경우 은퇴 이후 측정치만을 분석에 포함하였고 각 가계의 은퇴연도가 상이함

련 항목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연구용으로 사전 배포된 1-18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19) 4차, 6차, 18차 부가조사의 은퇴여부 문항에 응답한 경우에만 은퇴여부 파악이 가능하다.

에 따라 가계 별 패널조사 응답기간이 상이한 불균형패널을 구성하였다.

<표3-1>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자료 특징

영역	주제	대상	데이터세트 구성 조건	표본 수
연구 문제 1	은퇴 전후 가계소비지출 변화	은퇴자 가계 (만 50세 이후 은퇴)	가구주가 3-18차 본조사 및 4, 6, 18차 부가조사를 통해 은퇴했다고 응답한 가계중 가구주의 은퇴연도를 기준으로 은퇴 전후 1년의 소비지출이 파악 가능한 가계	384가구
연구 문제 2	은퇴가 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은퇴자 및 비은퇴자 가계	가구주가 3-18차 본조사 및 4, 6, 18차 부가조사에 은퇴여부를 응답한 가계	N=16,790 (1,663가구, 1-15개 차수)
연구 문제 3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른 가계 소비지출변화	은퇴자 가계 (만 50세 이후 은퇴)	가구주가 6-18차 본 조사와 4, 6, 18차 부가조사를 통해 은퇴했다고 응답한 가계로 회차별 시간갭이 없는 불균형 패널 구성	N=3,541 (526가구, 1-12개차수)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은퇴

은은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분석대상과 연구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 권문일(1996)에 따르면 은퇴에 대한 정의는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거나(Parnes et al., 1975; 안중범·전승훈(2003); 전승훈(2005)) 경제활동 참여여부, 노동시간이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두 지표 중 하나가 일정 수준이하로 급격히 축소되는 시점을 은퇴시기로 정의하는 방법 (윤재호·김현정, 2011)²⁰⁾,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주된 직장을 그만두는

20) 해당 연구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료, 최초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조사 기간동안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은퇴로 정의하였다.

시점을 은퇴로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공적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최초로 수급하는 시점을 은퇴시점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노동시간이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설문조사에 의한 은퇴 정의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며, 완전은퇴 상태에서 부분은퇴로 전환된 역방향의 은퇴 등을 감안할 수 없다. 또한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주된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을 은퇴로 정의할 경우 평균 은퇴연령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금수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전면적인 연금도입의 역사가 길지 않고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직장 퇴직연령이 다른 우리나라의 사정에 적합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가 은퇴여부를 주관적 평가에 의해 직접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또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은퇴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은퇴정의를 준용하였으며, 가구주가 4차 및 6차, 18차 부가조사의 은퇴 여부를 묻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하고, 은퇴연도를 기재하였으며 은퇴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이었던 경우를 은퇴자 가계로 간주하였다.²¹⁾ 다만, 세 차례의 부가조사의 은퇴여부 문항에서 패널차수 마다 대답이 상이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자료를 종단적으로 연결시킨 뒤 은퇴여부 응답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모순이 발견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은퇴연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근래에 가까운 연도를 은퇴연도로 일괄 적용하였다.²²⁾

2) 가계 경제적 특성

21) 본 연구에서의 관심을 두는 은퇴는 주된 일자리를 그만 둔 이후 여러 사유로 짧지 않은 기간 일을 하지 않아 은퇴라고 응답하였으나 경제 여건 등 사정에 따라 이후 추가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은퇴 당시 가구주 연령을 50세 이상인 경우만 포함하였다.

22) 이전 차수 조사에서 은퇴 했다가 다시 비은퇴 상태 등으로 전환된 사례를 제외하였고, 조사마다 은퇴연도가 상이한 경우 기재된 은퇴 연도 중 가장 늦은 연도를 은퇴연도로 정하였다.

(1)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가구 전체의 세후 연소득을 의미하며 분가하지 않은 가구의 소득 및 일시적 비동거 가구원의 소득도 포함된다. 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소득의 연 단위 합계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활용하였다.

(2) 소비지출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4-18차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측정된 10개 소비비목의 지출액과 월평균 생활비를 가계소비지출을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1차와 3차 조사²³⁾를 제외한 나머지 차수의 자료는 가계소비지출을 소비비목별로 상세히 파악하고 있으나 조사가 거듭되어 오면서 소비비목이 세분화되고 추가되었다. 이에 분석에 앞서 소비비목의 구성을 확인하고, 재구성²⁴⁾하였으며 총 21개 소비비목 중 조사 시기마다 분류가 바뀌지 않고 공통적으로 조사된 항목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조사년도 전년도에 월평균 생활비 및 소비비목별 지출액을 측정하는데 본 연구는 4-18차 소비지출자료를 다루므로 2000년에서 2014년의 가계소비지출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노동패널자료의 소비지출비목구분과 조사 차수에 따른 소비지출비목의 변화,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활용한 소비지출비목은 <표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1-3차 조사에서 가계소비지출이 비목별로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1-3차 소비지출자료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24)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하여 '교육비' 항목으로 묶었다.

<표3-2>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차수별 소비비목 구분

2차	4차	5차	6차	7,8차	9, 10차	11-18차	본 연구	
작년 한해 월평균 생활비 (1,3차 조사에서 단일분항 측정)								
식비	식비	식비	식비	식비	식비	식비	식비	
외식비	외식비	외식비	외식비	외식비	외식비	외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공교육비	공교육비	공교육비	공교육비	공교육비	공교육비	교육비	
사교육비	사교육비	사교육비	사교육비	사교육비	사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주거비	주거비	주거비	주거비	주거비	주거비	주거비	
경조사비	경조사비	경조사비	경조사비	경조사비	경조사비	경조사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보건의료비	보건의료비	보건의료비	보건의료비	보건의료비	보건의료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교양오락비	교양오락비	교양오락비	교양오락비	교양오락비	교양오락비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	내구재구입	내구재구입	내구재구입	내구재구입	내구재구입	내구재구입	내구재구입	
기타	통신비	통신비	통신비	통신비	통신비	통신비	통신비	
	기타	용돈	용돈	용돈	같이사는	같이사는	같이사는	
					부모님용돈	부모님용돈	부모님용돈	
					자녀 용돈	자녀 용돈	자녀 용돈	
					그 외	그 외	그 외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가구원용돈	가구원용돈	가구원용돈	
					피복비	피복비	피복비	
					기타	현금 및 각	현금 및	현금 및
						종기부금	각종기부금	각종기부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대중교통비					대중교통비	대중교통비		
기타	기타	기타	생필품구입	생필품구입	생필품구입			
			기타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기타	기타		

한편, 가계의 총 소비지출규모를 비교함에 있어 가구원 수에 따른 지출액 차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가구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를 활용하였다.²⁵⁾ 또한 소비지출의 실질가치를 비교하기 위해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2014년 100기준)를 이용하여 소비지출액을 조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모든 소득 및 소비지출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해 조정된 실질 값이다.

25) 이는 서로 다른 가구규모 및 가구구성원을 가진 가계의 생활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조정하는 OECD의 가구균등화지수를 활용하였다. 각 연도의 월평균 생활비를 해당 연도의 가구원수의 제공근으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표3-3>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소비자 물가지수	60.49	65.03	65.56	67.04	69.77	71.70	74.21	76.88	79.00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소비자 물가지수	80.77	82.82	86.69	89.08	91.71	95.38	97.47	98.74	100.0

(3) 자산과 부채

자산 변수로는 금융자산과 주택관련자산을 포함하고, 부채 변수는 부채보유액을 활용하였다. 금융자산은 예·적금(CMA포함), 주식·채권·신탁, 저축성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기타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6개 항목 보유액을 합산하였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거주주택이 자가인 경우 그 시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액수를 조사하고 있어 이를 결합해 주택관련자산 변수를 생성, 활용하였다. 부채는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받은 것(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여야 할 계, 기타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항목 보유액을 합산하여 부채보유액 변수를 생성, 활용하였다.

3) 심리적 요인

(1) 기대수명의 불확실성 염려

가구주는 본인의 은퇴생활이 얼마나 지속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기대수명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 장수에 대한 우려가 은퇴기 소비지출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대수명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를 직접 측정하고,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들은 찾기 어렵다. 다만 이찬희·정홍주(2016)는 장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클수록, 위험을 회

피하려는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가입의향이 높다고 하였고 송윤아(2009) 역시 주관적 기대여명이 개인연금 가입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줄을 실증하였다. 이들 연구는 개인연금가입이 소비자의 기대여명 및 위험감수성향의 대리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기대수명과 장수가능성을 예상하는 데 있어 주관적 건강상태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객관적인 건강상태가 실제 여명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면, 주관적인 건강상태 인식은 자신의 여명을 예측하게 하는 요소이다. 만약 은퇴자가 동년배나 주변 사람들보다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인식할 경우 장수가능성을 높게 인지하고, 길어질 수명에 대해 경제적인 대비를 해야한다고 느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변수로 한국노동패널의 ‘동년배의 보통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인식하는지’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2) 상속동기

은퇴기 가계에서 자녀에게 자산의 일부를 상속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 현재의 지출을 줄이고 자산의 인출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동기는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 수준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에는 상속동기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상속동기를 대리할 수 있는 변수를 구성하였다. Bernheim et al.(1985)은 자녀의 방문횟수와 유산상속액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의 서비스의 대가로 소유자산을 교환하는 전략적 유산상속동기가 있다고 하였고, 김용진(2013)의 경우 자녀와 관계가 좋을수록 유산상속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한국노동패널의 설문 문항 중 ‘따로 사는 자녀들과 작년 한 해 동안 어느 정도 왕래하였는지’ 빈도를 묻는 문항을 상속동기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한편, Tomes(1981)는 자녀소득과 유산상속액이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하여,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한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경향으로써 이타적 상속동기가설을 지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노동패널에서 ‘따로 사는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경험이 있는지’ 묻는 문항을 이타적 상속동기의 대리변수로 상정하였다.

4) 이벤트 요인

본 연구에서는 가계가 은퇴생활 중 경험하는 각종 사건들이 가계의 소비지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영향요인으로 반영하였다. 먼저 주거이동과 관련하여 이사여부와 거주형태의 변화 변수를 투입하였다. 이사여부는 한국노동패널의 본 조사에 있는 ‘지난조사 이후 이사진 적이 있으십니까?’ 문항의 응답을 활용하였고, 거주형태의 변화는 연속한 2개년의 조사에서 응답한 거주형태에 차이를 파악해 새로운 더미변수(변화없음, 자가에서 전,월세, 기타 변화 등)를 구성하였다. 가구구성의 변화는 혼인상태 변화로 반영하였으며, 거주형태 변화 변수생성과 동일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가구주의 소득활동 참여는 ‘평소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항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건강변화 변수는 ‘1년 전과 비교할 때 건강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문항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문제 1은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특정 기간 내 은퇴한 가계의 은퇴 전후 소비지출을 대응표본 t검정 (paired t-test)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가계특성 및 은퇴특성에 따라 집단을 나누는 뒤, 집단 별로 은퇴 전후 소비지출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2는 은퇴가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은퇴가 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은퇴 여부 더미변수를 포함한 가계지출함수를

구성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GLS,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을 통해 자료가 분석모형의 기본 가정을 위배하는 경우 적절한 처치를 포함해 수정한 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 3은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의 궤적을 파악하고,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가계 지출함수에 근거한 종단적 다층모형을 구성하고 비조건부 모형과 조건부모형을 통해 각각 은퇴기 소비지출의 궤적과 변화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은 STATA 14.2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한국노동패널 3-18차 본조사 및 제 4차와 6차, 18차 부가조사를 활용하였다. 연구문제 별로 상이한 데이터세트를 활용하였기에 분석결과 서술에 앞서 각 절에 자료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제 4 장 결과 및 논의

제 1 절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

1.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

1) 분석대상 자료 구축

본 절에서는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규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은퇴 전과 후의 시기가 모두 3차(2000년)에서 17차(2014년)조사²⁶⁾ 범위에 위치하여 소비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은퇴자 가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은퇴자 가계 중에서도 2001년에서 2013년에 은퇴한 경우만 포함된다. 은퇴 여부는 한국노동패널 4차, 6차, 18차 부가조사에 있는 은퇴여부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에 한번이라도 은퇴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로 은퇴 당시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를 은퇴자 가계로 분류하였다.²⁷⁾

최종적으로 384가구가 분석대상이 되었으며 이들 은퇴자 가계는 은퇴시점이 다양하며, 패널조사 진입 및 탈퇴시점, 응답지속기간도 상이하다.

월평균 총 소비지출 및 소비비목별 지출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조정한 뒤, 필요에 따라 해당연도의 가구원 수에 따라 조정하였다.

26) 조사자료의 특성 상 4차(2001년)조사는 2000년의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을 측정하고 있고, 2000년 당시의 가계의 전반적인 특성은 3차 조사에 측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전반적인 특성이 측정된 해를 기준으로 사전에 자료를 병합하였고, 이에 따라 4차 조사에서 측정된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은 3차 자료에 반영되었다.

27) 4차 부가조사에서 은퇴했다고 응답하였으나, 6차, 18차 부가조사에서 은퇴하지 않았다고 응답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은퇴여부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하였다.

2) 은퇴자 가계의 가구특성

<표4-1>은 은퇴자 가계의 은퇴시점의 가구특성을 보여준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계의 은퇴 당시 가구주 평균 연령은 62.1세이며, 60세 이상 65세 미만에 은퇴한 가계가 3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은퇴자 가계의 가구주 성별은 남성이 78.7%, 여성이 21.4%로 남성 가구주의 비율이 3배 이상이었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5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고졸이 29.7%로 뒤를 이어 은퇴자 가계의 가구주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이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고연령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은퇴 당시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가 69.8%로 대다수이며,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19.8%였다. 은퇴자 가계의 은퇴 당시 평균 가구원수는 2.6명이며, 2인 가구의 비율이 33.9%로 가장 높고, 3명으로 구성된 경우가 26.8%였다. 은퇴 당시 거주형태는 자가비율이 74.2%로 가장 높았다.

<표 4-1> 은퇴자 가계의 은퇴 시점의 가구 특성 (N=384, 단위:명)

		빈도 (%)			빈도 (%)
가구주 은퇴 연령	평균 은퇴 연령(세)	62.1	가구원 수	평균	2.6
	50세 이상~55세 미만	30 (7.8)		1명	64 (16.7)
	55세 이상~60세 미만	95 (24.7)		2명	130 (33.9)
	60세 이상~65세 미만	143 (37.2)		3명	103 (26.8)
	65세 이상~70세 미만	79 (20.6)		4명	65 (16.9)
	70세 이상	37 (9.6)		5명 이상	22 (5.7)
가구주 성별	남자	302 (78.7)	배우자 유무	미혼	4 (1.0)
	여자	82 (21.4)		기혼(유배우자)	268 (69.8)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이하	218 (56.8)		별거 및 이혼	36 (9.4)
	고졸	114 (29.7)	배우자 사별	76 (19.8)	
	전문대졸	15 (3.9)	거주 형태	자가	285 (74.2)
	대졸	32 (8.3)		전세	62 (16.2)
	석사이상	5 (1.3)		월세	30 (7.8)
		기타		7 (1.8)	

3) 은퇴자 가계의 경제적 특성

은퇴자 가계의 경제적 특성은 은퇴 직전 연도와 은퇴 직후 연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은퇴자 가계의 은퇴 전 해 월평균 소득은 약 350.2만원이며, 그 중 근로소득이 248.8만원으로 전체 소득의 71.1%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부동산소득이 15.2% 였다. 은퇴 다음 해에 근로소득의 비중은 56.5%로 크게 감소하고 사회보험소득과 이전소득의 비중이 늘어 소득원이 분산되는 특징을 보였다.

은퇴자 가계의 은퇴 직전 해 자산과 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금융자산 평균 보유액은 2,764.3만원이며 금융자산의 82.4%가 은행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자산에 치중된 자산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금융자산이 전혀 없는 가계도 33.6%에 달하며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계(66.4%)의 평균 보유액은 4,162.7만원이었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 해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 가계 중 은퇴 전 해 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151가구로, 전체의 39.3%이다. 부채 보유 가계의 평균 부채액은 6,649.2만원이고, 비보유 가계를 포함했을 때 평균 부채보유액은 2,536만원이다. 금융기관부채 비중은 62.4%로 가장 많았고,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부채의 비중이 30.8%로 높은 수준이었다. 은퇴자 가계의 소득 중 부동산 소득 비중이 다소 높고, 임대보증금 등 부채 비중이 높음을 통해 은퇴자 가계가 부동산 임대를 통해 근로소득의 상실을 보완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은퇴 전 해에 비해 은퇴 다음 해에 금융기관 부채 및 임대보증금 부채가 나란히 증가하면서 부채 총액이 다소 증가하였다.

<표 4-2> 은퇴자 가계의 은퇴 전후 1년 경제적 특성²⁸⁾ (N=384, 단위:만원)

		은퇴 전 해			은퇴 다음 해		
		평균 (S.D)	%		평균 (S.D)	%	
소득	월평균 소득	350.2 (583.4)	100.0		242.5 (222.0)	100.0	
	근로소득	248.8 (247.2)	71.1		137.0 (178.9)	56.5	
	금융소득	6.9 (40.5)	2.0		6.1 (23.9)	2.5	
	부동산소득	53.2 (507.7)	15.2		23.0 (100.8)	9.5	
	사회보험소득	14.9 (39.6)	4.3		44.7 (86.0)	18.4	
	이전소득	15.6 (29.2)	4.5		27.0 (43.6)	11.1	

	기타소득	10.8 (88.0)	3.1	4.6 (40.6)	1.9
금융 자산	금융자산 총액(보유가계)	4162.7 (7139.8)		5534.9 (10343.0)	
		n=255		n=243	
	금융자산 총액(비보유가계 포함)	2764.3 (6138.6)	100.0	3502.6 (8644.8)	100.0
	은행예금	2278.5 (5794.6)	82.4	2915.5 (7421.3)	83.2
	주식, 채권, 신탁	131.9 (1201.1)	4.8	215.5 (2061.9)	6.2
	저축성 보험	194.6 (806.0)	7.0	187.1 (1013.4)	5.3
	아직 타지 않은 계	20.2 (199.5)	0.7	0.2 (3.6)	0.0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77.3 (1273.5)	2.8	176.4 (2593.9)	5.0
	기타 금융자산	61.8 (797.6)	2.2	7.8 (131.8)	0.2
부채	부채 총액(보유가계)	6649.2 (7119.7)		7148.4 (8257.5)	
		n=151		n=152	
	부채 총액(비보유가계 포함)	2536.0 (5459.2)	100.0	2829.6 (6255.8)	100.0
	금융기관부채	1581.4 (4463.4)	62.4	1705.3 (4903.5)	60.3
	비금융기관부채	12.0 (160.6)	0.5	9.5 (145.6)	0.3
	개인적으로 빌린 돈	150.4 (964.9)	5.9	81.9 (638.7)	2.9
	전세금, 임대보증금받은 것	781.8 (2503.5)	30.8	1032.9 (3204.6)	36.5
	미리 타고 앞으로 부을 계	10.4 (140.3)	0.4	0.0 (0.0)	0.0
기타 부채	0.0 (0.0)	0.00	0.0 (0.0)	0.0	

4) 은퇴자 가계의 은퇴관련 특성

은퇴자 가계의 은퇴관련 특성을 보면 384가구 중 ‘은퇴하였으나 소일 거리를 한다’고 응답한 부분은퇴 가계는 49가구로 전체의 12.8%이며, 가구주의 평균 은퇴연령은 62.1세이다. 가구주의 평균 은퇴기간은 8.3년이며, 은퇴한지 3년 이하가 66가구로 전체의 17.2%이며, 4년~7년 정도 은퇴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35% 였다.

은퇴 이유는 ‘본인의 건강이 나빠져서’가 39.1%, ‘정년퇴직’이 25.3%를 차지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나 ‘더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등 자유로운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은퇴를 선택한 경우는 2.6%로 극히 소수이고,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해고 등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 일자리 관련 조건의 악화로 인한 퇴직이 28.4% 였다. 은퇴자 가계는 자발적으로 은퇴를 선택한 경우보다 직장이나 일자리 상황의 악화, 건강 악화로 불가피하게 은퇴한 경

28) 경제적 특성인 소득, 소비, 금융자산, 부채는 각 가계 별 은퇴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2014년 기준 100)를 이용해 변환하였다.

우가 더 많았다.

<표 4-3> 은퇴자 가계의 은퇴관련 특성 (N=384, 단위:명)

	빈도	%
은퇴	384	(100.0)
완전 은퇴	335	(87.2)
부분 은퇴(소일거리하며 지냄)	49	(12.8)
평균 은퇴연령	62.1세	
50세 이상~55세 미만	30	(7.8)
55세 이상~60세 미만	95	(24.7)
60세 이상~65세 미만	143	(37.2)
65세 이상~70세 미만	79	(20.6)
70세 이상	37	(9.6)
평균 은퇴기간	8.3년	
3년 이하	66	(17.2)
4~5년	67	(17.5)
6~7년	67	(17.5)
8~10년	44	(11.5)
11~13년	62	(16.2)
14년~15년	78	(20.3)
은퇴 이유	384	(100.0)
정년퇴직	97	(25.3)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9	(2.3)
본인의 건강 악화	150	(39.1)
더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8	(2.1)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2	(0.5)
가족 건강 악화 및 손자녀 양육 등의 집안일	9	(2.3)
본인 및 배우자 수입에 여유가 있어서	6	(1.6)
해고,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	50	(13.0)
고용주나 일로부터의 압박 및 스트레스	25	(6.5)
기타	28	(7.3)

2. 은퇴 전후 총 소비지출의 변화

은퇴자 가계의 은퇴 전 해와 은퇴 다음 해의 소비지출규모에 차이가 있는지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은퇴자 가계의 은퇴 전 해의 월평균 생활비는 179.5만원, 은퇴 다음 해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63.6만원으로 은퇴 전 해에 비해 평균 15.9만원(은퇴 전 소비지출 대비

8.9%) 줄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가구원 수는 가계의 소비지출규모를 크게 좌우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통제 한 후²⁹⁾ 소비지출변화를 비교한 결과 은퇴 직전 해 균등화 소비지출액은 106.8만원이었으나 은퇴 후 100.5만원으로 약 6.3만원(5.9%) 줄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은퇴 전후 가구원 수의 변화를 통제하더라도 가계의 총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가구원수를 통제하지 않은 경우 감소율과 통제 한 후의 감소율 사이에 약3.0%p의 차이가 있으며, 이 부분이 가구원 수 감소에 의해 소비지출액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4> 은퇴 전후 총 소비지출 변화 (N=384, 만원)

N=384	은퇴 전 해		은퇴 다음 해		△	△%	t값
	평균	(S.D)	평균	(S.D)			
월 소비지출	179.5	(116.2)	163.6	(107.4)	-15.9	-8.9	3.914***
월 소비지출 (가구원수 균등화 후)	106.8	(59.6)	100.5	(55.3)	-6.3	-5.9	2.817**

*p < .05, **p < .01, ***p < .001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중 1998-2003년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전승훈(2005)에서는 은퇴 후 소비지출이 오히려 증가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 은퇴 후 소비지출이 감소한 결과가 나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국민노후보장패널 1-3차(2005-2009년)를 이용한 석상훈(2010)의 연구는 은퇴자 가계의 균등소비지출이 은퇴 전에 비해 13.3%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하여 규모에 차이가 있지만 월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유경원(2012)이 동일시기의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퇴 전후 총 소비지출과 경상소비지출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고 자산 1분위 가계의 은퇴 후 지출감소 만이 유의하였다.

이에 은퇴 후 소비지출규모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편적인 현상인지, 은

29) 전체 384가구 중 은퇴 전에 비해 은퇴 후 가구원수가 감소한 가계는 69가구(18.0%)로 78.7%는 가구원 수 변화가 없었고 13가구에서만 은퇴 후 가구원수가 증가하였다.

퇴자 가계의 특성에 따라 다른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가계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경제적 특성과 은퇴관련 특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소비는 소득의 제약 하에서 이루어지며 은퇴 전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후 가용자산을 보다 많이 축적해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은퇴 전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가계를 분류하고, 각 집단의 은퇴 전후 소비지출규모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소득분위에 따라 은퇴 전후 월평균 소비지출의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표 4-5>에 따르면, 은퇴 전 해 가구 소득수준이 3~5분위에 해당하는 가계에서는 은퇴 후 소비지출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가구소득 1-2분위 가계에서는 은퇴 전후 소비지출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소득 1분위 가계의 경우 은퇴 후 가구소득이 줄어들어도 불구하고, 월평균 지출이 6.9만원 늘었다. 소득 1분위 가계의 소비지출 규모가 필수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한 수준³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구소득 감소와 관계없이 소비지출 규모를 줄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4-5> 은퇴 전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은퇴 전후 총 소비지출 변화 (단위: 만원)

가구 월 소득	N	은퇴 전 해		은퇴 다음 해		△	△%	t값
		소득 중위 값 ³¹⁾	소비지출	소득 중위 값	소비지출			
			평균 (S.D)		평균 (S.D)			
1분위	77	55.6	63.3 (42.8)	53.5	70.2 (40.3)	6.9	10.9%	-1.598
2분위	77	138.2	116.3 (57.2)	108.9	112.6 (62.5)	-3.7	-3.2%	0.6245
3분위	77	233.8	171.9 (65.3)	170.9	156.8 (80.1)	-15.1	-8.8%	2.023*
4분위	77	384.2	234.9 (69.7)	277.0	204.9 (82.9)	-30.0	-12.8%	2.963**
5분위	76	659.9	312.9 (123.8)	455.8	275.1 (117.6)	-37.8	-12.1%	2.752**

*p < .05, **p < .01, ***p < .001

30)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1인 가구 471,201원 인 것과 비교했을 때, 소득 1분위 가계의 소비지출 규모는 필수적인 생활만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

31)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제시한 것은 은퇴 전후 가구소득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일부 사례로 인한 평균값의 왜곡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실제 은퇴 전 소득 5분위 가계의 은퇴 전 소득 평균은 940.4만원인데, 이는 은퇴 직전 해 부동산

소득 분위가 높은 가계일수록 은퇴 전후 가계소득의 감소폭이 크고, 소비지출 감소폭도 컸다. 은퇴 후 가구소득이 은퇴 전의 소비지출을 충당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소득 4분위 이상 가계에서 유의한 소비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은퇴 후 가계의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것이 소득이 소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표 4-6>은 가구소득에 포함된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등의 영향을 제외한 가구의 순수 근로소득과 은퇴 후 소비지출 변화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은퇴 전 가구주 개인의 근로소득³²⁾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의 은퇴 전후 월평균 소비지출 변화를 살펴보았다. 은퇴 전 가구주 근로소득이 1분위, 4분위, 5분위인 가계에서만 은퇴 다음 해의 소비지출이 은퇴 전 해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가구주 근로소득 1분위 가계의 경우 2, 3분위 가계에 비해 큰 폭의 유의한 지출감소가 발견되는데, 이는 절대적인 소득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4-6> 은퇴 전 가구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은퇴 전후 총 소비지출 변화 (단위: 만원)

가구주 월 근로 소득	N	은퇴 전 해			은퇴 다음 해		△	△%	t값
		소득 증위 값 ³³⁾	소비지출		소비지출				
			평균	(S.D)	평균	(S.D)			
1분위	45	51.3	131.6	(90.0)	112.2	(78.7)	-19.4	-14.8%	2.339*
2분위	45	96.6	137.6	(74.0)	125.9	(70.4)	-11.7	-8.5%	1.276
3분위	44	153.9	179.5	(76.5)	161.6	(88.2)	-18.0	-10.0%	1.611
4분위	45	269.4	230.1	(86.4)	194.0	(96.4)	-36.2	-15.7%	3.564***
5분위	44	503.3	353.4	(125.4)	297.3	(114.8)	-56.1	-15.9%	2.912**

*p < .05, **p < .01, ***p < .001

※ 가구주 개인의 근로소득을 묻는 문항은 한국노동패널 6차조사 이후 포함되었으며, 해당 문항에 응답한 223가구만 분석하였음.

산관련 소득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두 사례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32) 가구주의 세후 근로소득은 노동패널 6차년도 조사부터 측정되었으며, 이는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뿐 아니라 자영업 등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근로소득으로 측정되었다.

33) 은퇴 이후 가구주 근로소득분위 별 해당 가구의 절반 이상이 근로소득이 0이 되어 은퇴 이후 소득치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은퇴 관련 특성에 따라 가계의 은퇴 후 소비지출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주 은퇴 시기 별로 월평균 소비지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전승훈(2005)은 1998-2002년 중 은퇴한 가계의 은퇴 전후 소비액수를 비교하여 은퇴 후 소비가 은퇴 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을 보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회복시기에 측정된 자료의 특수성을 그 원인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가구주 은퇴시기의 특수성이 은퇴 전후 소비지출 차이에 반영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4-7> 은퇴시기에 따른 은퇴 전후 총 소비지출 변화 (N=384, 단위:만원)

은퇴시기	N	은퇴 전 해	은퇴 다음 해	△	△%	t값
		평균 (S.D)	평균 (S.D)			
2001-2005년	140	157.1 (109.5)	157.3 (114.1)	0.2	0.1%	-0.031
2006-2010년	111	197.4 (120.8)	172.0 (100.9)	-25.4	-12.9%	3.074**
2011년 이후	133	188.1 (116.3)	163.2 (105.7)	-24.8	-13.2%	3.977***

*p < .05, **p < .01, ***p < .001

<표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퇴시기를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 2011년 이후로 5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은퇴시기에 따라 은퇴 전후 월평균 소비지출 감소여부가 상이하였다. 주식시장의 성장이 완만하던 2000년대 초반에 은퇴한 가계에서 은퇴 전후 소비지출규모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보이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는 등 금융환경의 변동성이 컸던 2000년대 후반 은퇴한 가계들에서는 은퇴 후 평균적으로 약 25.4만원의 지출감소가 발생하였다.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은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은퇴한 가계들에서도 은퇴 후 약 24.8만원의 유의한 지출감소가 관측되었다. 가계 내부적인 특성 외에 가계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은퇴자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은퇴연령에 따라 은퇴 전후 가계 소비지출변화에 상이한 경향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384가구 중 30가구는 가구주가 55세가 되기 전에 조기 은퇴하였고, 가구주가 60-64세 사이에 은퇴한 경우

(143가구)가 다수였다. 55세 이전에 조기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은퇴 연령이 늦을수록 은퇴 전후의 소비지출규모가 작았다.

<표4-8>을 통해 확인해 보면, 대체로 은퇴 후 가계의 소비지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가구주가 60세~64세에 은퇴한 경우만 소비지출의 감소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주가 55세 이전에 조기 은퇴한 경우 다른 은퇴자 가계와 달리 은퇴 후 소비지출액의 표준편차가 은퇴 전에 비해 증가하여, 가구주가 조기 은퇴한 경우에 은퇴 후 생활이 보다 다양하게 전개됨을 유추해볼 수 있다. 가구주가 70세 이후 은퇴한 경우 은퇴 전 평균 소비지출규모가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소비감소율이 가장 컸다. 가구주가 고령이 되도록 은퇴하지 않았던 이유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창출에 있고, 이들 가계의 은퇴 후 생활수준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표 4-8> 가구주 은퇴연령에 따른 은퇴 전후 총 소비지출 변화 (N=384, 단위:만원)

은퇴연령	N	은퇴 전 해	은퇴 다음 해	△	△%	t값
		평균 (S.D)	평균 (S.D)			
55세 미만	30	211.2 (106.4)	194.3 (124.6)	-16.9	-8.0%	0.948
55세~59세	95	230.5 (131.9)	218.2 (125.8)	-12.4	-5.4%	1.180
60세~64세	143	192.8 (113.6)	169.7 (96.4)	-23.1	-12.0%	3.505***
65세~69세	79	120.6 (67.1)	114.5 (63.8)	-6.2	-5.1%	1.240
70세 이상	37	96.9 (73.9)	80.2 (46.6)	-16.8	-17.3%	1.877

*p < .05, **p < .01, ***p < .001

마지막으로 은퇴 이유에 따라 은퇴 전후 소비지출의 변화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생애주기가설의 맥락에서 은퇴소비피율을 설명한 선행연구들은 예상치 못한 충격(건강 악화 및 해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은퇴 등)이 합리적인 가계로 하여금 소비를 평활화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에 은퇴시점과 그 영향을 예상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은퇴 전후 소비지출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정년퇴직으로 인한 은퇴나 직장환경 악화 및 스트레스로 인한 은퇴의 경우 은퇴 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반면, 건강악화로 인한 은

되는 상대적으로 예상이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표 4-9>를 살펴보면, 비교적 예상이 가능하고 은퇴 후 대책마련에 시간이 충분한, 정년퇴직에 의해 은퇴한 가계의 경우 은퇴 후 소비지출이 약 40.1만원 감소하였다. 또한 직장환경 악화 및 스트레스로 인한 은퇴 시에도 약 22.3만원의 유의한 소비감소가 있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은퇴를 선택한 경우 은퇴 전후 소비지출에 변화가 없었다. 한편 예상이 어려운 은퇴요인이라 할 수 있는 건강악화로 은퇴한 150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표4-9> 은퇴 이유에 따른 은퇴 전후 총 소비지출 변화 (N=384, 단위:만원)

	N	은퇴 전 해	은퇴 다음 해	△	△%	t값
		평균 (S.D)	평균 (S.D)			
정년퇴직	97	270.7 (132.6)	230.6 (112.3)	-40.1	-14.8%	3.873***
직장환경 악화 및 스트레스	84	178.8 (106.8)	156.4 (105.6)	-22.3	-12.5%	2.737**
건강 악화	150	128.2 (78.3)	124.3 (84.1)	-3.8	-3.0%	0.788
여유로운 삶을 위해	16	204.4 (78.7)	201.1 (73.2)	-3.2	-1.6%	0.169
기타(집안사정 등)	37	139.4 (84.8)	147.6 (111.1)	8.1	5.8%	-0.619

*p < .05, **p < .01, ***p < .001

생애주기가설의 패러다임에서 은퇴 후 소비지출 감소를 설명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가계가 갑작스럽게 은퇴하게 된 경우 합리적인 가계는 급격히 소비조정을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은퇴 여부와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은퇴 후를 대비하고 소비지출을 꾸준히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은퇴하게 되더라도 소비지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가구주가 2001년~ 2013년 사이에 은퇴한 우리나라 은퇴자가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은퇴 전후로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저생계수준의 가계를 제외한 은퇴자 가계의 은퇴 후 소비지출 감소는 은퇴 후 소득이 소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은퇴를 전후한 가계의 내적, 외적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

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은퇴연령이나 은퇴 이유에 따른 은퇴 전후 총 소비지출 변화를 살펴볼 때,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은퇴로 급격히 소비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은퇴소비패즐의 해석은 우리나라 가계의 상황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하겠다.

3. 은퇴 전후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및 비중 변화

1) 은퇴 전후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

은퇴 전후 소비비목 별 지출규모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0>과 같다. 은퇴하기 전 가계의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순위는 식비, 주거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교육비가 상위 5위를 차지하였으나 은퇴 다음 해에 이 순서는 식비, 주거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보건의료비로 바뀌었다. 교육비가 줄고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증가한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은퇴 전 가계의 주요 소비비목으로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비, 교육비, 주거수도광열비 등이 언급되었고, 은퇴 후 보건의료비의 지출순위가 높아지고 교육비 순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소비비목 구분이 다르긴 하나 대체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

은퇴 후 소비지출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소비비목은 식비, 외식비, 교육비, 차량유지비, 통신비이다. 그 중 감소율이 가장 큰 것은 교육비로 은퇴 전에 비해 39% 감소하여 3.9만원 줄었고, 차량유지비와 외식비, 통신비지출은 은퇴 이전 대비 각각 14.6%(2.4만원), 14.1%(0.9만원), 13.5%(1.5만원) 감소하였다. 식비는 은퇴 전 지출에 비해 2.7만원 줄어 약 7.0% 감소하였다. 한편 은퇴 전에 비해 은퇴 후 지출액이 늘어난 비목은 보건의료비였으나, 약 0.9만원 증가해 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은퇴소비패즐에 관한 해외 연구(Hurd and Rohwedder, 2003; Aguiar and Hurst, 2007b; Hurst, 2008)들은 노동관련 비용(외식비, 교통비, 통신비)의 감소와 여가-소비의 대체에 따른 식비 감소로 인해 은퇴 후 소비

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은퇴를 기점으로 교통비와 통신비, 외식비가 감소하였고, 식비 역시 다소 줄어들었다. 또한 교육비 지출액 감소로 볼 때, 은퇴 전후로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마무리되거나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선행연구들은 은퇴 후 보건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본 분석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건의료비의 경우 가구주 연령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분석은 은퇴 전후 2년만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4-10> 은퇴 전후 소비비목별 지출규모³⁴⁾ 변화 (단위:만원)

	N	은퇴 전 해	은퇴 다음 해	△	△%	t값
		평균 (S.D)	평균 (S.D)			
식비	383	38.6 (22.8)	35.9 (19.8)	-2.7	-7.0%	2.621**
외식비	383	6.4 (10.2)	5.5 (7.6)	-0.9	-14.1%	2.089*
교육비	383	10.0 (27.6)	6.0 (24.0)	-3.9	-39.0%	2.618**
차량유지비	383	16.5 (19.4)	14.0 (18.1)	-2.4	-14.6%	3.216**
주거비	383	18.3 (0.6)	17.8 (0.6)	-0.4	-2.2%	0.618
보건의료비	383	8.4 (14.1)	9.3 (17.2)	0.9	10.7%	-0.866
통신비	384	11.1 (9.0)	9.7 (7.3)	-1.5	-13.5%	3.741***
경조사비	383	8.8 (9.8)	7.8 (11.7)	-0.9	-10.2%	1.447
교양오락비	384	5.0 (7.2)	5.0 (8.6)	-0.0	0.00%	0.117
내구재구입비	383	2.6 (19.2)	1.5 (4.8)	-1.1	-42.3%	1.119

*p < .05, **p < .01, ***p < .001

부가적으로 살펴볼 때, 가계 간 소비지출액의 격차를 의미하는 표준편차는 전반적으로 작아졌으나 보건의료비와 경조사비, 교양오락비의 경우 표준편차가 은퇴 전에 비해 커졌다. 은퇴자 가계 구성원의 건강상태에 편차가 생기면서 보건의료비 지출 수준도 편차가 커지는 것으로 보이며, 은퇴 후 경조사비와 교양오락비 등과 같이 필수재가 아닌 부가적 지출에 대한 소비조정이 활발해짐을 추론해볼 수 있다.

34) 해당 연도의 가구원 수로 균등화하지 않은 원 지출액이다.

2) 은퇴 전후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

총 소비지출에서 각 소비비목의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소비비목이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보여줌으로써 해당 가계의 필요와 욕구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표 4-11>을 보면, 은퇴 이전 해 가계의 소비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25.4%)이며, 주거비(12.9%)와 차량유지비(7.2%), 통신비(6.4%), 보건의료비(6.0%)가 뒤를 이었다. 은퇴 다음 해에도 역시 식비(26.0%), 주거비(13.5%)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다음이 보건의료비(6.7%), 차량유지비(6.6%), 통신비(6.1%)로 이어져 은퇴 전 해에 비해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높아졌다.

은퇴 전에 비해 은퇴 후 지출비중이 유의하게 변화한 비목은 교육비뿐이었다. 은퇴 전후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수치와 순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전반적으로 식비, 주거비 등 필수지출과 은퇴자 가계의 특수적인 필요가 반영된 보건의료비 지출비중의 증가 폭이 교육비를 제외한 다른 소비비목 지출비중의 감소 폭보다 컸다.

<표4-11> 은퇴 전후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 (단위: %)

	N	은퇴 전 해		은퇴 다음 해		△	t값
		평균	(S.D)	평균	(S.D)		
식비 비중	383	25.4	(12.6)	26.0	(12.4)	0.6	-0.817
외식비 비중	383	2.9	(4.1)	2.9	(3.8)	0.0	-0.142
교육비 비중	383	3.4	(8.7)	2.1	(7.2)	-1.4	3.023**
차량유지비 비중	383	7.2	(8.5)	6.6	(8.3)	-0.6	1.683
주거비 비중	383	12.9	(9.2)	13.5	(8.5)	0.6	-1.232
보건의료비 비중	384	6.0	(8.2)	6.7	(9.5)	0.7	-1.231
통신비 비중	384	6.4	(3.9)	6.1	(3.1)	-0.4	1.639
경조사비 비중	383	4.9	(5.1)	4.6	(2.0)	-0.3	1.049
교양오락비 비중	384	2.8	(2.9)	2.8	(2.9)	-0.0	0.143
내구재구입비비중	383	0.9	(3.2)	0.7	(2.0)	-0.2	1.256

*p < .05, **p < .01, ***p < .001

앞서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와 함께 살펴볼 때 교육비와 차량유지비, 통신비는 지출규모와 비중 모두 감소하였다. 가계가 은퇴를 전후로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으며, 노동관련 지출로 볼 수 있는 차량유지비의 감소는 일자리에서 물러난 가계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준다. 그러나 식비, 외식비, 주거비의 경우 지출액이 줄었으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가계의 소비 지출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소비지출양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식비와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 은퇴자 가계의 필수적 욕구에 기반한 소비비목이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제 2 절 은퇴가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18차 가구 및 개인 본조사와 은퇴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는 4, 6, 18차 부가조사에 한 번 이상 응답한 가구주 가계의 자료이다. 본 분석의 주된 목적이 은퇴 여부가 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여부를 묻는 문항에 응답한 가계를 선별하였다.

구축된 패널자료는 불균형패널로 총 1,663 가구의 16,790개 관측치가 분석되었다. 가구별로 최소 1개에서 최대 15개 차수에 응답하였으며³⁵⁾ 15개 차수 중 대표적으로 3차(2000년), 17차(2014년)와 전체 관측치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5)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패널차수는 3-17차 이다. 그 이유는 18차 자료가 담고 있는 2014년의 소득과 소비지출자료가 초기 데이터셋 구축과정에서 17차 자료에 병합되었기 때문이다.

<표4-12>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 (단위: 명, 만원)

		3차(2000년)		17차(2014년)		전체	
		N=1,005		N=1,049		N=16,790	
		n	(%)	n	(%)	n	(%)
가구주 성별	남자	747	(74.3)	815	(77.7)	12,430	(77.7)
	여자	258	(25.7)	234	(22.3)	4,360	(22.3)
가구주 연령(세)		59.2		63.6		63.6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이하	659	(65.6)	581	(55.4)	10,521	(62.7)
	고졸	237	(23.6)	340	(32.4)	4,378	(26.1)
	전문대졸	21	(2.1)	40	(3.8)	459	(2.7)
	대졸	76	(7.6)	71	(6.8)	1,236	(7.4)
	석사이상	12	(1.2)	17	(1.6)	196	(1.3)
혼인 상태	미혼	4	(0.4)	20	(1.9)	185	(1.1)
	기혼(유배우자)	701	(69.8)	730	(69.6)	11,198	(66.7)
	별거	16	(1.6)	17	(1.6)	207	(1.2)
	이혼	37	(3.7)	119	(11.3)	1,156	(6.9)
	사별	247	(24.6)	163	(15.5)	4,044	(24.1)
평균 가구원 수(명)		3.3		2.4		2.7	
거주 형태	자가	755	(75.1)	753	(71.8)	12,372	(73.7)
	전세	164	(16.3)	121	(11.5)	2,243	(13.4)
	월세	59	(5.9)	137	(13.1)	1,495	(8.9)
	기타	27	(2.7)	38	(3.6)	680	(4.1)
은퇴 여부	비은퇴	731	(72.7)	702	(66.9)	11,256	(67.0)
	은퇴	274	(27.3)	347	(33.1)	5,534	(33.0)
		평균(sd)	중앙값	평균(sd)	중앙값	평균(sd)	중앙값
월평균 가계소득		244.05 (285.6)	174.0	300.82 (306.4)	223.5	276.60 (348.1)	198.3
금융자산		1454.08 (4321.9)	200	2963.19 (7218.2)	650	2153.03 (8200.7)	250
부채규모		1817.64 (4551.3)	0	3397.99 (9947.4)	0	2566.11 (8516.8)	0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월평균 총 소비지출 ³⁶⁾		157.9	(127.4)	175.5	(108.1)	171.2	(130.9)
식비		46.3	(28.8)	35.1	(17.4)	35.8	(22.0)
외식비		4.1	(8.9)	7.8	(9.1)	5.5	(9.0)
교육비		23.7	(69.5)	8.5	(27.9)	13.6	(40.7)
차량유지비		14.4	(22.5)	15.2	(17.1)	14.2	(20.0)
주거비		16.0	(12.6)	17.9	(11.7)	17.6	(12.3)
보건의료비		8.4	(17.0)	7.4	(12.0)	8.7	(22.2)
통신비		11.6	(11.0)	10.1	(6.9)	10.4	(9.0)
경조사비		10.3	(12.4)	7.9	(13.6)	8.1	(13.9)
교양오락비		3.7	(9.2)	6.8	(11.5)	4.9	(11.2)
내구재구입비		1.3	(4.9)	1.8	(5.6)	1.7	(9.2)

2. 은퇴가 가계 총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구주의 은퇴여부 더미변수를 포함한 가계지출함수를 구성한 후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GLS, FE(고정효과)모형, RE(확률효과)모형을 차례로 분석한 뒤 보다 적합한 실증모형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패널자료의 특성상 오차항 $e_{i,t}$ 에 자기상관이 존재³⁷⁾하고, 오차항의 동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음³⁸⁾에 따라 패널GLS 및 FE, RE모형 추정과정에서 오차항의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처리한 분석을 실시하였다.³⁹⁾

분석 실시 후 오차항에 대한 검증 결과 패널 개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OLS보다 패널개체의 특성 u_i 를 고려한 FE모형이나 RE모형의 활용이 보다 적합하였다. 또한 FE와 RE모형의 비교를 위해 Hausman검증을 실시한 결과, 오차항 u_i 과 설명변수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정과정에서 u_i 가 제거됨으로써 $cov(x_{i,t}, u_i) \neq 0$ 일 때에도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는 FE모형의 활용이 적합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패널개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FE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FE모형에서 계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개체 내 설명변수 값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만을 설명하며, 패널GLS와 RE모형의 추정 계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개체 간, 개체 측정시점 간 설명변수 값의 변화(차이)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최종 선택한 FE모형에서의 $R^2(\text{within})$ 는 0.263로, 측정시점에 따른 가계 내 특성의 변동이 종속변수인 총 소비지출을 설명하는 정도가 26.3% 임을 의미한다.⁴⁰⁾ 다중회귀에서 활용하는 표준화된 효과크

36) 총 소비지출 및 소비비목별 지출액은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하였다.

37) Wooldridge 검증을 실시함

38) 모든 i 에 대해 $var(u_i) = \sigma_u^2$ 가 기각됨.

39) `vce(cluster)` 옵션을 활용함. Hoechle(2007)의. p.4 참조

40) RE모형의 설명력이 73.86%인데 반해 FE모형의 설명력이 작은 이유는 RE모형의 설명력이 개체 간 차이와 개체 내 변동을 모두 반영하는데 반해 FE모형

기(standardized effect size)인 f^2 값으로 환산했을 때, $0.358(f^2 = R^2/(1-R^2))$ 으로 용인할 만큼 큰 효과크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⁴¹⁾

<표4-13> 가계 총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 ln 총 소비지출	패널GLS ⁴²⁾		RE		F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은퇴여부	0.007	0.007	-0.024	0.014	-0.039*	0.020	
가구구성별	-0.081***	0.012	-0.132***	0.030			
가구주연령	-0.012**	0.004	-0.002	0.007	0.015	0.009	
가구주 연령 제공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가구원수	0.125***	0.003	0.133***	0.006	0.144***	0.007	
가구주	고졸	0.159***	0.007	0.199***	0.016	0.136	0.108
교육수준 (기준: 중졸이하)	전문대졸	0.294***	0.017	0.353***	0.033	0.149	0.118
	대졸	0.346***	0.012	0.406***	0.031	0.295*	0.121
거주형태 (기준: 자가)	석사이상	0.483***	0.022	0.520***	0.050	0.123	0.151
	전세	-0.042***	0.008	-0.013	0.013	0.010	0.016
	월세	-0.043***	0.009	-0.025	0.016	-0.038	0.022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타	-0.085***	0.013	-0.066**	0.023	-0.029	0.025
	기혼 유배우	0.195***	0.026	0.160**	0.065	-0.321	0.175
	별거	0.100**	0.032	0.109	0.074	-0.352	0.180
이혼 사별	이혼	0.067*	0.026	0.063	0.068	-0.440*	0.180
	사별	0.086**	0.027	0.070	0.068	-0.336	0.181
ln 가계소득	0.314***	0.004	0.268***	0.009	0.209***	0.009	
ln 금융자산금액	0.008***	0.001	0.008***	0.001	0.003**	0.001	
ln 부채금액	0.007***	0.001	0.007***	0.001	0.004***	0.001	
상수	3.533***	0.122	3.311***	0.240	3.147***	0.334	
R-square	-		0.739		0.263		
H ₀ : 모든 $u_i=0$ 에 대한 F값 (Pooled OLS-FE)					6.76***		
H ₀ : $var(u_i)=0$ 에 대한 χ^2 검증 (Pooled OLS-RE)					5924.77***		
Hausman검증 (H ₀ : $cov(x_{it}, u_i) = 0$)					2716.99***		

*p < .05, **p < .01, ***p < .001

은 개체 내 변동에 의한 설명력만 포착하기 때문이다.

41) 남상건(2015)에 따르면 효과크기란 비교하려는 집단들 사이의 차이 혹은 관계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준화된 지표인데, 다중회귀분석에서는 효과크기 f^2 을 활용한다. 이 값이 0.02이면 small, 0.15는 medium, 0.35이면 large의 효과크기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표 4-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더라도 가구주가 은퇴하게 되면, 은퇴 전에 비해 소비지출이 3.9% 감소하였다. RE 모형에서는 가구주의 은퇴 여부가 가계의 총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⁴³⁾ 이는 은퇴자가계와 비은퇴자 가계의 소비지출 차이보다 가구주가 은퇴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계 내의 소비지출 변화가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구주의 은퇴 변수는 다른 변수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은퇴에 따른 가계의 심리적 변화나 여가시간의 확대 및 라이프스타일 전환에 따른 소비니즈 변화 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은퇴 후 가계의 소비지출 감소를 야기한다. 한편 가구주의 은퇴 여부 외에 가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가구원 수, 가구주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계소득 및 금융자산, 부채액규모가 있다. 가구 내에서 가구원이 한 명이 감소하면 가계 소비지출이 약 14.4% 감소하며, 조사기간 동안 가구주 학력이 변동된 가계⁴⁴⁾ 중 가구주 최종학력이 대졸이 된 경우 중졸이하 가계 대비 소비지출이 29.5% 많았다. 이혼한 가계의 가계 소비지출은 미혼가계 대비 44% 적었다.⁴⁵⁾ 이들 요인과 비교했을 때 은퇴 여부가 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편이다.

해외 선행연구들의 경우 활용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은퇴 후 가계의 총 소비지출이 5.7%(Hurd and Rohwedder, 2008), 7%(비자발적 은퇴시; Chiang, 2012), 16%(Laitner and Silverman, 2005)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분석된 바 있다.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국내 연구들은 은퇴가 가계의 총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은퇴 후 소비지출이 미미하게나마 증가(전승훈, 2005)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그러나 본

42) 추정과정에서 관측치 43개가 탈락됨에 따라 관측치의 수는 16,747이며 개체 수는 1,620임

43) 유의수준 0.087로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44) 21가구의 가구주 최종학력이 변동되었으며 이중 대졸로 변동된 경우는 5가구이다.

45) FE(고정효과) 추정의 경우 개체(가구) 내에서 변수 값이 변하지 않는 경우(혼인상태 및 최종학력의 변화가 없는 경우) 계수 추정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해당 계수값은 일부 변화가 있는 가구에 대한 추정임을 유의해야한다.

연구의 분석으로는 은퇴로 인해 가계의 소비지출이 약 3.9% 감소하여 해외 연구에서 보고된 수준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우리나라 가계 역시 은퇴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연구들의 결과와 다른 것은 은퇴의 정의⁴⁶⁾ 및 연구에 활용된 패널자료의 조사시기⁴⁷⁾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은퇴가 가계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비중에 미치는 영향

1)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가구주의 은퇴는 일부 소비비목의 지출규모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왔다. 소비비목별로 앞서 총 소비지출에 대한 지출함수와 동일한 모형을 구성하고 앞선 과정의 분석을 거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내구재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비비목에 있어 RE모형보다 FE모형이 적합하였고, 오차항의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FE모형을 선택함으로써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가구주의 성별 변수는 회귀식에서 탈락되었으며, 각 계수는 개체 내 설명변수의 시간에 따른 단위변화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표4-14>는 은퇴여부를 포함해 가계의 소비비목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포함한 가계지출함수의 추정결과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구주가 은퇴하면 가계의 통신비는 9.3%, 교양오락비는 9.2% 감소한다. 앞서 가계의 은퇴 전후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에 대한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감소했던 소비비목은 식비, 외식비, 교육비, 차량유지비, 통

46) 윤재호·김현정(2010) 역시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였으나 주당 근로시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은퇴를 정의하여, 직접 응답에 따라 은퇴를 구분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47) 안중범·전승훈(2003)은 한국노동패널 1-4차 자료를, 전승훈(2005)은 1-6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와 해당 연구들에 포함된 은퇴자 가계의 은퇴 연도에 차이가 있으며, 안중범·전승훈(2003)이 언급하였듯 조사시기의 특수성(IMF이후 경제 회복기)이 연구결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신비였는데, 은퇴 외에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은퇴 후 지출이 감소한 비목은 통신비가 유일하다. 식비, 외식비, 교육비, 차량유지비의 경우 가구주의 은퇴 자체보다는 은퇴와 더불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소득 및 가구원 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은퇴와 더불어 노동 활동이 줄면서 노동관련 비용 중 하나인 통신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가시간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 교양오락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은퇴 후의 여가활동이 경제활동기에 누리던 고비용의 여가에서 저비용의 정적인 여가로 바뀌기 때문일 수 있다.

보건의료비와 경조사비를 제외한 소비비목들은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출액이 증가하고, 모든 소비비목은 소득의 증가와 정적인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가계소득증가에 따른 지출변화율은 비목별로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탄력성이 높은 비목은 내구재구입비(0.27%)와 외식비(0.19%)이며 교육비(0.07%)가 가장 소득탄력성이 낮았다. 한편 외식비와 차량유지비, 주거비, 경조사비는 연령 증가에 따라 역U자형을 보였으며, 보건의료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U자형을 보였다. 거주형태가 월세로 전환되면 보건의료비, 통신비, 경조사비, 교양오락비가 유의하게 줄고, 주거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월세 부담의 증가가 필수지출이 아닌 선택재적 성격을 가진 지출의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4-14>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식비 / FE		외식비 / FE		교육비/ FE		차량유지비/ FE		주거비/ F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은퇴여부	0.011	0.023	-0.058	0.042	-0.039	0.190	-0.080	0.041	0.010	0.026	
가구주연령	-0.015	0.011	0.058*	0.024	-0.023	0.050	0.037	0.024	0.029*	0.012	
가구주 연령 제공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가구원수	0.102***	0.008	0.070***	0.016	0.082*	0.041	0.049***	0.012	0.037***	0.009	
가구주 교육수준	0.025	0.036	0.214**	0.074	0.063	0.098	0.031	0.049	0.014	0.033	
거주형태 (기준:자가)	전세	0.020	0.018	-0.041	0.048	0.099	0.071	-0.027	0.036	0.015	0.024
	월세	-0.036	0.026	-0.064	0.060	0.091	0.108	0.014	0.043	0.296***	0.038
	기타	-0.009	0.030	-0.144	0.079	0.052	0.186	-0.072	0.064	0.021	0.037
혼인상태 (기준:미혼)	기혼 유배우	0.070	0.083	-0.758***	0.132	-0.025	0.118	-0.337***	0.095	-0.426***	0.122
	별거	-0.086	0.097	-0.613**	0.185	0.137	0.220	-0.436**	0.147	-0.366**	0.136
	이혼	-0.170	0.094	-0.800***	0.187	0.210	0.212	-0.378**	0.130	-0.428**	0.141
사별	-0.087	0.093	-0.546**	0.181	0.410*	0.204	-0.284	0.145	-0.428**	0.130	
ln가계소득	0.130***	0.008	0.186***	0.019	0.068*	0.033	0.142***	0.015	0.103***	0.008	
ln금융자산금액	0.002	0.001	0.006*	0.003	-0.001	0.005	0.003	0.002	0.001	0.001	
ln부채금액	0.001	0.001	0.000	0.003	-0.002	0.005	0.005*	0.002	0.003	0.001	
상수	3.333***	0.355	-0.521	0.734	3.939**	1.388	1.514*	0.719	1.394***	0.391	
R-square	0.1244		0.0493		0.0129		0.0525		0.0387		
F ^(2,48)	0.14		0.05		0.01		0.06		0.04		

*p < .05, **p < .01, ***p < .001

48) 남상건(2015)에 따르면 다중회귀분석에서의 효과크기²는 0.02이면 small, 0.15는 medium, 0.35이면 large의 효과크기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식비, 통신비, 경조사비, 내구재구입비에 대한 분석이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가 있으며, 외식비와 교통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에 대한 분석은 낮은 정도의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표4-14>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계속

	보건의료비/ FE		통신비/ FE		경조사비/ FE		교양오락비/ FE		내구재구입비/ R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은퇴여부	0.081	0.052	-0.093**	0.029	-0.053	0.037	-0.092*	0.045	0.119*	0.049	
가구주성별									0.090	0.075	
가구주연령	-0.086***	0.024	-0.010	0.013	0.142***	0.019	0.149***	0.020	-0.025	0.026	
가구주 연령 제공	0.001**	0.000	-0.000	0.000	-0.001***	0.000	-0.001***	0.000	0.000	0.000	
가구원수	0.012	0.015	0.217***	0.010	0.005	0.012	0.062***	0.014	0.089***	0.018	
가구주 교육수준	0.016	0.154	0.087	0.057	-0.034	0.081	0.251**	0.088	0.057*	0.023	
거주형태 (기준:자가)	전세	-0.086*	0.042	0.004	0.023	-0.002	0.035	-0.034	0.038	0.040	0.057
	월세	-0.205***	0.048	-0.078*	0.031	-0.101*	0.045	-0.146**	0.043	-0.087	0.062
	기타	-0.062	0.063	-0.053	0.035	-0.030	0.064	-0.038	0.048	-0.269**	0.090
혼인상태 (기준:미혼)	기혼 유배우	-0.519***	0.101	-0.490	0.487	-0.540	0.502	-0.105	0.182	0.248	0.163
	별거	-0.766***	0.159	-0.540	0.477	-0.563	0.515	0.064	0.200	0.507*	0.204
	이혼	-0.728***	0.166	-0.664	0.487	-0.632	0.511	-0.265	0.203	-0.009	0.167
	사별	-1.238***	0.140	-0.386	0.488	-0.473	0.507	-0.156	0.194	0.142	0.167
ln가계소득	0.111***	0.014	0.162***	0.010	0.165***	0.013	0.130***	0.013	0.266***	0.027	
ln금융자산금액	0.006*	0.003	0.005**	0.001	0.007**	0.002	0.005	0.002	0.014**	0.005	
ln부채금액	-0.000	0.003	0.006***	0.002	0.001	0.002	-0.002	0.003	-0.002	0.004	
상수	4.500***	0.790	1.647*	0.636	-1.362	0.766	-5.705***	0.683	0.501	0.852	
R-square	0.0197		0.2036		0.1254		0.0422		0.1896		
f ²	0.02		0.26		0.14		0.04		0.23		

*p < .05, **p < .01, ***p < .001

2)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표 4-15>를 통해 살펴보면, 가구주의 은퇴는 통신비를 제외한 소비비목의 지출비중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에 비해 지출비중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각 소비비목의 지출비중이 총 소비지출규모의 변화와 다른 소비비목 지출액 증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가구주가 은퇴로 인해 유의한 비중 변화가 있는 비목은 통신비가 유일하다. 은퇴 후 가계의 통신비 지출비중은 약 0.78%p 감소하나 감소폭이 크지는 않다. 소비비목별 지출비중의 변화는 은퇴 여부보다는 다른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인 것인 가구주 연령이다. 외식비와 차량유지비, 경조사비, 교양오락비 비중은 가구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역U자의 형태를 띠었고, 보건의료비 비중은 가구주 연령에 따라 U자 형태를 보였다. 주거비는 가구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또한 가계의 혼인상태 변화는 외식비, 교육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경조사비, 내구재구입비 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거주형태가 월세인 경우 주거비 지출비중이 높아지고 외식비, 차량유지비, 보건의료비, 통신비, 경조사비,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비 비중이 감소한다. 앞서 가계 월소득은 모든 소비비목의 지출액을 증가시켰으나, 소비비목별 지출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인다.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식비와 교육비, 주거비의 지출비중은 낮아지고, 경조사비,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비의 비중이 증가한다. 가계 소득이 증가할수록 식비, 주거비 지출 비중이 감소한다는 앵겔법칙 및 슈바베법칙이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비중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은 은퇴로 인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은퇴가 중요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소비지출양식 자체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급격히 변동되기보다 서서히 변화하는 생활양식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표4-15> 소비비목별 지출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식비/ FE		외식비/ FE		교육비/ FE		차량유지비/ FE		주거비/ F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은퇴여부	0.959	0.621	-0.407	0.237	1.232	0.631	-0.923	0.537	-0.201	0.427
가구주연령	0.494	0.304	0.590***	0.098	-4.066***	0.316	1.628***	0.210	0.617**	0.217
가구주 연령 제공	-0.005*	0.002	-0.003***	0.001	0.028***	0.002	-0.012***	0.002	-0.003	0.002
가구원수	-0.841***	0.197	-0.141	0.074	3.060***	0.257	0.582**	0.177	-1.439***	0.154
가구주 교육수준	-0.987	0.796	0.239	0.342	1.013	1.443	1.203	1.405	-0.711	0.831
거주형태 (기준:자가)	전세	0.563	0.569	-0.371	0.214	0.150	0.580	0.125	0.400	0.647
	월세	-1.081	0.755	-0.727**	0.241	0.136	0.676	-1.576**	0.486	7.482***
	기타	1.199	0.905	-0.178	0.256	-0.429	0.835	-0.169	0.604	0.270
혼인상태 (기준:미혼)	기혼 유배우	2.110	3.262	-5.031***	1.436	13.480***	1.266	-0.807	2.334	-5.419***
	별거	0.819	3.826	-3.660*	1.687	11.906***	2.278	1.175	2.696	-3.015*
	이혼	-2.269	3.609	-4.613**	1.654	16.579***	2.232	0.916	2.703	-1.944
사별	0.391	3.592	-2.530	1.579	15.712***	1.409	1.476	2.519	-3.287**	
ln가계소득	-1.271***	0.186	0.626***	0.068	-0.608***	0.147	1.321***	0.145	-1.144***	0.153
ln금융자산금액	-0.056*	0.033	0.047***	0.013	-0.121***	0.031	0.102***	0.026	-0.037	0.023
ln부채금액	-0.091**	0.034	-0.001	0.015	0.067	0.037	0.035	0.026	0.005	0.024
상수	32.489**	9.692	-18.880***	3.435	127.812***	10.787	-55.957***	7.548	6.678	6.595
R-square	0.0131		0.0407		0.1424		0.0290		0.0797	
$f^{(2,49)}$	0.01		0.04		0.17		0.03		0.09	

*p < .05, **p < .01, ***p < .001

49) 효과크기 측면에서 교육비 비중의 경우 설명변수에 의한 설명력이 중간 수준이었으나 나머지 비목별 비중의 경우 효과크기가 낮은 수준이었다.

<표4-15> 소비비목별 지출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계속

	보건의료비/ FE		통신비/ FE		경조사비/ FE		교양오락비/ FE		내구재구입비/ R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은퇴여부	0.623	0.532	-0.779**	0.267	-0.354	0.306	-0.142	0.211	-0.004	0.082	
가구주성별									0.256*	0.101	
가구주연령	-1.050***	0.270	-0.004	0.108	1.264***	0.128	0.610***	0.089	0.001	0.039	
가구주 연령 제공	0.010***	0.002	-0.000	0.001	-0.012***	0.001	-0.003***	0.001	-0.000	0.000	
가구원수	-0.880***	0.166	0.719***	0.077	-0.789***	0.097	-0.164**	0.060	-0.111**	0.036	
가구주 교육수준	-0.657	0.479	0.188	0.359	-1.223	0.964	0.443	0.563	-0.041	0.041	
거주형태 (기준:자가)	전세	-0.853*	0.375	0.113	0.215	0.016	0.231	-0.302	0.167	-0.120	0.087
	월세	-2.164***	0.525	-0.628*	0.287	-0.533*	0.268	-0.592**	0.181	-0.239**	0.090
	기타	-0.308	0.783	-0.062	0.325	0.047	0.388	-0.097	0.220	-0.383***	0.099
혼인상태 (기준:미혼)	기혼 유배우	-0.654	0.538	-2.800	2.126	-1.453	1.231	0.162	0.313	0.547**	0.169
	별거	-2.885***	1.046	-1.853	2.246	-2.776*	1.369	0.422	0.624	0.489	0.346
	이혼	-2.804***	1.026	-3.288	2.191	-2.416	1.368	-0.201	0.576	0.221	0.168
	사별	-8.856***	1.281	-1.609	2.161	-1.464	1.374	0.055	0.400	0.203	0.170
ln가계소득	0.054	0.162	-0.029	0.081	0.562***	0.091	0.139*	0.062	0.403***	0.046	
ln금융자산금액	0.007	0.027	0.010	0.013	0.038*	0.017	-0.001	0.012	0.011	0.010	
ln부채금액	-0.016	0.027	0.017	0.013	0.005	0.017	-0.006	0.012	-0.014	0.008	
상수	41.637***	7.894	10.931**	4.042	-22.554***	4.395	-23.083***	2.868	-1.151	1.302	
R-square	0.0244		0.0252		0.0453		0.0506		0.0168		
f ²	0.03		0.03		0.05		0.05		0.02		

*p < .05, **p < .01, ***p < .001

제 3 절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른 가계 소비지출 변화

1.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

한국노동패널 4차, 6차, 18차 부가조사를 통해 은퇴했다고 응답한 가구주 가계의 6-17차 본조사 응답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본 자료는 각 가계의 2003년~2014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⁵⁰⁾ 또한 가계가 은퇴생활을 하면서 겪는 이벤트 등의 변화와 그 영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자 매년 패널자료에 연속하여 응답한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가계마다 패널응답 지속기간이 상이하다보니 시간갭이 없는 불균형패널이 구축되었다. 연구에서 다루는 은퇴기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은퇴 당시 가구주 연령이 50세 이상인 가구만을 포함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표본은 526가구의 3,541개(n=526, T=12) 관측치이며 개별 가구는 최소 1개 차수에서 최대 12개차수(6-17차)를 응답하고 평균적으로 6.7차수에 응답하였다. 분석한 패널자료의 특성은 다음 <표4-16>과 같다.

<표4-16>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

		빈도 (%)				빈도 (%)		
가 계 특 성	가구주 성별	남자	2,862 (80.8)	거주 형태	자가	2,715 (76.7)		
		여자	679 (19.2)		전세	437 (12.3)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이하	1,963 (55.4)		혼인 상태	월세	253 (7.1)	
		고졸	882 (24.9)			기타	136 (3.8)	
		전문대졸	155 (4.4)	미혼 ⁵¹⁾		0 (0.0)		
		대졸	486 (13.7)	기혼(유배우자)		2,501 (70.6)		
		석사이상	55 (1.6)	별거		33 (0.9)		
					이혼	230 (6.5)		
					사별	777 (21.9)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가구주 연령(세)	68.2 (6.6)	51	93				
	평균 가구원수(명)	2.3 (1.1)	1	8				

50) 18차 자료는 2014년의 소비지출 및 소득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데이터 조정을 통해 18차 자료의 소비지출 및 소득데이터를 17차 자료에 병합하였다.

		N	평균	(S.D)	중앙값
가 계 경 제 특 성	가계 월 소비지출 ⁵²⁾ (만원)	3,541	158.8	(107.1)	138.4
	식비	3,540	34.3	(20.0)	31.0
	외식비	3,540	5.9	(10.6)	2.1
	교육비	3,541	5.0	(22.7)	0.0
	차량유지비	3,541	12.3	(17.2)	0.0
	주거비	3,541	18.3	(12.9)	16.2
	보건의료비	3,541	10.7	(18.8)	5.2
	통신비	3,540	8.4	(7.4)	6.3
	경조사비	3,541	8.1	(11.3)	5.1
	교양오락비	3,541	6.0	(15.8)	2.3
	내구재구입비	3,541	1.6	(9.3)	0.0
	가계 월 소득	3,541	247.3	(344.8)	183.3
	금융자산	2,142	3,346.9	(11,433.8)	450.0
	주택관련자산	3,358	18,961.2	(38,497.7)	10,100.0
부채	1,365	3,397.3	(12,997.4)	0	
심 리 적 요 인			N	평균	(S.D)
	주관적 건강상태 ⁵³⁾		3,541	3.0	(0.98)
			N	빈도	(%)
	개인 연금 ⁵⁴⁾	미보유	1,440	1,306	(94.8)
		보유		75	(5.2)
	비동거자녀 경제지원 ⁵⁵⁾	미지원	2,603	1,906	(73.2)
		지원		697	(26.8)
	따로 사는 자녀와 왕래	자주 왕래함	2,603	1,749	(67.2)
		가끔왕래함		735	(28.2)
		거의 왕래하지 않음		119	(4.6)
이 벤 트 요 인	이사여부	이사 하지 않음	3,541	3,327	(94.0)
		이사함		214	(6.0)
	거주형태 변동	변동없음	3,541	3,310	(93.5)
		자가에서 전, 월세 기타		72	(2.0)
		전, 월세, 기타에서 자가보유		76	(2.2)
		기타		83	(2.3)
	혼인상태 변동 ⁵⁶⁾	변동없음	3,541	3,508	(99.2)
		유배우자 → 무배우자(별거 및 이혼)		4	(0.1)
		유배우자 → 무배우자(사별)		23	(0.7)
		무배우자(별거, 이혼, 사별) → 배우자		3	(0.1)
가구주 소득활동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음	3,541	2,886	(81.5)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음		655	(18.5)	
기 타			평균	(S.D)	
	은퇴경과기간(년)		3,530	8.29	(5.6)
	평균은퇴연령(세)		3,530	59.90	(5.3)

51) 자녀관련 변수가 모형에 포함되면서 분석과정에서 미혼가계가 제외되었다.

2. 은퇴기 시간 경과에 따른 총 소비지출의 변화와 영향요인

본 절에서는 은퇴기 시간 경과에 따른 총 소비지출의 변화와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은퇴시점 이후 경과년수에 따라 가계의 총 소비지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는데 은퇴 후 경과년수를 기준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을 연차별로 비교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비교방식은 직관적으로 은퇴자 가계의 평균적인 소비지출의 변화를 보여주지만, 각 가계의 은퇴 시점 및 자료 측정시점의 영향을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후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 측정시점의 특성을 통제할 수 있고, 각 가계 특성에 따른 은퇴기 소비지출변화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중단적 다층모형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은퇴 후 시간경과에 따른 총 소비지출 변화

은퇴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계의 평균 소비지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가계가 응답한 은퇴연도를 기준으로 은퇴 후 1년에서 17년의 지출액을 추출하였다. 526가구의 평균 은퇴 경과기간은 8.29년이었으며, 이들의 은퇴연도는 1979년에서 2013년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가계(일찍 은퇴한 가계)의 수가 많지 않아 은퇴 후 18년 이후의 소비지출이 파악되는 경우는 50가구 이하였다. 이에 은퇴 후 1년부터 17년까지로 분석 기간을 제한하고⁵⁷⁾, 각 가계의 은퇴 경과 연차 별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평균값을 산출해 도식화하였다(<그림4-1> 참조).

은퇴 후 1년 시점 가계의 평균 월소비지출액은 171.7만원이며, 다소 등

52) 월평균 가계지출 및 가계소득은 해당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하였다.

53) 주관적 건강상태는 동년배 대비 건강상태가 매우좋은은 1, 매우좋지 않음을 5로 측정되었다.

54) 패널조사 회차에 따라 결측이 다수 존재하였다.

55) 자녀에 대한 지원은 9차 이후 자료에서 조사된 항목이다.

56) 이전 조사 회차와 비교해 변동된 혼인상태를 의미한다.

57) 표본 수가 작아지는 경우 일부 사례에 의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전체 가구의 10% 이상의 표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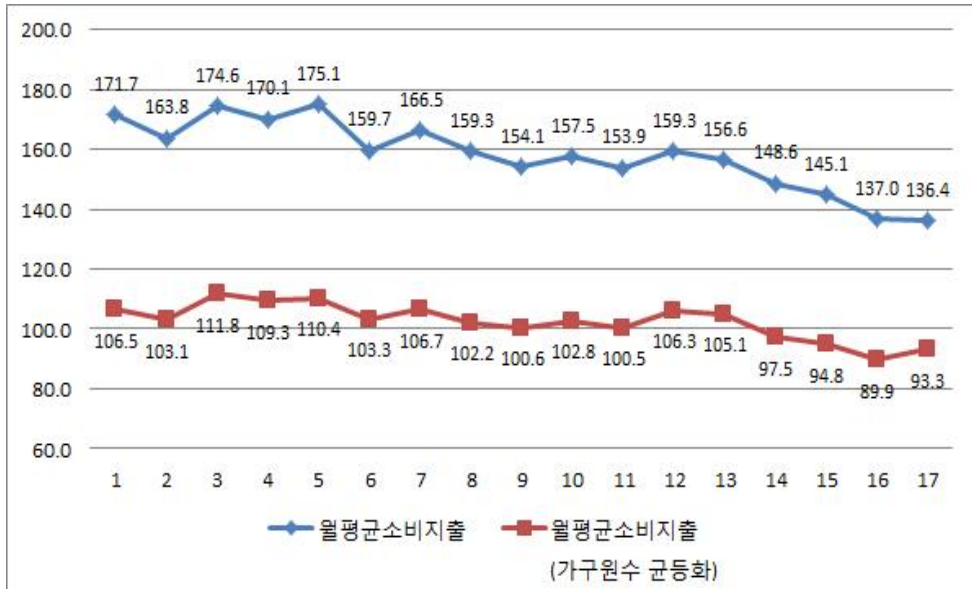
락을 보이다가 은퇴 후 12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하락세를 보인다. 가구 원수로 균등화한 소비지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가구원 수로 균등화하지 않은 소비지출액에 비해 등락의 폭이 다소 줄어들어 변화율이 비교적 완만했으나 전체적인 변화의 형태는 유사했다.

본 분석에서 각 연차별 소비지출액은 측정된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된 값이기에 측정 연도에 의한 차이는 통제되지만, 평균을 산출하는 가구 수와 가구 구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일가계의 은퇴 후 소비지출 변화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은퇴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계의 소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17> 은퇴 후 시간경과에 따른 총 소비지출의 변화 (단위:만원)

	N	월평균 총 소비지출액		월평균 총 소비지출액 (가구원수 균등화 후)	
		평균	(S.D)	평균	(S.D)
은퇴 후 1년	273	171.7	(102.0)	106.5	(52.0)
은퇴 후 2년	256	163.8	(95.8)	103.1	(52.7)
은퇴 후 3년	255	174.6	(112.1)	111.8	(63.8)
은퇴 후 4년	258	170.1	(115.6)	109.3	(67.7)
은퇴 후 5년	245	175.1	(125.6)	110.4	(66.9)
은퇴 후 6년	245	159.7	(107.2)	103.3	(59.9)
은퇴 후 7년	246	166.5	(111.5)	106.7	(62.2)
은퇴 후 8년	237	159.3	(97.3)	102.2	(52.8)
은퇴 후 9년	229	154.1	(95.8)	100.6	(55.4)
은퇴 후 10년	212	157.5	(104.7)	102.8	(61.7)
은퇴 후 11년	182	153.9	(118.3)	100.5	(71.8)
은퇴 후 12년	167	159.3	(120.2)	106.3	(74.1)
은퇴 후 13년	145	156.6	(101.8)	105.1	(61.9)
은퇴 후 14년	130	148.6	(98.4)	97.5	(53.5)
은퇴 후 15년	91	145.1	(92.6)	94.8	(47.7)
은퇴 후 16년	74	137.0	(106.2)	89.9	(56.5)
은퇴 후 17년	57	136.4	(112.1)	93.3	(64.6)

※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해당 값이 측정된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된 값임.



<그림 4-1> 은퇴 후 시간경과에 따른 총 소비지출 변화

2)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변화 궤적과 영향요인

각 가계의 은퇴 후 월평균 소비지출의 변화는 초기치와 변화율 측면에서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종단적 다층모형은 각 가구 별로 회귀직선의 상수항과 기울기가 다르다고 가정하며 상수항과 기울기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이다. 먼저 비조건부 성장모형의 추정을 통해 은퇴생활기 시간 변화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를 추정하였다.

확률계수 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으로 비조건부 성장모형을 추정⁵⁸⁾한 결과, ln월평균 소비지출의 초기치⁵⁹⁾는 $4.960(e^{4.960}=142.63\text{만원})$ 이

58) 확률절편 모형과 확률계수 모형으로 각각 비조건부성장 모형을 추정한 후 두 모형에 대한 우도비 검정 결과 $var(u_{2j}) = cov(u_{1j}, u_{2j}) = 0$ 귀무가설이 기각됨에 따라 상수항과 기울기 모두 확률분포를 가지는 확률계수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df(2), $\chi^2=585.82^{***}$)

59) 시간변수값이 0인 시점 값을 의미하므로 유의미한 값을 확인하기 위해 포함된 첫 패널조사 차수가 6차조사(2003년)이므로 시간변수를 wave-6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해당 값은 6차조사(2003년) 시점에 추정된 월소비지출이다.

며 매년 은퇴자 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약 1.5%씩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⁰⁾ 또한 초기치와 기울기는 음의 상관관계($cov(u_{1j}, u_{2j}) = -0.024$)를 가져, 소비지출의 초기 추정치가 높을수록 시간에 따른 가계 소비지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기울기가 가파르다) 비조건부 성장모형의 추정결과 ICC⁶¹⁾값은 0.863으로, 가계의 소비지출 변동의 86.3%가량이 가구(개체)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의미한다.

< 표4-18 > 은퇴자 총 소비지출 변화 궤적(비조건부 성장모형, N=3,541)

		coefficient	s.e
고정효과	ln(총 소비지출) 절편	4.960	0.039
	시간에 따른 ln(총 소비지출) 변화율	-0.015	0.004
		분산	s.e
무선효과	u_{1j} (절편의 오차)	0.502	0.043
	u_{2j} (변화율의 오차)	0.004	0.000
	e_{ij} (잔차)	0.080	0.002
$cov(u_{1j}, u_{2j})$		-0.024	0.003
ICC(Intra-class correlation)		.863	
Log Likelihood		-1642.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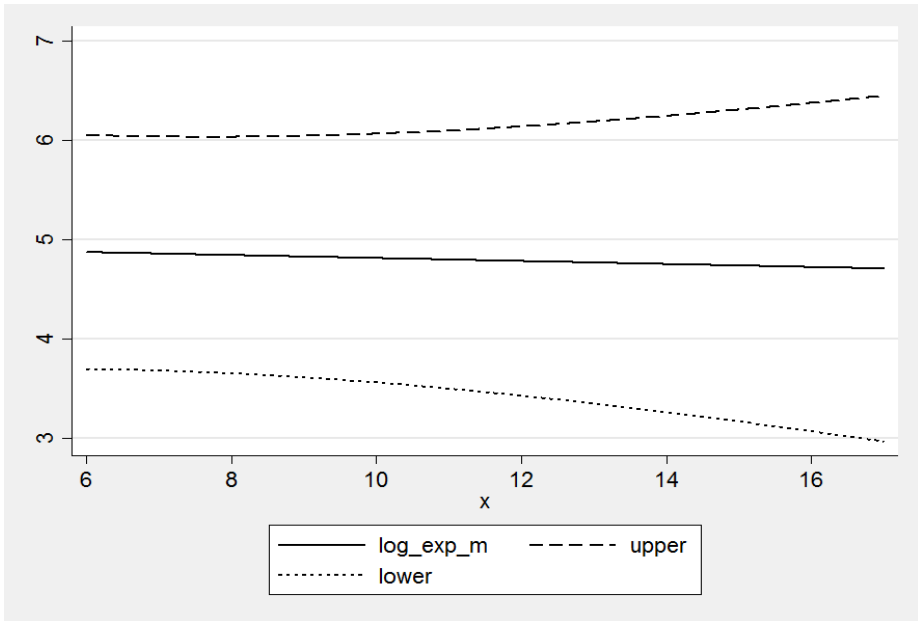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비조건부 성장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라 가계 총 소비지출의 변화궤적을 도식화한 <그림 4-2>는 시간경과에 따른 가계 총 소비지출 변화 직선의 평균과 95%⁶²⁾ 범위를 보여준다. 각 가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총 소비지출 변화 직선은 upper선과 lower선 사이에 직선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은퇴자 가계의 총 소비지출은 감소하나 가계 간 소비지출의 편차는 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초기 소비지출수준이 높을수록 시간경과에 따른 소비지출 감소폭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60) 비조건부 성장모형에서 궤적유형을 탐색하기 위해 시간변수의 제곱항을 넣어 비선형적인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61) 전체 오차항의 분산 중 개체 간 분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62) 확률계수모형에서 변화직선은 확률적 분포를 갖는데, 변화직선이 평균직선에서 2*표준편차의 분포 안에 존재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그림4-2> 시간경과에 따른 가계의 총 소비지출 변화직선

은퇴생활기 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설명변수를 포함한 조건부 성장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1은 통제변수 차원에서 가계특성 변수와 가계경제특성 변수를 포함한 기본모형이다. 가구원 수를 제외한 가구주 연령, 성별, 교육수준, 초기 거주형태 및 혼인상태 변수는 은퇴기 가계의 총 소비지출 수준(절편)과 시간에 따른 총 소비지출의 변화율(시간의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가계차원의 시불변변수로, 가계경제특성 변수는 총 소비지출 수준에만 영향을 주는 시변변수로 투입하였다.

모형2은 모형1에 심리적 요인 변수군을 추가하였다.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인 기대수명의 불확실성(장수위험)염려와 상속동기의 대리변수를 시불변변수화 하여 투입하였다.

모형3은 가계가 은퇴기에 경험하는 이벤트가 총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모형2에 이벤트 요인을 추가한 모형이다. 이벤트 변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을 가지며, 소비지출수준의 변화를 설명한다.

비조건부 성장모형을 기본으로 변수군을 추가하면서 모형 간 우도비검

정(Likelihood-Ratio test, LRtest)⁶³⁾를 통해 변수가 추가된 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하였다. 가계특성 변수, 가계경제특성 변수, 심리적 요인, 이벤트 요인을 모두 반영한 모형3이 다른 모형보다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을 더 적합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를 최종 분석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모형3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19>에 정리되어 있다. 은퇴기 가계의 총 소비지출은 다른 요소들을 통제하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라 연간 약 7.8%씩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계의 초기 소비지출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에 따른 지출감소율이 가파른 모습을 보였다. 은퇴자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계특성에서 가구원수가 1명 줄면, 은퇴자 가계의 소비지출은 약 15.9% 감소하였다. 초기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수준이 낮고, 시간에 따른 소비지출 감소율은 완만하다. 가구주의 성별과 초기 시점의 거주형태는 소비지출수준과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초기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소비지출 수준에 차이를 가져오는데, 배우자가 있는 기혼가계 대비 별거 및 이혼 가계의 소비지출이 약 41.2% 적고, 사별한 가계는 약 30.4% 적었다. 별거 및 이혼상태의 은퇴자 가계는 시간에 따른 소비지출 감소율이 완만하였다.

가계의 경제적 특성은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소비가 소득의 제약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부채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의 소비지출규모가 큰데, 은퇴자 가계가 전세 및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⁶⁴⁾을 미루어 볼 때, 부채 상환부담이 적고 부채규모가 전체 가계자산의 규모와 정의 관계를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다른 경제특성변수와 동일한 방향의 효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63) 설명변수를 추가한 모형과 이전 모형과 비교하여 두 모형이 같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된 경우 더 많은 변수로 설명하는 full모형의 선택이 적합하고,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으면 좀 더 간명한 모형인 이전 모형을 선택한다.

64) 앞선 <표 4-2> 은퇴자 가계의 은퇴 전후 1년 경제적 특성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차의 부채총액 중 36.51%가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4-19> 은퇴기 총 소비지출 변화와 영향요인 (조건부 성장모형, N=3,541)

		모형1		모형2		모형3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ln(총 소비지출) 절편		4.960***	0.359	5.401***	0.425	5.281***	0.426		
시간에 따른 ln(총 소비지출) 변화율		-0.079**	0.027	-0.083**	0.032	-0.078*	0.032		
고정효과	가계 특성	가구원 수	0.161***	0.009	0.160***	0.009	0.159***	0.009	
		초기 가구주 연령	-0.029***	0.005	-0.026***	0.005	-0.025***	0.005	
		초기 가구주 연령*변화율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가구주 성별 (기준: 남)	-0.047	0.145	0.020	0.144	0.010	0.144	
		가구주 성별*변화율	-0.003	0.011	-0.006	0.011	-0.005	0.011	
		가구주 교육수준	0.128***	0.030	0.104*	0.031	0.104**	0.031	
		가구주 교육수준*변화율	0.000	0.002	0.000	0.002	0.000	0.002	
		초기 거주형태 (기준: 자가)	전세	-0.084	0.093	-0.096	0.092	-0.104	0.092
			월세	-0.253	0.137	-0.137	0.143	-0.143	0.143
			기타	0.180	0.268	0.283	0.265	0.281	0.266
	전세*변화율		0.000	0.007	0.002	0.007	0.003	0.007	
	월세*변화율		0.005	0.010	0.002	0.010	0.002	0.010	
	기타*변화율		-0.028	0.019	-0.028	0.019	-0.028	0.019	
	초기 가구주 혼인상태 (기준: 기혼 유배우자)	별거 및 이혼	-0.400*	0.169	-0.402*	0.168	-0.412*	0.168	
		사별	-0.241	0.145	-0.293*	0.144	-0.304*	0.144	
		별거 및 이혼*변화율	0.020	0.012	0.024	0.012	0.024*	0.012	
		사별*변화율	0.009	0.011	0.014	0.011	0.014	0.011	
	가계 경제 특성	ln 금융자산	0.005***	0.001	0.004**	0.001	0.004**	0.001	
ln 주택관련자산		0.010**	0.003	0.008**	0.003	0.010**	0.003		
ln 부채		0.004**	0.001	0.004**	0.001	0.004**	0.001		
ln 가구 소득		0.230***	0.008	0.226***	0.008	0.226***	0.008		

심리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0.125*	0.056	-0.134*	0.056
	주관적 건강상태*변화율				-0.001	0.004	-0.001	0.004
	개인연금 가입여부				0.125	0.077	0.134	0.077
	개인연금 가입여부*변화율				-0.007	0.006	-0.007	0.006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				-0.139	0.074	-0.137	0.074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변화율				0.006	0.006	0.006	0.006
	따로사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0.054	0.120	-0.039	0.120
	따로사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변화율				0.013	0.009	0.012	0.009
이벤트 요인	이사여부						0.016	0.022
	거주형태 변화	자가에서 전,월세 기타					0.028	0.036
		전,월세 기타에서자가					0.010	0.035
		기타 변화					0.054	0.037
	혼인상태 변화	유배우자 → 무배우자 (별거 및 이혼)					0.179	0.140
		유배우자 → 무배우자 (사별)					-0.137*	0.059
		무배우자(별거,이혼,사별) → 유배우자					0.704***	0.164
	가구주의 소득활동 참여						-0.018	0.018
건강변화						0.025*	0.010	
			var	s.e	var	s.e	var	s.e
무선 효과	u_{1j} (절편의 오차)		0.191	0.025	0.183	0.024	0.185	0.025
	u_{2j} (변화율의 오차)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e_{ij} (잔차)		0.067	0.002	0.067	0.002	0.066	0.002
$cov(u_{1j}, u_{2j})$			-0.012	0.002	-0.012	0.002	-0.012	0.002
Log likelihood			-876.437		-844.725		-826.279	
LR test			df(21), $\chi^2=1531.24***$		df(8), $\chi^2=63.42***$		df(9), $\chi^2=36.89***$	

*p < .05, **p < .01, ***p < .001

심리적 요인에서 동년배와 비교해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소비지출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은 기대수명의 추정에 영향을 주고, 이에 가계는 장수위험에 대비해 소비지출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구주가 자신의 기대수명을 짧게 여기는 경우 시간 할인율이 커져 현재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기대수명의 불확실성 염려에 대한 다른 대리변수인 개인연금 가입여부는 지출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은퇴자가계의 개인연금 보유비율이 낮고⁶⁵⁾, 개인연금이 장수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으로서 널리 인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자료 제약 상 개인연금의 범위에 종신행 연금이 아닌 다른 연금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따로 사는 자녀와의 왕래나 경제적 지원의 여부가 상속동기에 대한 대리변수로 투입되었다. 전략적 상속동기 이론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자산을 상속하려는 동기가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녀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자원을 더 공유하려는 경향으로써 이타적 상속동기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은퇴자 가계의 자녀와의 왕래정도와 자원교환(지원)은 모두 상속동기의 대리변수로서 가계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은퇴기에 겪는 이벤트 요인 중 소비지출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혼인상태의 변화와 건강상태의 변화였다. 지난 조사 이후 배우자와 사별한 가계의 총 소비지출규모는 약 13.7% 감소한다. 다만 분석자료에 혼인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일부 사례를 기반으로 도출된 수치이므로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⁶⁶⁾ 가구주가 은퇴 이후 소득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가계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소득활동에 참여한 경우 가계 소득이 증가하는데 이 부분이 소득증가분으로써 가구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의 효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은퇴자 가계의 가구소득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

65) 분석자료에서 은퇴자 가계의 개인연금 보유 비율은 5.2%이다.

66) 전체 526가계 중 배우자와 사별을 경험한 경우는 23가구이며, 별거 및 이혼 또는 사별 상태이다가 재혼한 경우는 3가구여서 분석에 언급하지 않았다.

활동 참여 여부의 효과가 상쇄되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건강변화는 지난해 대비 올해 건강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지난해보다 건강이 악화된 경우 가계지출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소비비목별 분석 결과를 참고할 때 주로 보건의료비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은퇴가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들(Basu, 2005; Hurd and Rohwedder, 2006)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가구주의 연령은 은퇴자가계의 소비지출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매년 시간의 변화가 총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은 물론, 가구주 연령이 높은 은퇴자 가계의 총 소비지출수준이 낮았다.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한 바는 은퇴자 가계 중 가구주 연령이 높은 가계의 소비지출 감소율이 보다 완만하여 가구주 연령에 따라 소비지출 변화율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가구주 연령의 변화 외에 은퇴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는 가계특성 및 가계경제특성 요인은 앞서 <표4-13>의 일반가계의 지출함수를 구성하는 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구주 교육수준이나 가구주의 혼인상태에 따라 총 소비지출수준이 다르며, 금융자산의 규모, 거주하고 있는 주택관련자산 규모, 부채 및 가구소득이 은퇴가계의 총 소비지출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정한 바와 달리 본 연구 결과에서 기대수명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와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동기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은 은퇴가계의 소비지출수준을 결정하거나 시간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다만 은퇴가계가 겪는 일부 이벤트 요인은 소비지출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사별로 인해 배우자를 잃게 되면 가구원 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소비지출이 유의하게 줄어들고 가구주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가계의 총 소비지출도 늘어났다. 그러나 이사여부와 거주형태의 변화, 가구주의 소득활동 참여는 가계 경제특성 변수(주택관련자산, 가구 소득)의 변화를 수반함에 따라 각 이벤트의 독립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른 소비비목별 지출변화와 영향요인

1) 은퇴 후 시간경과에 따른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지출비중 변화

(1)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

은퇴 후의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는 다음 <표 4-20> <그림 4-3>과 같다. 주요 소비비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장 지출액이 큰 식비의 경우 은퇴 후 6차 시점에 눈에 띄게 규모가 줄었다가 다시 회복된 뒤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3차 시점 이후 다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등락을 보였다. 그래프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다소 들쭉날쭉하지만, 은퇴 후 1차, 9차, 17차 시점의 값으로 비교한다면 은퇴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두 번째로 지출규모가 큰 비목은 주거비인데, 대체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량유지비는 은퇴 후 1년 시점에 평균 16.2만원이었으나 은퇴 후 9년 시점까지 비교적 가파르게 감소한 후 일정기간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은퇴 후 14년 시점부터 다시 감소한다. 은퇴 직후에 소비비목 중 세 번째로 지출규모가 컸지만, 은퇴 후 17년 시점에는 보건의료비 다음으로 4위의 지출규모를 보였고 보건의료비(13.0만원)와 월 4.9만원의 비교적 큰 격차가 생겼다.

보건의료비는 은퇴 후 1년 차에서는 통신비 다음으로 5위의 지출액을 보이는 비목이었으나 은퇴 후 7년 시점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 다소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된 수준을 유지하여 은퇴 후 17년 시점에는 식비와 외식비 다음으로 지출액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시간이 경과하면 서 보건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자료 상에서 일정한 증가세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가구 간 가구원 건강상태의 편차가 존재하고, 본 분석에서 가구주 연령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 경과기간 별 보건의료비 지출에 등락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퇴 후 초기에 비해 은퇴 후 시간이 흐른 시점의 보건의료비 지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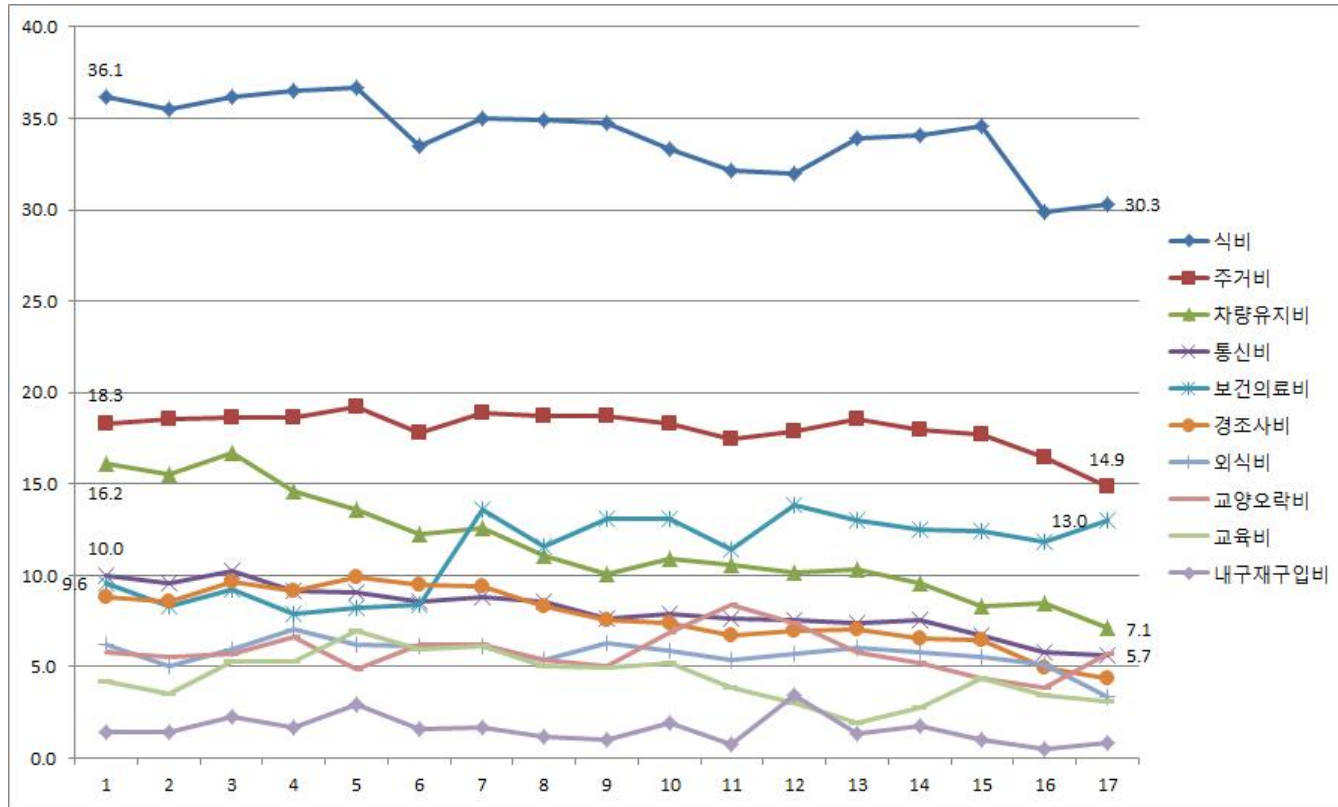
통신비와 경조사비의 경우 지출규모 및 감소액이 크지는 않지만 은퇴 후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외식비와 내구재구입비는 등락이 있지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편이다.

한편, 교양오락비는 은퇴 후 1년 시점의 평균 지출액은 5.8만원인데 시간 흐름에 따라 3.9만원에서 8.4만원 사이에서 변동한다. 가계마다 여행 등 목돈이 들어가는 지출이 발생한 것이 월평균 금액으로 교양오락비 지출에 반영되어 시기 별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은퇴자 가계의 교육비는 등락은 있지만 은퇴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후의 교육비 지출 수준이 은퇴 초기보다 전반적으로 낮아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한 교육비 니즈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표4-20> 은퇴 후 시간경과에 따른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 (단위:만원)

	식비	외식비	교육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통신비	경조사비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비
은퇴 후 1년	36.1	6.2	4.2	16.2	18.3	9.6	10	8.8	5.8	1.4
은퇴 후 2년	35.5	5.1	3.5	15.5	18.6	8.3	9.6	8.5	5.5	1.4
은퇴 후 3년	36.2	6.0	5.3	16.7	18.7	9.3	10.2	9.6	5.8	2.3
은퇴 후 4년	36.5	7.1	5.3	14.6	18.6	7.9	9.2	9.1	6.7	1.7
은퇴 후 5년	36.6	6.2	7.0	13.6	19.2	8.2	9.1	9.9	4.9	3.0
은퇴 후 6년	33.5	6.2	6.0	12.2	17.8	8.4	8.6	9.5	6.2	1.6
은퇴 후 7년	35.0	6.1	6.1	12.6	18.9	13.6	8.8	9.4	6.2	1.7
은퇴 후 8년	34.9	5.4	5.0	11.0	18.7	11.6	8.6	8.3	5.4	1.2
은퇴 후 9년	34.7	6.3	4.9	10.1	18.7	13.1	7.6	7.6	5.1	1.0
은퇴 후 10년	33.3	5.9	5.2	10.9	18.3	13.1	7.9	7.4	6.9	1.9
은퇴 후 11년	32.1	5.4	3.9	10.6	17.4	11.4	7.6	6.7	8.4	0.8
은퇴 후 12년	32.0	5.7	3.0	10.1	17.9	13.9	7.6	7.0	7.4	3.4
은퇴 후 13년	33.9	6.0	2.0	10.3	18.5	13.0	7.4	7.0	5.8	1.3
은퇴 후 14년	34.1	5.8	2.8	9.6	18	12.5	7.6	6.6	5.2	1.8
은퇴 후 15년	34.6	5.5	4.4	8.3	17.7	12.4	6.7	6.5	4.4	1.0
은퇴 후 16년	29.9	5.2	3.4	8.4	16.4	11.8	5.8	4.9	3.9	0.5
은퇴 후 17년	30.3	3.4	3.1	7.1	14.9	13	5.6	4.4	5.7	0.9

※ 소비지출액은 해당 값이 측정된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된값임



<그림 4-3> 은퇴 후 시간경과에 따른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

(2)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

본 절에서는 은퇴 후 가계의 소비지출양식과 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각 소비비목별 지출비중을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21>와 <그림 4-4>와 같다.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추이는 지출액을 살펴본 경우보다 경향성이 비교적 뚜렷하였다. 전반적으로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라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비목은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이며, 차량유지비와 통신비, 경조사비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다. 그 외 외식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비 비중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4-21> 은퇴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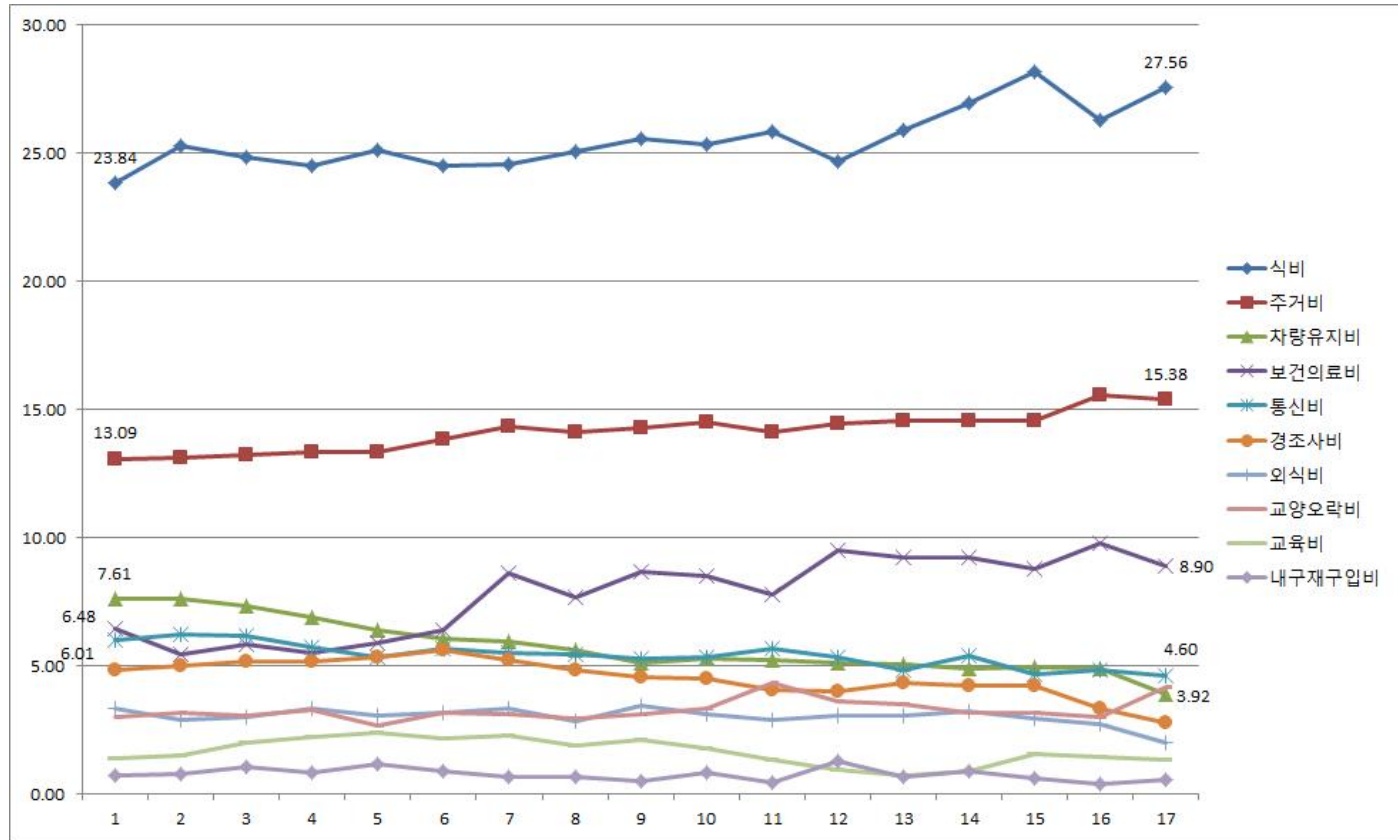
단위: 만원	식비	외식비	교육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통신비	경조사비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비
은퇴 후 1년	23.84	3.32	1.37	7.61	13.09	6.48	6.01	4.82	2.99	0.71
은퇴 후 2년	25.29	2.90	1.49	7.63	13.10	5.44	6.26	5.01	3.15	0.78
은퇴 후 3년	24.86	3.00	1.99	7.35	13.25	5.84	6.15	5.16	3.04	1.05
은퇴 후 4년	24.53	3.32	2.25	6.88	13.34	5.51	5.73	5.20	3.27	0.85
은퇴 후 5년	25.14	3.04	2.40	6.40	13.35	5.90	5.36	5.34	2.70	1.17
은퇴 후 6년	24.49	3.17	2.16	6.07	13.82	6.38	5.69	5.60	3.17	0.88
은퇴 후 7년	24.55	3.33	2.31	5.95	14.33	8.64	5.50	5.25	3.13	0.70
은퇴 후 8년	25.06	2.83	1.92	5.61	14.12	7.70	5.48	4.85	2.96	0.65
은퇴 후 9년	25.55	3.43	2.11	5.14	14.30	8.65	5.27	4.54	3.13	0.53
은퇴 후 10년	25.35	3.11	1.76	5.27	14.51	8.50	5.33	4.48	3.32	0.82
은퇴 후 11년	25.87	2.88	1.33	5.23	14.11	7.76	5.65	4.06	4.33	0.45
은퇴 후 12년	24.68	3.09	0.95	5.10	14.48	9.52	5.33	4.02	3.60	1.29
은퇴 후 13년	25.92	3.07	0.75	5.06	14.55	9.22	4.86	4.33	3.48	0.67
은퇴 후 14년	26.98	3.21	0.92	4.90	14.59	9.21	5.41	4.21	3.15	0.88
은퇴 후 15년	28.21	2.95	1.53	4.94	14.57	8.81	4.70	4.22	3.17	0.61
은퇴 후 16년	26.28	2.71	1.47	4.91	15.55	9.79	4.84	3.35	2.99	0.39
은퇴 후 17년	27.56	2.00	1.32	3.92	15.38	8.90	4.60	2.76	4.18	0.56

소비비목별 지출비중의 순위를 보면, 은퇴 후 1년 시점에는 식비, 주거

비, 차량유지비, 보건의료비, 통신비 순으로 지출비중이 높았으나, 은퇴 후 9년 경과 시점에는 보건의료비 지출비중이 크게 증가해 3위까지 올랐으며, 17년 경과 시점에는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순으로 지출비중이 높았다.

가계 소비지출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비와 주거비 지출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듯 보이는 데 반해 두 소비비목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은퇴기 시간 경과에 따른 두 소비비목의 지출액 감소율보다 총 소비지출 및 다른 비목의 지출감소율이 큰 데서 비롯된다. 식비와 주거비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은퇴 후 1년 시점에 36.9%였으나, 은퇴 후 9년이 지난 시점에는 39.9%, 은퇴후 17년 시점에는 42.8%까지 증가한다. 은퇴 후 시간이 지나면서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필수지출 위주로 지출행태가 재편되는데 이는 생활양식이 단조로워지고 소비생활의 질이 하락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보건의료비는 그 지출액과 지출비중 모두 눈에 띄게 증가하는 소비비목으로 은퇴자 가계에 매우 중요한 소비비목이다. 은퇴 후 6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보건의료비가 세 번 째로 지출비중이 높아졌다. 은퇴 후 1년 시점에 6.5%였던 비중이 은퇴 후 16년 시점에 최대 9.8%까지 높아졌다. 은퇴기 가계의 경우 은퇴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보건의료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다른 소비비목의 지출에 제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은퇴기 가계의 경우 보건의료비 증가를 예상하고 민영 건강보험 가입 등 가구 소득 및 자산을 통한 충당 외에 별도의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4> 은퇴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

2)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른 소비비목별 지출변화 궤적과 영향요인

(1)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 궤적과 영향요인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 변화를 비조건부 성장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표 4-23> 참조), 차량유지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소비비목의 경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변화율을 보였다. 먼저 은퇴기 지출액이 감소하는 비목은 식비, 교육비, 통신비, 경조사비이다. 식비는 소비비목 중 가장 지출액이 많은 비목인데, 자료가 포함된 최초시점인 2003년의 평균 식비 추정치는 약 32.1만원($e^{(3.438)}$) 수준이며, 매년 0.9%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초기의 식비지출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에 따른 식비 감소 기울기가 가파르다.⁶⁷⁾ 교육비는 매년 4.7%씩 감소하는데 이는 은퇴기 지출이 감소하는 비목 중에서 가장 감소율이 큰 비목이다. 은퇴기에 자녀들의 독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비에 대한 니즈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 반영되었다. 통신비는 10개 비목 중 식비, 주거비 다음으로 지출액이 높은 비목인데 2003년의 평균 통신비 추정치는 7.36만원이며 매년 3.1%가량 지출이 감소한다. 은퇴기 경조사비 역시 매년 3%가량 감소한다. 통신비는 노동관련 지출비목 중 하나로 은퇴기에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조사비 역시 경제생활기에 확장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식비, 교육비를 비롯한 통신비, 경조사비 등 은퇴기에 지출이 감소하는 비목에서 절편과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어 초기치가 높을수록 감소율이 가파르게 나타났다.

은퇴기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비목은 외식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비이다. 그 중 외식비와 내구재구입비의 경우 초기 추정치가 각각 0.37만원과 0.12만원으로 매우 낮으나 외식비는 매년 약 11.9%씩 증가하며, 내구재구입비의 경우 매년 4.1%씩 증가하고, 초기 외식비와

67) $cov(u_{1j}, u_{2j}) < 0$ 인 경우 초기치와 기울기가 부적인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cov(u_{1j}, u_{2j}) < 0$ 이면서 시간의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 감소율이 더 가파르다고 할 수 있다.

내구재구입비 지출이 많은 가계의 경우 지출증가율이 더 완만하다. 보건의료비의 초기 추정치는 월평균 2.93만원으로 지출액이 크지는 않지만 매년 5%씩 증가하는데 이는 가구주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니즈와 필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양오락비의 경우 매년 11.0%씩 증가하는데 은퇴 이후 여가생활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초기 교양오락비 지출수준이 1.13만원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더라도 규모자체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은퇴기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소비비목인 외식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비 모두 절편과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부적인 관계를 보여 초기치가 높을수록 증가율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액이 증가하는 외식비, 교양오락비 등 소비비목의 초기치 및 평균 지출규모⁶⁸⁾는 지출액이 감소하는 식비, 교육비, 통신비, 경조사비 등에 비해 작으며, 지출액이 증가하는 소비비목들은 초기치가 높더라도 증가율이 완만한 반면, 지출액이 감소하는 소비비목들은 초기치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지출액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소비지출액이 감소하는 형태를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여가와 소비의 대체관계에 의해 여가시간이 늘면서 외식이 가정 내 식품생산으로 대체되거나 비교구매에 의해 구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식료품비의 규모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 수치만으로 보면 은퇴 후 외식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규모차원에서 볼 때 식비 감소는 6차년도(32.12만원)에서 1년 경과시 약 0.29만원이 감소(-0.09%)하고, 외식비의 경우 6차년도(0.37만원)대비 0.04만원 늘어나는 수준이므로 식비와 외식비를 합한 전체 식료품비는 줄어들 것으로 추측된다.

가계 소비지출 중 개인이 임의로 조정하기 어렵고 금액의 변동이 적으며 지속적,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고정지출의 성격을 갖는 주거비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출액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다.

68) <표4-16>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을 참조하길 바란다.

<표4-22>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 궤적 (비조건부 성장모형)

		식비		외식비		교육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관측치 수(N, n=가구 수)		3,535(n=526)		3,161(n=518)		3,436(n=521)		3,371(n=521)		3,527(n=525)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고정 효과	ln비목별 소비지출 절편	3.438***	0.035	-0.995***	0.129	-1.568***	0.115	0.185	0.149	2.704***	0.041
	시간에 따른 변화율	-0.009*	0.004	0.119***	0.014	-0.047***	0.012	-0.016	0.014	-0.001	0.004
		var	s.e	var	s.e	var	s.e	var	s.e	var	s.e
무선 효과	u_{1j} (절편의 오차)	0.325	0.032	4.296	0.462	3.866	0.346	7.337	0.665	0.380	0.042
	u_{2j} (변화율의 오차)	0.003	0.000	0.045	0.006	0.039	0.004	0.051	0.006	0.004	0.001
	e_{ij} (잔차)	0.157	0.004	1.652	0.049	0.844	0.023	1.255	0.036	0.273	0.007
	$cov(u_{1j}, u_{2j})$	-0.019	0.003	-0.267	0.046	-0.339	0.034	-0.284	0.050	-0.025	0.004
ICC(Intra-class correlation)		.675		.722		.821		.854		.582	
Log Likelihood		-2429.909		-6046.138		-5357.957		-6239.216		-3269.580	
		보건의료비		통신비		경조사비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비	
관측치 수(N, n=가구 수)		3,387(n=524)		3,478(n=526)		3,288(n=519)		3,389(n=523)		3,158(n=516)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고정 효과	ln비목별 소비지출 절편	1.074***	0.100	1.996***	0.054	1.321***	0.112	0.124	0.084	-2.080***	0.051
	시간에 따른 변화율	0.050***	0.011	-0.031***	0.006	-0.030**	0.011	0.110***	0.009	0.041***	0.008
		var	s.e	var	s.e	var	s.e	var	s.e	var	s.e
무선 효과	u_{1j} (절편의 오차)	2.369	0.255	0.748	0.077	3.531	0.341	1.723	0.188	0.425	0.070
	u_{2j} (기울기의 오차)	0.026	0.004	0.008	0.001	0.029	0.004	0.018	0.002	0.018	0.002
	e_{ij} (잔차)	1.328	0.037	0.377	0.010	1.021	0.029	0.901	0.025	0.699	0.020
	$cov(u_{1j}, u_{2j})$	-0.208	0.028	-0.044	0.008	-0.216	0.032	-0.134	0.019	-0.044	0.010
ICC(Intra-class correlation)		.641		.665		.776		.657		.378	
Log Likelihood		-5812.572		-3961.891		-5502.218		-5236.928		-4516.376	

*p < .05, **p < .01, ***p < .001

은퇴기의 소비비목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총소비지출에 대한 조건부 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23>과 같다.⁶⁹⁾ 총 소비지출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과정과 동일한 모형선택 과정을 거친 결과 식비와 교육비의 경우 가계특성과 경제특성변수만 포함한 모형이 보다 적합하였고, 나머지 소비비목에서는 심리적 요인과 이벤트 요인을 모두 포함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도비 검정결과 모든 모형에서 확률절편만을 가정하는 것 보다 확률절편과 확률기울기 둘 다 가정하는 것이 더 적합해 각 가계의 소비비목별 지출수준과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확률적분포를 갖는다고 가정되었다.

설명변수를 투입한 결과 통신비를 제외한 나머지비목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소비비목의 지출수준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소 또는 증가하기보다 가계 내부적 특성이거나 니즈의 변화에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비목별로 살펴보면, 식비의 경우 가구원 수와 가구주 교육수준, 주택관련 자산규모 및 가구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가구원 수가 1명 증가하면 가계 식비는 약 14.4% 증가하며, 가구주 연령이 높은 가계일수록 식비지출이 적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식비 지출이 많은 편이며 가계의 주택관련자산규모와 가구소득이 클수록, 또는 가구 내에서 주택관련자산규모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식비가 증가한다. 이윤금(1999)이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와 관련요인을 분석한 바와 같이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원 수, 가구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가구주의 소득활동(취업여부)의 경우 이윤금(1999)에서 식료품비 지출규모에 영향을 주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유의한 요소는 아니었다.

외식비는 가구원가 많을수록, 금융자산보유액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데 가구원 수가 1명 증가하면 외식비 지출은 13.7%가량 증가하며, 가구소득이 1% 증가하면 외식비가 약 0.3% 증가하여 경조사비 다음으로 높은 소득탄력성을 보였다. 이 외에 별거 및 이혼, 사별 등의 이유

69) 지면 제약으로 계수와 유의성만 표시하였으며 표준오차 및 모형 정보는 부표를 참조하길 바란다.

로 배우자가 없던 가계가 재혼을 하여 유배우자 상태로 전환되었을 때 외식비 지출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사례 수가 3가구에 불과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가구원 수와 금융자산규모로 가구원 수가 1명 증가하면, 교육비가 77.4% 증가한다. 모형 상에서 명확히 통제되지는 않으나 은퇴한 중고령 가계임을 고려할 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가구원은 자녀일 확률이 높다. 교육비 지출은 대개 자녀에 대한 지출이므로 은퇴 후 시간에 따른 변화보다는 자녀의 독립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한편 금융자산의 규모와 교육비 지출은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상황에 있는 가계는 상대적으로 저축여력이 적고 금융자산 축적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차량유지비 지출액이 크며 경제특성으로는 주택관련 자산 규모가 클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차량유지비 지출이 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따로 사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가계의 차량유지비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주거비 역시 가구원 수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보다 여성인 경우 주거비 지출이 더 많다. 다른 요소를 통제했을 때 배우자가 있는 기혼가구주 가계 대비 별거 및 이혼한 가계의 주거비가 101.5%, 사별한 가계는 70.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 1명 증가에 따른 주거비 증가율은 약 4.5%로 다른 소비비목에 비해 증가율이 낮은 편인데, 이는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가구원 수 차이의 많은 부분 설명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은퇴기 가구 소득이 높은 가계의 주거비지출이 많으며, 가계가 이사를 한 경우 주거비가 약 10% 증가한다. 가계의 주거형태가 전세-월세-기타 상태 내에서 변화하게 되면 변화가 없던 상태에 비해 주거비가 약 19.5%가 작다.

보건의료비는 가구원 수가 1명 증가하면 의료비가 약 7.1%증가하는 등 가구규모의 영향을 받으며, 자가 거주 가계보다 월세에 거주하는 가

계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170% 적다. 주택관련자산 규모는 보건의료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계 부채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보건의료비 지출이 많다. 주관적으로 건강상태를 더 나쁘게 인식하는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이 많고, 개인연금이 없는 가계보다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75.1% 유의하게 높았다.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거나 개인연금을 가입하였다는 것은 오래 살 위험을 더 크게 느껴 지출통제로 이어진다고 가정하여 기대수명의 불확실성 염려에 대한 대리변수로 상정되었다. 그러나 연구결과로 보았을 때,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보건의료비 지출은 늘고, 개인연금 가입을 통해 오래 살 위험에 대비하는 경향이 있는 가계의 보건의료비지출이 더 많아 수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출통제가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배우자와 사별한 가계의 경우 의료비지출이 약 90.7%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배우자 간병에 쓰였던 의료비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지난해보다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보건의료비가 증가하였다.

통신비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에 1년마다 14.4%씩 지출액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가구원 수가 1명 늘어날수록 통신비는 27.8% 증가한다. 초기 가구주 연령이 높은 경우 통신비가 적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에 따른 통신비 감소율이 커서 은퇴기에 연령 증가에 따라 통신비가 가파르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가계의 금융자산과 가구소득은 통신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 요인 중에는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할수록 통신비가 감소하였고, 이벤트 요인에서는 전세 및 월세, 기타 상태에서 자가로 보유하게 되면서 변화가 없는 경우에 비해 통신비 지출이 16% 증가하였다.

경조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 변수는 전세거주로, 자가 거주 가계에 비해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 경조사비가 111.3% 유의하게 적어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가계의 금융자산규모와 주택관련자산규모가 클수록 경조사비 지출이 많고, 가구소득이 1% 증가하면 경조사비지출이 0.3% 증가하여 10개 소비비목 중 소득증가에 따른 지출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따로 사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경조사비 지출이 증가하며, 거주형태가 전세, 월세, 기타 상태 내에서 변화를 겪은 경우 경조사비 지출이 변화가 없던 때에 비해 약 33.5% 높다.

교양오락비는 가구원수가 1명 증가하면 지출이 약 5.8% 늘어나며, 초기에 별거 및 이혼 상태에 있는 가계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가계에 비해 교양오락비 지출이 145.4% 적었다. 금융자산규모가 클수록,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교양오락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인연금을 가입한 가계는 가입하지 않은 가계보다 교양오락비 지출이 61% 가량 많았다.

마지막으로 내구재구입비의 경우 가구원 수에 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교양오락비와 마찬가지로 금융자산이나 가구소득의 규모가 크면 내구재구입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따로 살고 있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내구재구입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기혼 상태에서 별거 및 이혼을 경험하는 가계와 배우자가 없다가 재혼을 하는 경우 내구재구입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례 수가 많지 않아(각각 4가구, 3가구) 이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총 소비지출과 달리 소비비목별 지출은 통신비를 제외하고는 은퇴 후 시간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총 소비지출은 초기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적었는데, 소비비목 중에서 초기 가구주 연령에 영향을 받는 것은 통신비 밖에 없었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받는 소비비목은 차량유지비가 유일하였다. 초기 거주형태는 총 소비지출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아니었으나, 자가 거주 가계에 비해 전세 거주 가계의 경조사비 지출규모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가계의 금융자산, 주택 관련자산, 부채규모, 가구소득 등 경제적 특성은 총 소비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소비비목별로는 그 영향여부가 상이했다. 식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보건의료비는 금융자산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식비와 주거비의 경우 필수지출이며, 보건의료비의 경우 가구원의 건강악화 여부에 따라 불가결하게 필요한 지출이 되므로 금융자산 규모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자산 규모를 통제했을 때, 초기의 거주형

태나 거주형태의 변화는 총 소비지출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소비비목의 지출에는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심리적 요인 중 총 소비지출에 영향을 준 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차량유지비나 보건의료비, 통신비 지출에 영향을 주었으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오래살 위험에 대비해 지출을 줄인다는 가정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해당 변수가 기대수명의 불확실성 염려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건강이나 노년기 활동성을 대변하는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은퇴기의 이벤트 요인 중 배우자와의 사별과 가구주의 건강변화가 총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었는데, 소비비목 별로 살펴보니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지출변화는 주로 보건의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에 따른 지출변화 역시 보건의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거주형태가 변화하거나 이사를 하게 되는 이벤트는 총 소비지출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지만, 통신비나 주거비 증감에 영향을 주었다.

<표4-23>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와 영향요인(조건부 성장모형)

		식비	외식비	교육비	차량 유지비	주거비	
ln(비목별 소비지출)		coef.	coef.	coef.	coef.	coef.	
월평균 소비지출 절편		2.971***	-3.006	-2.245	1.988	3.245***	
시간에 따른 변화율		-0.047	0.153	-0.127	-0.073	-0.064	
가계 특성	가구원수	0.144***	0.137**	0.774***	0.457***	0.045**	
	초기 가구주 연령	-0.015*	0.013	-0.029	-0.047	-0.016	
	초기 가구주 연령*변화율	0.001*	-0.001	0.003	0.000	0.001	
	가구주 성별 (기준: 남)	0.024	-0.917	-0.173	-0.170	0.719***	
	가구주 성별*변화율	-0.012	0.013	0.029	-0.008	-0.053**	
	가구주 교육수준	0.120**	0.347	0.195	0.377*	0.086	
	가구주 교육수준*변화율	-0.003	-0.001	-0.010	0.005	-0.001	
	초기 거주형태 (기준: 자가)	전세	-0.099	-0.613	0.590	-0.205	-0.023
		월세	-0.070	0.278	-0.394	0.357	0.133
		기타	0.167	-1.908	-0.187	-1.005	0.680
		전세*변화율	0.007	0.053	-0.037	-0.024	0.005
		월세*변화율	-0.011	-0.015	0.027	-0.062	0.002
	초기가구주 혼인상태 (기준: 기혼 유배우자)	기타*변화율	-0.018	0.166	-0.014	0.039	-0.027
		별거 및 이혼	-0.197	1.519	0.174	-0.593	-1.015**
사별		-0.186	1.494	1.216	0.105	-0.706**	
고정효과	별거 및 이혼*변화율	0.012	-0.090	0.017	0.030	0.059**	
	사별*변화율	0.008	-0.097	-0.051	0.014	0.040*	
	ln 금융자산	0.002	0.031***	-0.010*	0.008	0.003	
가계 경제 특성	ln 주택관련 자산	0.014***	0.023	-0.004	0.050**	0.003	
	ln 부채	0.000	0.008	-0.003	0.008	0.006	
	ln 가구 소득	0.134***	0.299**	-0.037	0.191***	0.154***	
	주관적 건강상태		-0.935		-0.742*	-0.098	
심리 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변화율		0.026		0.007	0.002	
	개인연금 가입여부		0.516		-0.004	-0.017	
	개인연금 가입여부*변화율		-0.021		0.038	-0.003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		0.236		-0.467	-0.231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변화율		-0.034		0.047	0.009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		0.164		1.577*	0.107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변화율		0.015		-0.039	-0.002	
이벤트 요인	이사여부		-0.042		-0.072	0.100*	
	거주형태 변화 (기준: 변 화없음)	자가→전, 월세 기타		0.011		0.128	0.114
		전, 월세기타→ 자가		-0.179		0.059	-0.112
		기타 변화		-0.225		0.240	-0.195**
	혼인상태 변화 (기준: 변 화없음)	기혼유배우→별거·이혼		-1.038		-0.225	0.269
		기혼유배우→사별		-0.048		-0.228	-0.090
		별거·이혼·사별→기혼유배우		3.469***		-1.447	0.171
가구주의 소득활동 참여		0.097		0.000	-0.032		
건강변화		-0.019		0.028	-0.021		
$cov(u_{1i}, u_{2j})$		-0.021	-0.408	-0.371	-0.434	-0.033	

*p < .05, **p < .01, ***p < .001

<표4-23>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와 영향요인- 계속

ln(비목별 소비지출)		보건의료비	통신비	경조사비	교양 오락비	내구재 구입비	
		coef.	coef.	coef.	coef.	coef.	
월평균 소비지출 절편		-5.642**	3.537***	1.747	0.110	-2.365*	
시간에 따른 변화율		0.192	-0.144**	0.013	0.015	-0.061	
가계특성	가구원수	0.071*	0.278***	0.057	0.058*	0.092**	
	초기 가구주 연령	0.018	-0.043***	-0.040	-0.033	-0.014	
	초기 가구주 연령*변화율	0.000	0.002**	0.001	0.002	0.002	
	가구주 성별 (기준: 남)	0.195	0.013	-1.075	0.576	-0.003	
	가구주 성별*변화율	-0.016	-0.013	0.074	-0.053	-0.008	
	가구주 교육수준	0.024	0.063	0.133	0.170	-0.033	
	가구주 교육수준*변화율	0.000	0.001	-0.002	0.000	0.002	
	초기 거주형태 (기준: 자가)	전세	-0.671	-0.087	-1.113*	-0.366	-0.261
		월세	-1.700*	-0.172	-0.541	-0.604	0.541
		기타	-0.041	0.695	-1.175	1.570	0.248
		전세*변화율	0.024	0.005	0.059	0.021	0.025
		월세*변화율	0.090	0.007	-0.004	0.008	-0.034
	초기 가구주 혼인상태 (기준: 기혼 유배우자)	기타*변화율	-0.037	-0.062	0.036	-0.115	-0.016
		별거 및 이혼	-0.379	-0.139	-0.037	-1.454*	-0.172
사별		-0.948	-0.074	0.266	-0.372	-0.021	
고정효과	별거 및 이혼*변화율	0.027	0.025	-0.026	0.109*	-0.001	
	사별*변화율	0.039	0.006	-0.064	0.030	-0.001	
	ln 금융자산	0.000	0.010**	0.025***	0.014**	0.009*	
가계특성	ln 주택관련 자산	0.035**	0.016*	0.034**	0.022*	0.016	
	ln 부채	0.013*	0.003	0.009	0.006	-0.006	
	ln 가구 소득	0.216***	0.182***	0.328***	0.245***	0.062*	
	주관적 건강상태	1.184***	-0.219*	-0.217	-0.179	0.021	
심리적요인	주관적 건강상태*변화율	-0.056**	0.007	-0.015	-0.011	0.000	
	개인연금 가입여부	0.751*	0.049	0.670	0.610*	-0.134	
	개인연금 가입여부*변화율	-0.058*	-0.001	-0.051*	-0.038	0.015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	-0.395	-0.077	0.010	-0.082	0.033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변화율	0.011	-0.004	-0.021	-0.002	0.007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	0.423	-0.264	1.333*	-0.331	0.684*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변화율	-0.005	0.011	-0.046	0.031	-0.027	
이벤트요인	이사여부	-0.079	0.003	-0.153	0.076	-0.003	
	거주형태 변화 (기준: 변화없음)	자가→전, 월세 기타	-0.152	0.100	0.287	0.127	0.015
		전, 월세기타→ 자가	0.055	0.160*	-0.054	-0.009	0.054
		기타 변화	-0.060	-0.044	0.335**	-0.094	-0.040
	혼인상태 변화 (기준: 변화없음)	기혼유배우→별거·이혼	-0.196	0.178	0.129	-0.017	1.849***
		기혼유배우→사별	-0.907**	-0.010	-0.175	0.081	-0.034
	별거·이혼·사별→기혼유배우	-0.792	0.468	0.229	0.880	1.932**	
	가구주의 소득활동 참여	-0.084	0.018	0.097	0.047	-0.031	
건강변화	0.232***	-0.031	0.017	0.009	-0.020		
$cov(u_{1i}, u_{2j})$		-0.292	-0.037	-0.302	-0.192	-0.139	

*p < .05, **p < .01, ***p < .001

(2)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 궤적과 영향요인

소비비목별 지출비중은 지출액과는 달리 전체 소비지출 규모의 변화와 세부 비목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개별적인 비중 수치의 변화 뿐 아니라 각 소비비목의 성격과 지출액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비조건부 모형을 통해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를 살펴 보았다(<표4-24> 참조). 은퇴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의하게 비중이 증가하는 비목은 외식비, 교양오락비 및 내구재구입비이며, 교육비와 차량유지비, 통신비, 경조사비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다. 6차 조사(2003년)시점에서 추정된 평균 식비비중은 25.4%로 가장 높는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다음으로 지출비중이 높은 주거비의 초기치의 추정치는 13.8%이며 이 역시 시간에 따른 비중변화가 유의하지 않았다. 앞서 은퇴 후 경과년수에 따른 식비와 주거비 비중을 살펴 보았을 때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라 두 소비비목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동일 은퇴자 가계의 시간에 따른 식비, 주거비 비중의 변화만을 분석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큰 폭으로 소비지출비중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차량유지비와 보건의료비는 2003년 평균 지출비중이 각각 6.8%, 7.1%으로 4, 3위로 높은 비중이지만 차량유지비와 달리 보건의료비 비중은 시간에 따라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은퇴기 시간 경과에 따른 소비비목별 지출비중의 변화율을 보면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비목은 교육비로, 매년 0.23%p씩 비중이 줄며, 그 다음은 경조사비로 매년 0.19%p씩 비중이 감소하고, 교양오락비는 매년 0.17%p의 유의하게 비중이 높아진다.

<표4-24>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 궤적(비조건부 성장모형, 단위:%)

		식비 비중		외식비 비중		교육비 비중		차량유지비 비중		주거비 비중	
관측치 수(N, n=가구 수)		3,518(n=524)		3,518(n=524)		3,518(n=524)		3,519(n=524)		3,519(n=524)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고정 효과	소비지출비중 절편	25.398***	0.629	2.184***	0.272	3.101***	0.430	6.792***	0.417	13.773***	0.447
	시간에 따른 변화율	-0.006	0.068	0.138***	0.030	-0.229***	0.046	-0.084*	0.042	0.020	0.051
		var	s.e	var	s.e	var	s.e	var	s.e	var	s.e
무선 효과	u_{1j}	92.039	10.112	17.961	1.930	46.750	4.665	48.443	5.136	44.738	4.965
	u_{2j}	0.846	0.124	0.205	0.027	0.434	0.051	0.320	0.047	0.499	0.071
	e_{ij}	62.034	1.681	9.559	0.261	21.378	0.577	20.759	0.568	35.091	0.954
$cov(u_{1j}, u_{2j})$		-5.689	0.988	-1.577	0.214	-3.985	0.459	-1.662	0.401	-2.238	0.503
ICC(Intra-class correlation)		.597		.653		.686		.700		.560	
Log Likelihood		-12845.96		-9532.671		-10906.304		-11110.242		-11895.073	

		보건의료비 비중		통신비 비중		경조사비 비중		교양오락비 비중		내구재구입비 비중	
관측치 수(N, n=가구 수)		3,519(n=524)		3,518(n=524)		3,519(n=524)		3,519(n=524)		3,519(n=524)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고정 효과	소비지출비중 절편	7.091***	0.505	6.242***	0.241	5.949***	0.289	2.108***	0.169	0.502***	0.091
	시간에 따른 변화율	0.021	0.058	-0.098***	0.028	-0.191***	0.031	0.165***	0.021	0.046***	0.014
		var	s.e	var	s.e	var	s.e	var	s.e	var	s.e
무선 효과	u_{1j}	48.887	6.122	12.752	1.401	19.431	2.171	3.446	0.675	0.000	0.000
	u_{2j}	0.520	0.093	0.158	0.020	0.170	0.027	0.040	0.011	0.012	0.002
	e_{ij}	58.058	1.572	10.274	0.276	12.478	0.340	11.250	0.300	6.266	0.160
$cov(u_{1j}, u_{2j})$		-3.282	0.677	-1.300	0.159	-1.540	0.223	-0.100	0.076	0.001	0.000
ICC(Intra-class correlation)		.457		.554		.609		.234		.000	
Log Likelihood		-12591.418		-9454.784		-9904.293		-9589.512		-8357.630	

*p < .05, **p < .01, ***p < .001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비조건부 모형에서 외식비와 교육비, 통신비, 경조사비,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비의 경우 시간에 따른 유의한 비중 변화가 있었으나, 여러 조건을 통제한 결과 교육비, 교양오락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목은 시간 변화에 따른 비중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고, 시간 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소비지출비중의 변화가 설명되었다.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해 비조건부 모형을 기초로 변수군을 추가하면서 모형을 구성하고, 새로운 변수 군이 추가된 모형과 이전 모형 사이에 우도비테스트를 통해 보다 적합한 설명 모형을 구성하였다. 소비비목별로 적합한 모형이 다르게 나타났고, 내구재구입비의 경우 설명변수를 추가하지 않은 비조건부모형이 더 우수하였다.

비목별로 지출비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가계의 식비 지출 비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구원 수, 초기 가구주 연령, 월세거주 가구와 시간에 따른 변화율의 상호작용항, 금융자산규모, 가구소득이다. 가구원 수가 1명 증가하면 식비 비중이 0.5%p 감소하며, 초기 가구주 연령이 높은 가계일수록 식비지출비중이 높다. 한편,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와 시간에 따른 식비지출비중 변화율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였으나, 애초의 시간에 따른 식비지출비중의 변화율이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 금융자산이나 가구소득이 1% 증가하면, 식비지출 비중이 각각 0.00089%p, 0.027%p 변화하여 식비지출비중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기는 하나 그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식비지출 비중이 감소한다는 앵겔법칙에 상응하는 결과가 은퇴자 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외식비 비중에 영향을 주는 가계특성 요인은 가구원 수와 초기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초기 가구주 혼인상태이다.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외식비 지출 비중이 높았으며, 가구주 연령이 높은 가계일수록 외식비 비중이 높아지는 정도는 다소 완만하였다. 가구원 수가 1명 증가하면 외식비는 0.35%p 감소하는데, 달리 생각해보면 가구원 수가 적은 가계의 외식비지출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기 가구주 혼인상태

가 기혼 유배우자인 가계에 비해 별거 및 이혼상태인 경우 외식비 지출 비중 약 5.05%p 높았다. 다른 조건을 통제했을 때 여성가구주 가계의 외식비 비중은 남성가구주에 비해 3.81%p 낮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볼 때, 배우자가 없이 생활하는 남성 가구주 가계나 노년 1인가구의 경우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먹기 보다는 외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소비행태가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외식비는 식비보다는 소득탄력성이 높은 비목으로 가구 소득이 증가할 경우 그 비중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식비규모에서는 유의한 영향변수가 아니었으나 주관적인 건강상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장수위험을 적게 느낄수록) 외식비지출 비중이 낮고, 자녀와 왕래가 잦을수록(자녀에 대한 상속동기가 높을수록) 외식비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였다.

교육비 비중은 가계특성과 경제특성만을 반영한 모형이 적합하였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육비 비중은 매년 약 1.3%p씩 감소하였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비 비중이 높고, 초기 가구주 연령이 높은 경우 교육비 비중이 낮고 시간에 따른 교육비 비중의 감소율이 완만한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가 높은 은퇴자 가계의 경우 자녀의 독립이 이루어졌거나 자녀의 연령이 높아 교육비 니즈가 줄어들고, 자녀가 독립함으로써 가구원수가 감소하면 교육비 지출액이 두드러지게 감소하면서 교육비 비중도 유의하게 감소한다. 한편, 초기 가구주 혼인상태가 사별한 상태인 가계의 교육비 지출비중이 기혼유배우자 가계 대비 5.83%p 높았다. 교육비 규모 자체가 유의하게 많기 보다는 주거비 등 다른 소비비목의 지출액이 적어 상대적으로 교육비 비중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자료상으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 관련 지출이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녀관련 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차량유지비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부채와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그 비중이 높았다. 한편 상대적으로 동년배 대비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차량유지비가 줄어들었다. 앞서 차량유지비 지출규모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나, 주택관련자산의 규모, 심리적 요인에 따라서

도 차이가 있었으나 지출액의 변화가 지출비중의 변화로 나타날 정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주거비 비중은 가구원 수와는 부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는 가구원 증가에 따라 주거비 외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고정지출 요소인 주거비는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성가구주 가계의 주거비 비중이 높았으며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자가 가계보다 주거비 지출 비중이 약 6.3%p 높았고, 배우자가 있는 가계보다는 별거 및 이혼 상태인 가계의 주거비 지출 비중이 약 7.24%p 유의하게 낮았다. 별거 및 이혼 상태 가계의 경우 주거비 지출 규모도 유의하게 작았는데, 별거 및 이혼을 경험하면서 이전에 주택규모(면적 또는 가액)의 축소가 진행된 후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택관련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주거비 비중은 줄어든다.

보건의료비 비중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구원 수, 주택관련 자산 규모, 주관적 건강상태, 배우자와 사별, 가구주의 건강변화이다. 가구원 수를 제외하고는 해당 요인들이 보건의료비 지출을 유의하게 변화시키는 요인이었다.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비 지출이 늘지만, 그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가구원 수 증가에 따라 다른 비목들의 지출 규모가 더 많이 증가하여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 가계의 보건의료비 비중은 그 이전에 비해 6.5%p 감소하여 가장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오며, 가구주의 건강이 악화되면 보건의료비 지출이 증가하여, 보건의료비 지출액의 변화가 비중 변화에도 반영되었다.

통신비의 역시 가계특성과 경제특성만을 반영한 모형이 적합했다. 앞서 소비지출규모 별 분석에서 통신비는 다른 요소를 통제했을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의하게 지출규모가 감소하는 비목이었으나, 지출비중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통신비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비율과 전체 소비지출의 감소비율이 유사하다면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통신비 비중에 영향을 주는 시간 외의 요인은 가구원 수와 가구소득으로, 가구원 수가 1명 늘어나면 통신비 비중이 약 0.67%p 증가하며, 가

구소득이 높을수록 비중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경조사비 비중은 가구원 수와 부적인 관계를 가지며 전세거주 가계의 경우 자가 거주 가계 대비 경조사비 비중이 유의하게 적었다. 그러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따로 사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할수록, 경조사비 비중이 증가하였다.

교양오락비 비중 역시 경조사비와 유사하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감소하였으나 소득과는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경조사비와는 달리 교양오락비는 따로 사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할수록 그 비중이 줄었다.

대개 소비비목별 지출액은 가구원 수의 증가와 양적인 관계를 갖지만, 가구원 수가 각 소비비목별 지출비중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다소 상이했다. 또한 소비비목별 비중에 많은 영향을 준 요인은 가구주의 혼인상태로 외식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비중이 차이가 있었고, 초기 가구주 연령에 따라 식비, 외식비나 교육비 지출비중에 차이가 있었다. 소비비목별 지출 비중이 가계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욕구를 반영한다고 할 때, 은퇴기 가계의 소비양식은 시간에 따른 변화보다는 가구규모나 가구 구성원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사 및 거주형태의 변화, 혼인상태의 변화와 같은 이벤트 요인은 일시적인 요소이기에 지출규모에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소비지출의 비중변화까지 야기하지는 못했다.

또한 소비비목 자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지출비중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도 있다. 필수재이거나 고정지출 성격을 띠는 식비, 주거비 비중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그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은퇴생활을 하는 가계에도 앵겔법칙과 슈바베법칙⁷⁰⁾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70) 슈바베의 법칙(Schwabe's law)은 슈바베가 주장한 소득과 주거비로 지출되는 비용과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체 생계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체 생계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표4-25>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와 영향요인(조건부 성장모형, 단위:%)

		식비	외식비	교육비	차량 유지비	주거비	
		coef.	coef.	coef.	coef.	coef.	
소비지출비중 절편		21.240	-8.938	14.254*	15.947*	17.270*	
시간에 따른 변화율		0.505	0.831*	-1.301**	-0.044	0.624	
가계 특성	가구원 수	-0.504*	-0.350***	2.447***	0.421**	-1.350***	
	초기 가구주 연령	0.377**	0.187**	-0.274**	-0.116	0.184	
	초기 가구주 연령*변화율	-0.018	-0.014**	0.020**	-0.005	-0.011	
	가구주 성별 (기준: 남)	3.300	-3.814*	-2.100	-3.351	7.419**	
	가구주 성별*변화율	-0.345	0.132	0.190	0.115	-0.429*	
	가구주 교육수준	-0.623	-0.150	0.561	0.062	-0.449	
	가구주 교육수준*변화율	0.013	0.030	-0.022	0.030	0.013	
	초기 거주형태 (기준:자가)	전세	1.267	0.061	2.232	-0.160	1.898
		월세	5.552	-1.351	-2.332	2.059	6.296*
		기타	-2.185	-4.740	-0.415	-1.657	2.733
		전세*변화율	0.012	0.013	-0.130	-0.105	0.025
		월세*변화율	-0.576*	0.135	0.234	-0.274	-0.080
	초기가구주 혼인상태 (기준: 기혼 유배우자)	기타*변화율	0.325	0.374	0.017	0.012	0.407
		별거 및 이혼	2.046	5.054*	0.327	0.021	-7.236*
사별		-2.590	2.114	5.834*	1.690	-4.246	
고정효과 가계 특성	별거 및 이혼*변화율	-0.116	-0.294	0.031	-0.051	0.355	
	사별*변화율	0.197	-0.097	-0.284	-0.086	0.288	
	ln 금융자산	-0.089*	0.028	-0.029	0.018	-0.062*	
	ln 주택관련 자산	-0.100	0.039	-0.052	0.056	-0.250***	
심리 적 요인	ln 부채	-0.064	0.010	-0.004	0.048*	-0.001	
	ln 가구 소득	-2.660***	0.629***	-0.151	0.719***	-1.450***	
	주관적 건강상태	-0.781	-2.304**		-2.666**		
	주관적 건강상태*변화율	0.207	0.113*		0.070		
	개인연금 가입여부	-2.353	0.968		-0.150		
	개인연금 가입여부*변화율	0.104	-0.065		0.140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	0.142	2.024*		0.412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변화율	0.006	-0.162*		0.047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	-3.525	0.525		3.633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변화율	0.005	-0.031		-0.053			
이벤트 요인	이사여부						
	거주형태 변화 (기준: 변 화없음)	자가→전,월세 기타					
		전,월세기타→ 자가					
		기타 변화					
	혼인상태 변화 (기준: 변 화없음)	기혼유배우→별거·이혼					
		기혼유배우→사별					
별거·이혼·사별→기혼유배우							
가구주의 소득활동 참여							
건강변화							
$cov(u_{1j}, u_{2j})$		-6.956	-2.391	-4.106	-3.037	-3.234	

*p < .05, **p < .01, ***p < .001

<표4-26>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와 영향요인-계속

		보건 의료비	통신비	경조사비	교양 오락비	내구재 구입비	
		coef.	coef.	coef.	coef.	coef.	
소비지출비중 절편		-27.571**	9.521*	11.145*	-2.287	0.225	
시간에 따른 변화율		0.716	-0.039	-0.084	0.584*	0.046**	
가계 특성	가구원 수	-0.887***	0.671***	-0.755***	-0.385***		
	초기 가구주 연령	0.223	-0.046	-0.047	0.065		
	초기 가구주 연령*변화율	-0.002	0.000	-0.001	-0.006		
	가구주 성별 (기준: 남)	-0.297	0.199	-2.678	0.832		
	가구주 성별*변화율	0.034	-0.041	0.195	-0.068		
	가구주 교육수준	-0.563	-0.125	-0.365	0.407		
	가구주 교육수준*변화율	0.014	-0.003	0.018	0.002		
	초기 거주형태 (기준: 자 가)	전세	-2.383	-0.197	-3.588**	-0.348	
		월세	-6.502	-0.774	-1.598	1.165	
		기타	0.851	0.876	-0.968	1.363	
		전세*변화율	0.090	0.049	0.234**	0.008	
	초기가구주 혼인상태 (기준: 기혼 유배우자)	월세*변화율	0.407	0.062	0.072	-0.125	
		기타*변화율	-0.055	-0.093	0.014	-0.151	
		별거 및 이혼	-1.334	1.605	2.733	-1.939	
사별		-4.624	2.011	-0.375	-0.122		
고정효과	가계 특성	별거 및 이혼*변화율	0.171	-0.074	-0.262	0.179	
		사별*변화율	0.226	-0.111	-0.070	0.029	
		ln 금융자산	-0.019	-0.019	0.016	0.014	
심리 적 요 인	가계 특성	ln 주택관련자산	0.169*	0.065*	0.006	0.024	
		ln 부채	-0.011	-0.012	0.031	-0.007	
		ln 가구 소득	0.324	-0.482***	0.486***	0.211*	
		주관적 건강상태	7.283***		0.037	-0.106	
이벤트 요인	가계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변화율	-0.302**		-0.053	-0.049	
		개인연금 가입여부	-0.382		-0.037	-0.244	
		개인연금 가입여부*변화율	-0.029		-0.027	0.017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	-2.366		-0.758	-0.588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변화율	0.134		0.029	0.031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	-0.695		5.685***	-2.209*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변화율	0.095		-0.247*	0.124	
		이사여부	-0.460				
이벤트 요인	가계 특성	거주형태 변화 (기준: 변 화없음)	자가→전, 월세 기타	-1.189			
		전, 월세기타→ 자가	-1.077				
		기타 변화	-0.441				
		혼인상태 변화 (기준: 변 화없음)	기혼유배우→별거·이혼	-4.273			
		기혼유배우→사별	-6.496***				
		별거·이혼·사별→기혼유배우	-1.828				
가구주의 건강변화	소득활동 참여	-0.683					
	건강변화	1.387***					
$cov(u_{1j}, u_{2j})$		-5.054	-2.091	-2.088	-0.247	-0.073	

*p < .05, **p < .01, ***p < .001

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계의 성공적인 은퇴설계안 마련에 기여하고 은퇴기 가계를 위한 복지정책의 방향 설정에 기여하기 위해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총 소비지출규모와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및 비중이 은퇴와 은퇴기 시간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은퇴 전후의 가계 소비지출의 변화를 비교하고, 은퇴 여부가 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은퇴로 인해 가계 소비지출이 경제활동기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지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은퇴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장기간의 은퇴 생활을 지속할 때 은퇴자 가계의 소비지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총 소비지출 및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비중의 은퇴 기간 경과에 따른 변화 궤적을 추적하고 그 영향요인을 함께 규명하였다.

제 1 절 결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가계는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 전에 비해 소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가계에도 은퇴소비폐절 현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계의 은퇴 전후 소비지출규모를 비교한 결과 은퇴 전 해에 비해 은퇴 다음 해의 총 소비지출이 약 8.9% 감소하였다. 은퇴 후 가계의 균등소비지출이 은퇴 이전 대비 13.3% 줄어든다는 석상훈(2010)의 연구보다 그 감소율이 작긴 하지만, 가계가 은퇴 후 소비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은퇴 후 가계의 소비지출 감소 현상은 가계의 특성이나 은퇴관련 요인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은퇴 전 소득과 지출의 절대적인 규모가 작아 소비지출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소득이 소비지출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지만, 이들 가계를 제외하고는 은퇴 후 소득이 소비수준을 충당하지 못해 불가결하게 소비를 조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 보다는 은퇴사유나 은퇴시기와 같은 은퇴 당시의 환경에 따라 소비지출수준 조정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은퇴 후 급격한 소비지출의 감소를 다룬 국내외 은퇴소비패널 연구에서 은퇴 후 소비지출 감소 현상의 존재여부와 그 감소율 추정치가 다른 것은 분석에 활용된 가계의 은퇴환경(은퇴 시기, 은퇴사유, 은퇴연령 등)이 달랐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둘째, 은퇴 후 일부 소비비목의 지출에 유의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가구주의 은퇴로 인해 노동관련 지출인 외식비, 차량유지비, 통신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 교육비 지출액과 지출비중이 유의하게 줄어 은퇴 전후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변화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비를 제외한 다른 소비비목의 지출액 순위에 큰 변화가 없고 은퇴 전후 소비비목별 지출비중에 유의한 변화가 많지 않음을 볼 때, 은퇴 후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이 은퇴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 은퇴자 가계의 필수적인 지출이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은퇴 후 가계의 필요(wants)보다는 욕구(needs)에 기반한 소비지출이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은퇴 이후 가계의 총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급격한 소비지출양식의 변화를 수반하지는 않으며, 은퇴 전후로 달라지는 가계의 소비니즈와 관련된 특정 소비비목(교육비, 보건의료비)의 지출규모만이 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다른 조건이 통제했을 때, 가구주의 은퇴 자체는 가계의 총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유의한 요인이었으나, 소비지출양식에는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가구주가 은퇴하게 되면 가계의 총 소비지출이 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변수는 가구주의 은퇴로 인한 심리적 변화나 여가시간의 확대 및 라이프스타일 전환에 따른 소비니즈 변

화를 내포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소비지출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은퇴 자체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가구원 수나 혼인상태 등 가계 특성의 표면적 변화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하면 작은 수준이다. 한편, 소비지출양식과 관련해 은퇴의 영향으로 통신비, 교양오락비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내구재구입비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소비비목별 지출비중으로 볼 때는 통신비 비중만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개별 소비비목의 지출규모와 지출비중은 은퇴로 인한 심리적, 이면적 변화보다는 가계소득,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등 실질적으로 소비니즈를 결정하는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은퇴의 영향으로 총 소비지출 규모는 축소되지만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은 변하지 않으며, 다른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았던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비교 분석과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은퇴 직후 가계의 총 소비지출은 은퇴 직전 소비지출의 91.1% 수준이다. 은퇴와 맞물린 가계 특성의 변화, 은퇴 자체가 야기하는 심리적 변화 및 가계 특성으로 표현되지 않은 이면적 소비니즈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8.9%의 소비지출 감소를 가져온다. 은퇴 이외 다른 요인의 변화를 통제하더라도 은퇴 후 약 3.9% 소비지출이 감소하여, 우리나라 가계에도 은퇴소비퍼즐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은퇴 전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소비지출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욕구와 필요, 선호를 보여주는 소비지출양식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소비지출양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소비지출규모만 줄어드는 것은 은퇴자 가계의 소비에서 오는 효용이나 만족감이 은퇴 이전보다 다소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종단적 다층모형을 통해 은퇴자 가계의 2003년-2014년의 소비지출패적을 추정한 결과, 은퇴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가계의 총 소비지출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평균적으로 연간 1.5%씩 감소한다. 기존에 보편적인 은퇴설계안들은 은퇴 후 생활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가정해왔으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이러한 가정은 은퇴생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임을 의미한다. 은퇴생활을 하는 가계의

소비지출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은퇴필요자금을 산정한다면, 기존에 과다하게 추정된 은퇴필요자금 규모를 현실화 할 수 있다.

다섯째, 은퇴기 가계의 총 소비지출 변화를 시간에 따른 궤적으로 추정할 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 특성, 가계경제 특성, 심리적요인과 이벤트 요인의 영향으로 큰 경향성 내에서 증감을 거듭하며 변화된다. 가계마다 시간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율이 상이하여, 초기 지출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에 따른 소비지출 감소율이 더 크기도 하고, 가구주 연령이 높은 가계나 별거 및 이혼상태의 가계는 평균 소비지출수준이 낮고 시간에 따른 소비지출 감소율이 완만하다.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은 다양한 요인이 시간의 흐름 속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가시적으로 파악하고자 사례가계를 구성하여 본 연구에서 추정된 가계지출함수에 적용해보면 다음 <표4-26>과 같다.

사례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60세이며, 가구주의 최종학력은 대졸이고, 가구원 수는 3명으로 부부 외 자녀 1명이 있다. 가계경제 특성은 분석자료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해당 조건 하에서 이 가계의 2003년 월평균 총 소비지출 추정치는 197.9만원이다. 먼저 사례가구가 은퇴기에 겪을 수 있는 변화에 따라 총 소비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변화1-4는 사례가구의 기준이 되는 2003년에서 2004년까지 1년 사이에 가계 총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요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변화했을 때 가계 총 소비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다. 한편, 변화5는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계의 상황이 연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른 총 소비지출의 변화 흐름을 보여준다.

<표4-26> 사례 가구의 총 소비지출 변화 추정

변화요인	사례 가구 (기준)	변화1	변화2	변화3	변화4	변화5 2004년-2008년 연속적 변화				
		1년 시간경과	자녀 독립	배우자 사별	건강악화	소득 감소	자녀독립 및 지원	배우자와 사별	가구주 건강 악화	건강악화 + 소득감소
총 소비지출(만원)	197.9	183.1	156.2	136.2	187.7	174.5	137.4	94.5	102.8	92.7
총 소비지출 변화량		-14.9	-41.8	-61.8	-10.2	-23.4	-37.1	-42.9	8.3	-10.1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량		-14.9	-14.9	-14.9	-14.9	-14.9	-13.1	-10.3	-7.1	-7.7
시간 외 요인에 의한 변화량			-26.9	-46.9	4.6	-8.6	-24.0	-32.6	+15.4	-2.4
log 총소비지출	5.2	5.2	5.1	4.9	5.2	5.2	4.9	4.5	4.6	4.5
해당연도 (응답차수)	2003년 (6차)	2004년 (7차)	2004년 (7차)	2004년 (7차)	2004년 (7차)	2004년 (7차)	2005년 (8차)	2006년 (9차)	2007년 (10차)	2008년 (11차)
가구원수	3	3	2	2	3	3	2	1	1	1
시불변 수	초기가구주연령	60	60	60	60	60	60	60	60	60
	가구주교육수준	대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초기 혼인상태	기혼	기혼	기혼	기혼	기혼	기혼	기혼	기혼	기혼
금융자산	3,346.9	3,346.9	3,346.9	3,346.9	3,346.9	3,346.9	2000	2000	2000	2000
주택관련자산	18,961.2	18,961.2	18,961.2	18,961.2	18,961.2	18,961.2	18,961.2	18,961.2	18,961.2	18,961.2
부채	3,397.3	3,397.3	3,397.3	3,397.3	3,397.3	3,397.3	3,397.3	3,397.3	3,397.3	3,397.3
가구소득	247.3	247.3	247.3	247.3	247.3	200	200	200	200	160
혼인상태 변화	없음	없음	없음	사별	없음	없음	없음	사별	없음	없음
건강상태 변화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나빠진 편	없음	없음	없음	나빠진 편	훨씬 나빠짐

※ 진한 글씨로 처리한 부분은 이전 해 대비 변화된 부분이며 흐리게 표시한 부분은 이전 해 대비 변화가 없음.

※ 변화1-4는 2003년-2004년 1년 사이에 4가지 요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변화했을 때를 의미하며, 변화 5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의미함.

변화1은 다른 요소는 변하지 않고 시간만 1년 경과한 상황으로, 총 소비지출은 약 14.9만원 감소하여 183.1만원으로 줄어든다. 변화2는 1년 사이에 자녀의 독립으로 가구원 수가 감소한 경우로, 이 경우 총 소비지출은 시간의 효과와 가구원 수 감소의 효과가 결합해 약 41.8만원 감소해 156.2만원이 된다. 2003-2004년 사이 시간 경과로 인한 14.9만원 감소분을 제하면 가구원 수 1명 감소로 인한 순감소분은 26.9만원이다. 변화 3은 2003-2004년 사이에 배우자와 사별하면서 총 소비지출이 줄어든 상황으로 배우자와의 사별은 가구원 수의 감소도 야기한다. 따라서 시간의 효과를 제외한 배우자와의 사별(가구원 수 1명 감소 포함)은 소비지출을 46.9만원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변화 4는 건강이 악화된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건강이 나빠진 경우 총 소비지출이 늘어나지만(4.6만원), 시간의 효과를 상쇄하면 총 소비지출은 10.2만원 감소하게 된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연속적으로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3년 197.9만원이던 가계의 총 소비지출은 2004년 가구소득이 200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174.5만원으로 감소한다. 가구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총 소비지출도 줄어든다. 이후 2004-2005년 사이에 자녀가 독립을 하는데, 만약 이때 자녀에게 독립자금 약 1,347만원을 지원하여 가계 금융자산이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가계의 총 소비지출은 2004년 대비 37.1만원 더 감소하여 137.4만원이 된다. 2005-2006년 사이에 다른 변화 없이 배우자와 사별하면서 가구원 수가 줄고 가계의 총 소비지출은 94.5만원까지 하락한다. 이후 2007년에 가구주의 건강이 이전 해 보다 다소 나빠지면 소비지출이 8.3만원 늘어나 월 소비지출은 102.8만원이 된다. 다음 해인 2008년에 가구주의 건강이 이전 해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소일거리도 줄어 가구소득이 16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면 월 소비지출은 92.7만원이 된다. 건강 악화로 인해 지출이 늘어나는 규모보다 소득 감소로 지출을 감축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전 해 보다 소비지출이 감소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은퇴기 가계의 소비지출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가계가 은퇴기에 겪을 상황 변화를 미리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에 투입하게 되면

미래의 소비지출 변화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를 개별 가계의 은퇴설계에 도입한다면, 보다 현실적으로 은퇴 후 소비지출 수준을 예측하고 은퇴필요자금을 산정하게 함으로써 정교한 은퇴설계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은퇴기 가계의 일부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지출비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식비와 교육비, 통신비, 경조사비는 유의한 감소세를 보였고, 외식비와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비는 유의한 증가 경향을 보였다. 지출비중의 궤적을 보면, 교육비, 통신비, 경조사비, 차량유지비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고, 외식비,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비의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졌다. 은퇴생활을 지속하면서 식비 지출규모가 감소함에도 전체 소비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보건의료비의 경우 지출규모가 점차 증가하였으나 비중이 유의하게 높아지지는 않았다. 주거비는 지출규모와 지출비중 모두 시간에 따른 유의한 변화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식비, 보건의료비, 주거비는 필수재적 성격을 띠는 은퇴자 가계의 주요한 소비비목으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지출수준이 눈에 띄게 증감하지 않았고, 선택재적 성격을 띠는 소비비목들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특히 유의할 점은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지출비중이 시간에 따라 증감하는 이러한 경향성이 시간의 경과(가구주 연령의 증가)만의 영향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은퇴기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하는 숨겨진 요인들이 이러한 경향성을 나타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일곱째,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은퇴기 가계의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지출비중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시간의 영향보다 가계특성 및 가계경제특성, 이벤트 요인의 영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식비와 교육비의 경우 은퇴기 동안의 가구원 수 감소로 인해, 보건의료비의 경우 가구주의 건강변화와 배우자와의 사별 등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크게 변화되었고,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때 시간의 경과는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다.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역시 시간 외의 다른 요인을 통제하여 추정한 결과 시간에 따라 지출비중이 변화하는

경향성이 희석되었다. 각 소비비목별로 지출규모와 비중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가계의 소비지출양식 변화에 전반적으로 기여한다고 일반화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은퇴가 가계에 대한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 중요 소비비목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개별 가계가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소비비목의 지출수준을 추정할 때 가계 및 가계경제 특성이나 이벤트요인(혼인상태의 변화, 건강변화 등)을 반영한 추정방식을 활용하면 보다 정교한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계의 은퇴 전후, 은퇴생활기간의 소비지출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 직후 소비는 은퇴 전 대비 3.9%~8.9% 감소하며, 은퇴 후 감소한 소비수준은 은퇴 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연간 약1.5%씩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가 전 생애에 걸쳐 소비를 평활화한다는 생애주기설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를 이론적 바탕으로 한 기존의 은퇴 필요자금 추정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경향성은 은퇴자 가계의 소비지출을 평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기에 일반론적인 은퇴설계안 도출에 활용하기에는 적합하나 개별 은퇴자 가계의 소비지출변화의 양상을 보다 세밀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 외에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제언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 실무적 및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 후 소비는 은퇴 전에 비해 감소하며, 이후 은퇴생활 가운데 다소 증감이 있으나 전반적인 소비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됨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은퇴설계는 은퇴 후 소비지출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됨을 가정

하고 은퇴필요자금을 산정해 왔다. 은퇴 이후부터 기대여명까지 동일한 수준의 소비지출을 가정하는 것은 은퇴 필요자금을 실제로 소요되는 자금보다 과대, 과소 산정하게 만들 수 있다. 과다하게 산정된 은퇴필요자금은 소비를 줄여 은퇴준비 저축을 하는 가계의 현재 시점의 복지를 낮추는 요인이며, 과소하게 산정된 은퇴필요자금은 은퇴자산의 조기 고갈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은퇴설계 솔루션은 은퇴기 필요 생활비를 추정하는 모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조건의 가진 가계의 소비지출 경향성을 참고로 제시하되, 은퇴자 가계가 예상하는 삶의 요소들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필요생활비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퇴기 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은 은퇴기 동안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보건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다른 소비비목의 지출을 제한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계가 지출하게 될 보건의료비를 적절히 보조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은퇴자 가계의 총 소비지출에서 보건의료비지출 비중을 합리화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은퇴기에는 식비와 주거비 등 생계관련 필수지출을 중심으로 하는 다소 단조로운 소비지출경향이 나타나거나 총 소비지출규모의 축소로 인해 가계의 복지감이 저하될 수 있다. 은퇴기 가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욕구(needs)를 넘어 필요(wants)도 적절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수재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 및 보조 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비교적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은퇴기 가계소비지출 변화 궤적을 파악하고, 소비지출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자료의 제약 및 연구방법 상의 한계로 충분한 결과를 얻는데 무리가 있었다. 예를 들어 조사기간 내에서 혼인상태의 변화를 겪은 사례 수가 부족하여 도출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웠고, 장기간의 소비지출변화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특정시점, 특정요

소에 의한 일시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워 추세를 그리는 과정에서 그 영향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변화 요인을 고려하는 가운데 요인들의 동시적인 변화나 서로 연관된 변화에 의한 상호작용을 적절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은퇴기 가계가 겪는 여건의 변화나 생애 이벤트에 의한 소비지출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시계열 분석 기간을 변화가 발생한 시기 전후로 축소하고, 관심을 두는 변화요소 별로 독립된 연구문제를 구성하여 분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몇몇 변수의 설정이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먼저 종단적 다층모형은 가계의 변하지 않는 특성이나 성질(TIC)이 시점별 종속변수의 수준과 시간에 따른 변화율 모두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모형이나 본 연구에서 시불변변수의 구성이 충분히 정교하지 못하였다. 본 분석 모형에 포함된 상속동기와 기대수명의 불확실성 염려의 경우 은퇴기의 전반적인 소비지출 수준과 시간에 따른 변화율 모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나 자료의 제약으로 제한된 문항을 활용하여 대리변수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상속동기와 기대수명의 불확실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리변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리변수의 적절성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로 살펴볼 때, 은퇴기 가계의 가구규모와 가구 구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연구모형의 확정과정에서 자녀관련 변수를 포함하게 되면서 미혼 가계가 배제되었고, 가구주가 변하는 경우를 포괄하지 못함에 따라 가구주의 사망 후 배우자만 남게 된 가계의 소비지출을 추정할 수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가구유형에 따라 상이한 실증모형을 구축해 볼 필요가 있으며, 부부가 모두 응답한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은퇴기 부부 중 한쪽의 변화가 남은 배우자의 은퇴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흥미로운 분석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은퇴 전후, 은퇴 생활기간 동안의

가계 소비지출의 변화는 실제 가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적인 변화의 양상을 추정해서 보여준 것이기에 표준적이고 바람직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기 소비지출은 은퇴자들이 바라는 삶과 괴리가 있을 수 있고, 연구 결과 상으로 표현된 소비생활이 어느 정도의 만족을 주는지는 연구의 범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기준점으로서 일반화하여 해석,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참 고 문 헌

- 강혜원·한경혜(2005), 부정적 가족 생활사건, 배우자 지지와 정신건강-성별차이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3(8), 55-68.
- 김용진(2013), 유산상속 의향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주택연구*, 21(3), 79-99.
- 김은영(2014), 빈곤노인의 은퇴 수 노동시장 재취업,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9-40
- 김정근(2014), 배우자 사별과 중고령층의 소득수준: 성별영향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4(3), 649-664.
- 김진영·권오정(2015), 노년기 주거이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분석: 수도권 신도시로 이사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노년학*, 35, 525-541.
- 김혜련·최현자(1999), 유형별 가계소득과 자산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 주거보유형태별 분석-, *대한가정학회*, 37(10), 91-106.
- 권문일(1996), 노인의 은퇴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인식·최필선(2012),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지필미디어.
- _____ (2012),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지필미디어.
- 석상훈·장선구(2009), 은퇴 전후의 소득 및 소비 비교 성장곡선모형을 통한 분석. 제 10 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발표자료집, 831-947.
- 석상훈(2010), 패널자료로 추정된 소득대체율 분석, *보건사회연구*, 30(2), 5-28.

- 석재은·원종욱·김수봉·백화중·김태완(2002),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2003),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수준 연구. 한국인구학, 26(1), 79-113.
- 성영애·양세정(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7.
- 손상희(1993), 가계소비패턴의 구조, 소비자학연구, 4(2), 51-72.
- 손정연·한경혜(2015), 베이비부머의 생애사건 경험이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 (APIM) 의 적용. 한국노년학, 35, 491-507.
- 송윤아(2009), 개인연금 가입요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KIRI Weekly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 전승훈(2005), 은퇴결정 및 은퇴 후 소비와 소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홍중(2013), 미국 노년기 부부의 건강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 한국노년학, 33(1), 1-19.
- 안종범·전승훈(2003), 은퇴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제 4 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 안종범·전승훈(2004), 은퇴결정과 은퇴 전·후 소비의 상호작용. 노동경제논집, 27(3), 1-23.
- 안종범·전승훈(2005), 은퇴자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한국경제연구, 15, 5-33.
- 양세정·강미나(1995), 자산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6(1), 57-67.

- 양세화·오찬옥(2001), 주거비 지출구조 분석을 통한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비교,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2(4), 53-62.
- 양연선(1998),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최적소비선: 생애주기가설과 향상소득가설을 기초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윤경(2002), 목표 소득대체율을 통한 은퇴소비의 추정, 대한가정학회지, 40(3), 83-97.
- 이찬희·정홍주(2013), 개인연금 가입과 선호의 결정요인분석: 인지요인, 정서요인, 금융이해력, 신뢰, 위험감수성향을 중심으로. 금융연구, 27(4), 25-51.
- 윤재호·김현정(2010),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금융경제연구, 417. working paper.
- 윤정혜·김시월·장윤희·조향숙·송현주(2010), 패널자료 분석을 이용한 중·고령자 단독가계의 의료비지출 영향 요인, 소비자학연구, 21(4), 193-218.
- 원종욱(2000), 국민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분석, 보건복지포럼, 45, 32-42.
- 유경원(2012), 은퇴가구의 경제행태 분석, 보험연구원 경영보고서.
- 유경원·서인주(2016) 은퇴가 중·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2(2), 19-38.
- 이선형·김근홍(2003), 노인 가계지출구조 분석을 통한 집단 내 이질성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 43-60 정순희·김현정(2001),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관한 연구: 비노인, 예비노인, 노인가계간 비교분석, 노인복지연구, 12(0), 129-151.
- 이지현(2012), 중고령자 가계의 문화생활비 지출 및 여가생활 만족도 연구, 충남대학교 소비자학 석사학위 논문.

- 이윤금(1999),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 및 관련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73-86.
- 이찬희·정홍주(2016),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개인연금 가입의향의 결정요인 분석. 응용통계연구, 29(3), 409-424.
- 임정빈·김윤희(2000),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득·소비지출비교: 1982~ 1998.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63-176.
- 정영숙(2000), 소비지출패턴 : 연구동향과 미래전망, 소비자학연구, 11(2), 85-101.
- 정영숙(2002), 은퇴한 노인의 부 및 최적소비, 소비자학연구, 13(2), 81-97.
- 조혜진·김민정(2011), 은퇴기 단계에 따른 은퇴자 특성 연구, 소비문화연구, 14(4), 139-163.
- 최옥금(2011), 노인 가구의 소비지출 유형화 및 영향 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51, 277-296.
- 최현자·최은숙(198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경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35-51.
- 최홍철·최현자(2014),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와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3), 93-125.
- 홍공숙·김순미·김연정(1995), 미국노인의 유산상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45-55.
- 홍중구·손재영(2016), 연령대별 중고령가구 소비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89-105.
- Aguiar, M., & Hurst, E. (2008), Deconstructing lifecycle expenditure (No. w1389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Ando, A., & Modigliani, F. (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 Bahizi, P. (2003), Retirement expenditures for Whites, Blacks, and persons of Hispanic origin, *Monthly Labor Review*, 126, 20-22.
- Barrett, G. F., & Brzozowski, M. (2010), Involuntary retirement and the resolution of the retirement-consumption puzzle. Working Paper.
- Banks, J., Blundell, R., & Tanner, S. (1998), Is there a retirement-savings puzzle?, *American Economic Review*, 769-788.
- Basu, S. (2005), Age banding: A model for planning retirement need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6(1).
- Bernheim, B. D., Shleifer, A., & Summers, L. H. (1986),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Labor Economics*, S151-S182.
- Butrica, B. A., Goldwyn, J. H., & Johnson, R. W. (2005), Understanding expenditure patterns in retirement. Available at SSRN 1148888.
- Chiang, M. F. (2012), Retirement Consumption Behavior: Evidence from HRS CAMS 2001-2009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Davies, J. B. (1981), Uncertain lifetime, consumption, and dissaving in retirement,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61-577.
- Fernández-Villaverde, J., & Krueger, D. (2007), Consumption over the life cycle: Facts from consumer expenditure survey data.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9(3), 552-565.

- Haider, S. J., & Stephens Jr, M. (2007), Is there a retirement-consumption puzzle? Evidence using subjective retirement expectatio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9(2), 247-264.
- Harrison, B. (1986), Spending patterns of older persons revealed in expenditure survey, *Monthly Labor Review*, 109(10), 15-17.
- Hurd, M. D.(1989), Mortality Risk and Bequests, *Econometrica*, 57(4), 779-813
- Hurd, M., & Rohwedder, S. (2003), The retirement-consumption puzzle: Anticipated and actual declines in spending at retirement (No. w958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Hurd, M. D., & Rohwedder, S. (2005), Changes in consumption and activities in retirement, Michigan Retirement Research Center Research Paper No. WP, 96.
- Hurd, M. D., & Rohwedder, S.(2006), Alternative measures of replacement rates, Michigan Retirement Research Center Research Paper No. WP, 132.
- Hurd, M. D., & Rohwedder, S. (2008), The retirement consumption puzzle: actual spending change in panel data (No. w1392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Hurst, E. (2007), Consumption in retirement: Recent developments. Manuscript.
- Hurst, E. (2008), The retirement of a consumption puzzle (No. w1378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Kopczuk, W., & Lupton, J. P. (2007), To leave or not to leave: The distribution of bequest motive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4(1), 207-235.
- Laitner, J., & Silverman, D. (2005), Estimating life-cycle parameters from consumption behavior at retirement (No. w1116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Nagin, D. S. (1999),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4(2), 139.
- Smith, S. (2006), The Retirement consumption Puzzle and Involuntary Early Retirement_ Evidence from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The Economic Journal*, 116(510), C130-C148.
- Tomes, N. (1981), The family, inherita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28-958.

부 표

<부표1-1>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와 영향요인(조건부 성장모형)

ln(비목별 소비지출)		식비		교육비		
		coef.	s.e	coef.	s.e	
월평균 소비지출 절편		2.971***	0.418	-2.245	1.345	
시간에 따른 변화율		-0.047	0.028	-0.127	0.088	
고정효과	가계특성	가구원수	0.144***	0.012	0.774***	0.031
		초기 가구주 연령	-0.015*	0.007	-0.029	0.021
		초기 가구주 연령*변화율	0.001*	0.000	0.003	0.001
		가구주 성별 (기준: 남)	0.024	0.204	-0.173	0.685
		가구주 성별*변화율	-0.012	0.014	0.029	0.046
		가구주 교육수준	0.120**	0.042	0.195	0.143
		가구주 교육수준*변화율	-0.003	0.003	-0.010	0.010
	초기 거주형태 (기준: 자가)	전세	-0.099	0.130	0.590	0.442
		월세	-0.070	0.192	-0.394	0.654
		기타	0.167	0.373	-0.187	1.232
		전세*변화율	0.007	0.009	-0.037	0.030
		월세*변화율	-0.011	0.013	0.027	0.044
		기타*변화율	-0.018	0.026	-0.014	0.082
	초기 가구주 혼인상태 (기준: 기혼 유배우자)	별거 및 이혼	-0.197	0.236	0.174	0.773
		사별	-0.186	0.204	1.216	0.688
별거 및 이혼*변화율		0.012	0.016	0.017	0.052	
	사별*변화율	0.008	0.014	-0.051	0.047	
가계특성	ln 금융자산	0.002	0.002	-0.010*	0.004	
	ln 주택관련자산	0.014***	0.004	-0.004	0.010	
	ln 부채	0.000	0.002	-0.003	0.005	
	ln 가구 소득	0.134***	0.012	-0.037	0.029	
		var	s.e	var	s.e	
무선효과	u_{1j} (상수항의 오차항)	0.349	0.049	5.810	0.595	
	u_{2j} (기울기의 오차항)	0.002	0.000	0.026	0.003	
	e_{ij} (잔차)	0.150	0.004	0.761	0.021	
$cov(u_{1j}, u_{2j})$		-0.021	0.003	-0.371	0.040	
Log likelihood		-2119.454		-5051.813		

*p < .05, **p < .01, ***p < .001

<부표1-2>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와 영향요인-계속

ln(비목별 소비지출)		외식비		차량유지비			
		coef.	s.e	coef.	s.e		
월평균 소비지출 절편		-3.006	2.095	1.988	2.174		
시간에 따른 변화율		0.153	0.145	-0.073	0.144		
고정효과	가계특성	가구원수	0.137**	0.046	0.457***	0.045	
		초기 가구주 연령	0.013	0.027	-0.047	0.028	
		초기 가구주 연령*변화율	-0.001	0.002	0.000	0.002	
		가구주 성별 (기준: 남)	-0.917	0.824	-0.170	0.871	
		가구주 성별*변화율	0.013	0.060	-0.008	0.060	
		가구주 교육수준	0.347	0.179	0.377*	0.187	
		가구주 교육수준*변화율	-0.001	0.013	0.005	0.013	
		초기 거주형태 (기준:자가)	전세	-0.613	0.521	-0.205	0.553
			월세	0.278	0.809	0.357	0.849
			기타	-1.908	1.503	-1.005	1.609
	초기 가구주 혼인상태 (기준: 기혼 유배우자)	전세*변화율	0.053	0.037	-0.024	0.038	
		월세*변화율	-0.015	0.057	-0.062	0.057	
		기타*변화율	0.166	0.106	0.039	0.110	
	별거 및 이혼	사별	1.519	0.942	-0.593	0.993	
		사별	1.494	0.827	0.105	0.875	
별거 및 이혼*변화율		-0.090	0.067	0.030	0.067		
사별*변화율	사별	-0.097	0.060	0.014	0.060		
	사별*변화율	-0.097	0.060	0.014	0.060		
	사별*변화율	-0.097	0.060	0.014	0.060		
가계특성	ln 금융자산	0.031***	0.007	0.008	0.006		
	ln 주택관련자산	0.023	0.017	0.050**	0.016		
	ln 부채	0.008	0.007	0.008	0.006		
	ln 가구 소득	0.299**	0.045	0.191***	0.039		
심리적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0.935	0.317	-0.742*	0.331		
	주관적 건강상태*변화율	0.026	0.023	0.007	0.023		
	개인연금 가입여부	0.516	0.438	-0.004	0.457		
	개인연금 가입여부*변화율	-0.021	0.031	0.038	0.031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	0.236	0.421	-0.467	0.442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변화율	-0.034	0.030	0.047	0.030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	0.164	0.680	1.577*	0.709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변화율	0.015	0.048	-0.039	0.048			
이벤트요인	이사여부	-0.042	0.118	-0.072	0.100		
	거주형태 변화 (기준:변화없음)	자가→전,월세 기타	0.011	0.195	0.128	0.162	
		전,월세기타→ 자가	-0.179	0.186	0.059	0.157	
		기타 변화	-0.225	0.194	0.240	0.169	
	혼인상태 변화 (기준:변화없음)	기혼유배우→별거·이혼	-1.038	0.712	-0.225	0.889	
		기혼유배우→사별	-0.048	0.334	-0.228	0.267	
		별거·이혼·사별→기혼유배우	3.469***	0.839	-1.447	0.739	
가구주의 소득활동 참여	0.097	0.094	0.000	0.084			
건강변화	-0.019	0.052	0.028	0.044			
		var	s.e	var	s.e		
무선효과	u_{1j} (상수항의 오차항)	6.333	0.859	8.307	0.907		
	u_{2j} (기울기의 오차항)	0.034	0.005	0.037	0.004		
	e_{ij} (잔차)	1.639	0.048	1.223	0.035		
$cov(u_{1j}, u_{2j})$		-0.408	0.061	-0.434	0.058		
Log likelihood		-5874.220		-6028.323			

*p < .05, **p < .01, ***p < .001

<부표1-3>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와 영향요인-계속

ln(비목별 소비지출)		주거비		보건의료비		
		coef.	s.e	coef.	s.e	
월평균 소비지출 절편		3.245***	0.674	-5.642**	1.717	
시간에 따른 변화율		-0.064	0.046	0.192	0.117	
가계특성	가구원수	0.045**	0.015	0.071*	0.034	
	초기 가구주 연령	-0.016	0.009	0.018	0.022	
	초기 가구주 연령*변화율	0.001	0.001	0.000	0.002	
	가구주 성별 (기준: 남)	0.719***	0.261	0.195	0.677	
	가구주 성별*변화율	-0.053**	0.019	-0.016	0.048	
	가구주 교육수준	0.086	0.057	0.024	0.148	
	가구주 교육수준*변화율	-0.001	0.004	0.000	0.010	
	초기 거주형태 (기준: 자가)	전세	-0.023	0.166	-0.671	0.434
		월세	0.133	0.259	-1.700*	0.682
		기타	0.680	0.476	-0.041	1.238
		전세*변화율	0.005	0.012	0.024	0.031
		월세*변화율	0.002	0.018	0.090	0.048
		기타*변화율	-0.027	0.034	-0.037	0.086
	초기 가구주 혼인상태 (기준: 기혼 유배우자)	별거 및 이혼	-1.01**5	0.303	-0.379	0.780
		사별	-0.706**	0.259	-0.948	0.674
		별거 및 이혼*변화율	0.059**	0.021	0.027	0.054
	사별*변화율	0.040*	0.019	0.039	0.048	
가계특성	ln 금융자산	0.003	0.002	0.000	0.005	
	ln 주택관련자산	0.003	0.006	0.035**	0.013	
	ln 부채	0.006	0.002	0.013*	0.006	
	ln 가구 소득	0.154***	0.016	0.216***	0.037	
심리적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0.098	0.101	1.184***	0.263	
	주관적 건강상태*변화율	0.002	0.007	-0.056**	0.019	
	개인연금 가입여부	-0.017	0.139	0.751*	0.362	
	개인연금 가입여부*변화율	-0.003	0.010	-0.058*	0.025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	-0.231	0.134	-0.395	0.350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변화율	0.009	0.010	0.011	0.025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	0.107	0.217	0.423	0.560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변화율	-0.002	0.015	-0.005	0.039		
이벤트요인	이사여부	0.100*	0.044	-0.079	0.102	
	거주형태 변화 (기준: 변화없음)	자가→전, 월세 기타	0.114	0.072	-0.152	0.166
		전, 월세 기타→ 자가	-0.112	0.069	0.055	0.160
		기타 변화	-0.195**	0.073	-0.060	0.168
	혼인상태 변화 (기준: 변화없음)	기혼유배우→별거·이혼	0.269	0.279	-0.196	0.868
		기혼유배우→사별	-0.090	0.117	-0.907**	0.268
		별거·이혼·사별→기혼유배우	0.171	0.323	-0.792	0.722
가구주의 소득활동 참여	-0.032	0.032	-0.084***	0.074		
건강변화	-0.021	0.019	0.232	0.044		
		var	s.e	var	s.e	
무선효과	u_{1j} (상수항의 오차항)	0.526	0.080	4.425	0.564	
	u_{2j} (기울기의 오차항)	0.003	0.000	0.021	0.003	
	e_{ij} (잔차)	0.268	0.007	1.304	0.037	
$cov(u_{1j}, u_{2j})$		-0.033	0.006	-0.292	0.041	
Log likelihood		-3094.041		-5684.834		

*p < .05, **p < .01, ***p < .001

<부표1-4>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와 영향요인-계속

ln(비목별 소비지출)		통신비		경조사비		
		coef.	s.e	coef.	s.e	
월평균 소비지출 절편		3.537***	0.732	1.747	1.697	
시간에 따른 변화율		-0.144**	0.052	0.013	0.115	
가계 특성	가구원수	0.278***	0.018	0.057	0.033	
	초기 가구주 연령	-0.043***	0.009	-0.040	0.022	
	초기 가구주 연령*변화율	0.002**	0.001	0.001	0.002	
	가구주 성별 (기준: 남)	0.013	0.276	-1.075	0.678	
	가구주 성별*변화율	-0.013	0.021	0.074	0.048	
	가구주 교육수준	0.063	0.060	0.133	0.145	
	가구주 교육수준*변화율	0.001	0.005	-0.002	0.010	
	초기 거주형태 (기준:자가)	전세	-0.087	0.178	-1.113*	0.433
		월세	-0.172	0.277	-0.541	0.668
		기타	0.695	0.511	-1.175	1.241
		전세*변화율	0.005	0.014	0.059	0.030
		월세*변화율	0.007	0.021	-0.004	0.047
	초기가구주 혼인상태 (기준: 기혼 유배우 자)	기타*변화율	-0.062	0.038	0.036	0.086
		별거 및 이혼	-0.139	0.323	-0.037	0.774
		사별	-0.074	0.274	0.266	0.676
별거 및 이혼*변화율	사별*변화율	0.025	0.024	-0.026	0.054	
	사별*변화율	0.006	0.021	-0.064	0.048	
	사별*변화율	0.006	0.021	-0.064	0.048	
가계 경제 특성	ln 금융자산	0.010**	0.003	0.025***	0.005	
	ln 주택관련자산	0.016*	0.007	0.034**	0.012	
	ln 부채	0.003	0.003	0.009	0.005	
	ln 가구 소득	0.182***	0.019	0.328***	0.034	
심리 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0.219*	0.108	-0.217	0.260	
	주관적 건강상태*변화율	0.007	0.008	-0.015	0.018	
	개인연금 가입여부	0.049	0.149	0.670	0.357	
	개인연금 가입여부*변화율	-0.001	0.011	-0.051*	0.025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	-0.077	0.144	0.010	0.345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변화율	-0.004	0.011	-0.021	0.024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	-0.264	0.232	1.333*	0.551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변화율	0.011	0.017	-0.046	0.038	
이벤트 요인	이사여부	0.003	0.052	-0.153	0.091	
	거주형태 변화 (기준:변화없음)	자가→전,월세 기타	0.100	0.085	0.287	0.151
		전,월세기타→ 자가	0.160*	0.081	-0.054	0.144
		기타 변화	-0.044	0.086	0.335**	0.158
	혼인상태 변화 (기준:변화없음)	기혼유배우→별거·이혼	0.178	0.327	0.129	0.560
		기혼유배우→사별	-0.010	0.141	-0.175	0.250
		별거·이혼·사별→기혼유배우	0.468	0.379	0.229	0.647
가구주의 소득활동 참여	0.018	0.038	0.097	0.069		
건강변화	-0.031	0.023	0.017	0.040		
		var	s.e	var	s.e	
무선 효과	u_{1j} (상수항의 오차항)	0.521	0.096	4.622	0.582	
	u_{2j} (기울기의 오차항)	0.003	0.001	0.023	0.003	
	e_{ij} (잔차)	0.370	0.010	1.017	0.029	
$cov(u_{1j}, u_{2j})$		-0.037	0.008	-0.302	0.041	
Log likelihood		-3618.389		-5233.469		

*p < .05, **p < .01, ***p < .001

<부표1-5>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와 영향요인-계속

ln(비목별 소비지출)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비			
		coef.	s.e	coef.	s.e		
월평균 소비지출 절편		0.110	1.415	-2.365*	1.077		
시간에 따른 변화율		0.015	0.096	-0.061	0.088		
고정효과	가계특성	가구원수	0.058*	0.028	0.092**	0.027	
		초기 가구주 연령	-0.033	0.018	-0.014	0.014	
		초기 가구주 연령*변화율	0.002	0.001	0.002	0.001	
		가구주 성별 (기준: 남)	0.576	0.559	-0.003	0.405	
		가구주 성별*변화율	-0.053	0.039	-0.008	0.036	
		가구주 교육수준	0.170	0.121	-0.033	0.089	
		가구주 교육수준*변화율	0.000	0.008	0.002	0.008	
		초기 거주형태 (기준:자가)	전세	-0.366	0.358	-0.261	0.262
			월세	-0.604	0.561	0.541	0.402
			기타	1.570	1.016	0.248	0.743
			전세*변화율	0.021	0.025	0.025	0.023
			월세*변화율	0.008	0.039	-0.034	0.035
		초기 가구주 혼인상태 (기준: 기혼 유배우자)	기타*변화율	-0.115	0.071	-0.016	0.063
			별거 및 이혼	-1.454*	0.644	-0.172	0.471
			사별	-0.372	0.556	-0.021	0.404
가계특성	별거 및 이혼*변화율	0.109*	0.045	-0.001	0.041		
	사별*변화율	0.030	0.039	-0.001	0.037		
	ln 금융자산	0.014**	0.005	0.009*	0.004		
ln 주택관련자산	0.022*	0.010	0.016	0.011			
ln 부채	0.006	0.005	-0.006	0.004			
ln 가구 소득	0.245***	0.030	0.062*	0.028			
심리적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0.179	0.218	0.021	0.159		
	주관적 건강상태*변화율	-0.011	0.015	0.000	0.014		
	개인연금 가입여부	0.610*	0.298	-0.134	0.217		
	개인연금 가입여부*변화율	-0.038	0.021	0.015	0.019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	-0.082	0.288	0.033	0.212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변화율	-0.002	0.020	0.007	0.019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	-0.331	0.462	0.684*	0.338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변화율	0.031	0.032	-0.027	0.029			
이벤트요인	이사여부	0.076	0.084	-0.003	0.078		
	거주형태 변화 (기준:변화없음)	자가→전,월세 기타	0.127	0.136	0.015	0.122	
		전,월세기타→ 자가	-0.009	0.134	0.054	0.119	
		기타 변화	-0.094	0.140	-0.040	0.125	
	혼인상태 변화 (기준:변화없음)	기혼유배우→별거·이혼	-0.017	0.518	1.849***	0.451	
		기혼유배우→사별	0.081	0.217	-0.034	0.203	
별거·이혼·사별→기혼유배우	0.880	0.599	1.932**	0.642			
가구주의 소득활동 참여	0.047	0.060	-0.031	0.059			
건강변화	0.009	0.036	-0.020	0.033			
		var	s.e	var	s.e		
무선효과	u_{1j} (상수항의 오차항)	2.953	0.379	1.398	0.214		
	u_{2j} (기울기의 오차항)	0.014	0.002	0.017	0.002		
	e_{ij} (잔차)	0.902	0.025	0.687	0.020		
$cov(u_{1j}, u_{2j})$		-0.192	0.027	-0.139	0.019		
Log likelihood		-5044.068		-4466.039			

*p < .05, **p < .01, ***p < .001

<부표2-1>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와 영향요인(조건부 성장모형)

		식비 비중		외식비 비중			
		coef.	s.e	coef.	s.e		
월평균 소비지출 절편		21.240	11.556	-8.938	5.487		
시간에 따른 변화율		0.505	0.831	0.831*	0.387		
고정효과	가계특성	가구원수	-0.504*	0.236	-0.350***	0.095	
		초기 가구주 연령	0.377**	0.145	0.187**	0.070	
		초기 가구주 연령*변화율	-0.018	0.011	-0.014**	0.005	
		가구주 성별 (기준: 남)	3.300	3.932	-3.814*	1.878	
		가구주 성별*변화율	-0.345	0.282	0.132	0.132	
		가구주 교육수준	-0.623	0.855	-0.150	0.414	
		가구주 교육수준*변화율	0.013	0.061	0.030	0.029	
		초기 거주형태 (기준:자가)	전세	1.267	2.500	0.061	1.209
			월세	5.552	3.884	-1.351	1.873
			기타	-2.185	7.242	-4.740	3.390
	전세*변화율		0.012	0.179	0.013	0.085	
	초기 가구주 혼인상태 (기준: 기혼 유배우자)	월세*변화율	-0.576*	0.275	0.135	0.130	
		기타*변화율	0.325	0.515	0.374	0.235	
		별거 및 이혼	2.046	4.579	5.054*	2.163	
	사별	사별	-2.590	3.919	2.114	1.877	
별거 및 이혼*변화율		-0.116	0.323	-0.294	0.150		
사별*변화율		0.197	0.282	-0.097	0.132		
가계특성	ln 금융자산	-0.089*	0.037	0.028	0.015		
	ln 주택관련자산	-0.100	0.082	0.039	0.032		
	ln 부채	-0.064	0.038	0.010	0.015		
	ln 가구 소득	-2.660***	0.245	0.629***	0.097		
심리적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0.781	1.529	-2.304**	0.735		
	주관적 건강상태*변화율	0.207	0.110	0.113*	0.052		
	개인연금 가입여부	-2.353	2.094	0.968	1.009		
	개인연금 가입여부*변화율	0.104	0.146	-0.065	0.070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	0.142	2.035	2.024*	0.977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변화율	0.006	0.146	-0.162*	0.069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	-3.525	3.309	0.525	1.585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변화율	0.005	0.232	-0.031	0.109			
이벤트요인	이사여부						
	거주형태 변화 (기준:변화없음)	자가→전,월세 기타					
		전,월세기타→ 자가					
		기타 변화					
	혼인상태 변화 (기준:변화없음)	기혼유배우→별거·이혼					
		기혼유배우→사별					
별거·이혼·사별→기혼유배우							
가구주의 소득활동 참여							
건강변화							
		var	s.e	var	s.e		
무선효과	u_{1j} (상수항의 오차항)	116.014	17.708	36.440	4.483		
	u_{2j} (기울기의 오차항)	0.565	0.097	0.177	0.024		
	e_{ij} (잔차)	60.999	1.651	9.492	0.258		
$cov(u_{1j}, u_{2j})$		-6.956	1.262	-2.391	0.322		
Log likelihood		-12681.403		-9445.597			

*p < .05, **p < .01, ***p < .001

<부표2-2>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와 영향요인-계속

		교육비		차량유지비		
		coef.	s.e	coef.	s.e	
월평균 소비지출 절편		14.254*	6.380	15.947*	7.795	
시간에 따른 변화율		-1.301**	0.439	-0.044	0.542	
가계특성	가구원수	2.447***	0.131	0.421**	0.157	
	초기 가구주 연령	-0.274**	0.094	-0.116	0.098	
	초기 가구주 연령*변화율	0.020**	0.007	-0.005	0.007	
	가구주 성별 (기준: 남)	-2.100	2.594	-3.351	2.671	
	가구주 성별*변화율	0.190	0.178	0.115	0.185	
	가구주 교육수준	0.561	0.545	0.062	0.577	
	가구주 교육수준*변화율	-0.022	0.037	0.030	0.039	
	초기 거주형태 (기준: 자가)	전세	2.232	1.678	-0.160	1.692
		월세	-2.332	2.483	2.059	2.617
		기타	-0.415	4.714	-1.657	4.980
		전세*변화율	-0.130	0.115	-0.105	0.117
		월세*변화율	0.234	0.169	-0.274	0.178
		기타*변화율	0.017	0.321	0.012	0.345
	초기 가구주 혼인상태 (기준: 기혼 유배우자)	별거 및 이혼	0.327	2.989	0.021	3.103
		사별	5.834*	2.591	1.690	2.670
별거 및 이혼*변화율		0.031	0.203	-0.051	0.212	
	사별*변화율	-0.284	0.178	-0.086	0.186	
가정효과	ln 금융자산	-0.029	0.021	0.018	0.023	
	ln 주택관련자산	-0.052	0.043	0.056	0.054	
	ln 부채	-0.004	0.021	0.048*	0.024	
	ln 가구 소득	-0.151	0.136	0.719***	0.150	
심리적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2.666**	1.028	
	주관적 건강상태*변화율			0.070	0.071	
	개인연금 가입여부			-0.150	1.405	
	개인연금 가입여부*변화율			0.140	0.095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			0.412	1.373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변화율			0.047	0.095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			3.633	2.225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변화율			-0.053	0.151		
이벤트요인	이사여부					
	거주형태 변화 (기준: 변화없음)	자가→전, 월세 기타				
		전, 월세기타→ 자가				
		기타 변화				
	혼인상태 변화 (기준: 변화없음)	기혼유배우→별거·이혼				
		기혼유배우→사별				
별거·이혼·사별→기혼유배우						
가구주의 소득활동 참여						
건강변화						
		var	s.e	var	s.e	
무선효과	u_{1j} (상수항의 오차항)	66.426	8.006	62.087	8.556	
	u_{2j} (기울기의 오차항)	0.279	0.038	0.261	0.041	
	e_{ij} (잔차)	20.600	0.556	20.707	0.565	
$cov(u_{1j}, u_{2j})$		-4.106	0.541	-3.037	0.545	
Log likelihood		-10723.305		-11000.006		

*p < .05, **p < .01, ***p < .001

<부표2-3>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와 영향요인- 계속

		주거비 비중		보건의료비 비중			
		coef.	s.e	coef.	s.e		
월평균 소비지출 절편		17.270*	6.880	-27.571**	10.231		
시간에 따른 변화율		0.624	0.521	0.716	0.756		
고정효과	가계특성	가구원수	-1.350***	0.181	-0.887***	0.214	
		초기 가구주 연령	0.184	0.099	0.223	0.128	
		초기 가구주 연령*변화율	-0.011	0.008	-0.002	0.010	
		가구주 성별 (기준: 남)	7.419**	2.732	-0.297	3.418	
		가구주 성별*변화율	-0.429*	0.207	0.034	0.254	
		가구주 교육수준	-0.449	0.565	-0.563	0.748	
		가구주 교육수준*변화율	0.013	0.043	0.014	0.055	
		초기 거주형태 (기준: 자가)	전세	1.898	1.755	-2.383	2.194
			월세	6.296*	2.594	-6.502	3.420
			기타	2.733	5.143	0.851	6.335
			전세*변화율	0.025	0.133	0.090	0.162
			월세*변화율	-0.080	0.194	0.407	0.250
		초기 가구주 혼인상태 (기준: 기혼 유배우자)	기타*변화율	0.407	0.382	-0.055	0.462
			별거 및 이혼	-7.236*	3.215	-1.334	4.010
			사별	-4.246	2.720	-4.624	3.394
	별거 및 이혼*변화율	0.355	0.237	0.171	0.292		
	사별*변화율	0.288	0.208	0.226	0.253		
	ln 금융자산	-0.062*	0.028	-0.019	0.035		
가계특성	ln 주택관련자산	-0.250***	0.068	0.169*	0.080		
	ln 부채	-0.001	0.029	-0.011	0.036		
	ln 가구 소득	-1.450***	0.185	0.324	0.232		
	주관적 건강상태			7.283***	1.341		
심리적요인	주관적 건강상태*변화율			-0.302**	0.100		
	개인연금 가입여부			-0.382	1.836		
	개인연금 가입여부*변화율			-0.029	0.132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			-2.366	1.787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변화율			0.134	0.132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			-0.695	2.903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변화율			0.095	0.209		
이벤트요인	이사여부	0.485	0.495	-0.460	0.632		
	거주형태 변화 (기준: 변화없음)	자가→전, 월세 기타	0.099	0.810	-1.189	1.038	
		전, 월세기타→ 자가	-2.696**	0.776	-1.077	0.995	
		기타 변화	-2.612**	0.820	-0.441	1.045	
	혼인상태 변화 (기준: 변화없음)	기혼유배우→별거·이혼	1.902	3.654	-4.273	4.718	
		기혼유배우→사별	1.114	1.329	-6.496***	1.707	
		별거·이혼·사별→기혼유배우	-4.995	4.539	-1.828	5.795	
	가구주의 소득활동 참여	-0.039	0.384	-0.683	0.472		
건강변화	-0.452*	0.217	1.387***	0.279			
		var	s.e	var	s.e		
무선효과	u_{1j} (상수항의 오차항)	50.896	8.814	77.293	13.535		
	u_{2j} (기울기의 오차항)	0.334	0.056	0.437	0.083		
	e_{ij} (잔차)	34.005	0.924	57.200	1.547		
$cov(u_{1j}, u_{2j})$		-3.234	0.668	-5.054	1.034		
Log likelihood		-11714.486		-12494.674			

*p < .05, **p < .01, ***p < .001

<부표2-4>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와 영향요인-계속

		통신비		경조사비		
		coef.	s.e	coef.	s.e	
월평균 소비지출 절편		9.521*	4.307	11.145*	5.579	
시간에 따른 변화율		-0.039	0.306	-0.084	0.390	
가계 특성	가구원수	0.671***	0.083	-0.755***	0.099	
	초기 가구주 연령	-0.046	0.063	-0.047	0.071	
	초기 가구주 연령*변화율	0.000	0.005	-0.001	0.005	
	가구주 성별 (기준: 남)	0.199	1.733	-2.678	1.902	
	가구주 성별*변화율	-0.041	0.122	0.195	0.133	
	가구주 교육수준	-0.125	0.366	-0.365	0.420	
	가구주 교육수준*변화율	-0.003	0.026	0.018	0.029	
	초기 거주형태 (기준:자가)	전세	-0.197	1.127	-3.588**	1.224
		월세	-0.774	1.669	-1.598	1.901
		기타	0.876	3.115	-0.968	3.458
		전세*변화율	0.049	0.079	0.234**	0.085
		월세*변화율	0.062	0.118	0.072	0.132
	초기가구주 혼인상태 (기준: 기혼 유배우 자)	기타*변화율	-0.093	0.216	0.014	0.239
		별거 및 이혼	1.605	1.991	2.733	2.204
사별		2.011	1.728	-0.375	1.896	
고정효과	별거 및 이혼*변화율	-0.074	0.139	-0.262	0.152	
	사별*변화율	-0.111	0.122	-0.070	0.133	
	ln 금융자산	-0.019	0.014	0.016	0.016	
가계 경제 특성	ln 주택관련자산	0.065*	0.028	0.006	0.033	
	ln 부채	-0.012	0.014	0.031	0.016	
	ln 가구 소득	-0.482***	0.092	0.486***	0.106	
	주관적 건강상태			0.037	0.747	
심리 적 요 인	주관적 건강상태*변화율			-0.053	0.052	
	개인연금 가입여부			-0.037	1.026	
	개인연금 가입여부*변화율			-0.027	0.070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			-0.758	0.992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변화율			0.029	0.069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			5.685***	1.615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변화율			-0.247*	0.111	
이 벤 트 요 인	이사여부					
	거주형태 변화 (기준:변화없음)	자가→전,월세 기타				
		전,월세기타→ 자가				
		기타 변화				
	혼인상태 변화 (기준:변화없음)	기혼유배우→별거·이혼				
		기혼유배우→사별				
별거·이혼·사별→기혼유배우						
가구주의 소득활동 참여						
건강변화						
		var	s.e	var	s.e	
무선 효과	u_{1j} (상수항의 오차항)	31.015	3.633	32.963	4.553	
	u_{2j} (기울기의 오차항)	0.148	0.019	0.147	0.024	
	e_{ij} (잔차)	10.249	0.276	12.405	0.338	
$cov(u_{1j}, u_{2j})$		-2.091	0.261	-2.088	0.325	
Log likelihood		-9402.817		-9798.361		

*p < .05, **p < .01, ***p < .001

<부표2-5> 은퇴기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와 영향요인-계속

		교양오락비 비중		내구재 구입비 비중			
		coef.	s.e	coef.	s.e		
월평균 소비지출 절편		-2.287	3.736	0.225	0.165		
시간에 따른 변화율		0.584*	0.285	0.046**	0.014		
고정효과	가계특성	가구원수	-0.385***	0.087			
		초기 가구주 연령	0.065	0.046			
		초기 가구주 연령*변화율	-0.006	0.004			
		가구주 성별 (기준: 남)	0.832	1.232			
		가구주 성별*변화율	-0.068	0.095			
		가구주 교육수준	0.407	0.268			
		가구주 교육수준*변화율	0.002	0.020			
		초기 거주 형태 (기준: 자가)	전세	-0.348	0.783		
			월세	1.165	1.223		
			기타	1.363	2.317		
			전세*변화율	0.008	0.060		
			월세*변화율	-0.125	0.092		
		초기 가구주 혼인상태 (기준: 기혼 유배우자)	기타*변화율	-0.151	0.175		
			별거 및 이혼	-1.939	1.468		
			사별	-0.122	1.220		
별거 및 이혼*변화율	별거 및 이혼*변화율	0.179	0.110				
	사별*변화율	0.029	0.094				
가계경제특성	ln 금융자산	0.014	0.015				
	ln 주택관련자산	0.024	0.032				
	ln 부채	-0.007	0.015				
	ln 가구 소득	0.211*	0.098				
심리적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0.106	0.483				
	주관적 건강상태*변화율	-0.049	0.037				
	개인연금 가입여부	-0.244	0.659				
	개인연금 가입여부*변화율	0.017	0.049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	-0.588	0.644				
	따로사는 자녀와의 왕래*변화율	0.031	0.049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	-2.209*	1.047				
따로사는 자녀에 경제적 지원*변화율	0.124	0.078					
이벤트요인	이사여부						
	거주형태 변화 (기준:변화없음)	자가→전,월세 기타					
		전,월세기타→ 자가					
		기타 변화					
	혼인상태 변화 (기준:변화없음)	기혼유배우→별거·이혼					
		기혼유배우→사별					
별거·이혼·사별→기혼유배우							
가구주의 소득활동 참여							
건강변화							
		var	s.e	var	s.e		
무선효과	u_{1j} (상수항의 오차항)	4.494	1.692	0.429	0.300		
	u_{2j} (기울기의 오차항)	0.030	0.010	0.012	0.004		
	e_{ij} (잔차)	11.227	0.299	6.266	0.160		
$cov(u_{1j}, u_{2j})$		-0.247	0.126	-0.073	0.037		
Log likelihood		-9539.174		-8357.6302			

*p < .05, **p < .01, ***p < .001

Abstract

A Study on Changes in Consumption Expenditures of the Retired Household

Sim, Hyeon Jeong
Dept. of Consum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mid-2000s, social interest on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began to rise. The government actively implemented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and expanded the national pension plan so that the people can live a stable retirement life. Financial companies also have interests in the retirement market and have expanded their marketing efforts on retirement wealth management.

Initially, academic and market interests about retirement included how much funds should be prepared for retirement and how to grow the funds. However, as social interest and understanding about retirement matures and the number of retirees grows, the interest of

academics and markets, which was primarily retirement preparation, are changing to the after-retirement life design. Especially, as retirement life is extended due to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retrenchment of retirement age, retirement preparation solutions, which focus only on raising the retirement funds without consideration of retirement life, can not adequately cope with unexpected economic changes that may occur after retirement.

Thus, it is important to analyze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in order to understand retirement life. The size and patterns of consumption expenditures of a retired household reflects the needs and wants of the retired household more closely, because the household has to live within limited income and asset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that analyzed the consumption expenditures of retired households. Some studies estimated the level of consumption expenditures of retirement life from the viewpoint of income replacement rate or cost of living for the elderly and others analyzed the consumption patterns of retired households. However, since previous studies mainly adopted a cross-sectional approach or inter-time comparison method, they could not deal with the continuous changes in consumption expenditures over the retirement period.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needs and wants of retired households more realistically by analyzing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consumption expenditures of retired households. We used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3rd-18th wave data and applied different analysis models to different sample according to the research subjects. We compared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before and after retirement and we analyzed the effect of retirement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by using panel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we used a longitudinal multilevel model to estimate the trajectory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we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expenditur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Korean households tend to reduce consumption after retirement. As a result of comparing household spending before and after retirement,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 of the year following retirement decreased by 8.9% as compared to the year before retirement. However this tendency differs according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retirement-related factors rather than appearing at the same level in all households.

Second, although there i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expenditures of certain consumption categories after retirement, overall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did not largely change after retirement. Work-related and education expenditures decreased. However, there was no large change in the rank of consumption categories. Also, the share of each consumption category among total expenditures was not significantly changed before and after retirement. In addition, after retirement, the share of essential expenditures such as food and groceries, housing maintenance, and health and medical costs to total spending increased. This shows that after retirement, consumption expenditures based on needs were more important than consumption expenditures based on wants.

Third, retirement reduced total household spending by 3.9%, even when controlling changes for other conditions that affect household retirement consumption. However, retirement did not significantly change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It can be speculated that psychological changes due to retirement or changes in consumption

needs due to lifestyle changes had a negative effect on spending. As spending on each consumption category tended to be influenced by changes in household income,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the age of the householder, retirement itself did not change the tendency of household consumption.

Fourth, the consumption expenditures of retired households tended to decrease gradually over time. Total household spending of retired households decreased by 1.5% per year on average. If we estimate the retirement funds by reflecting this fact, we can realize the amount of needed funds, which has been excessively estimated by assuming that consumption expenditures are constant after retirement.

Fifth, the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 of retired households showed a decreasing trajectory over time. However, when examined in detail, the spending of households fluctuated by the influence of household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event factors, but within a decreasing tendency. Therefore, in order to estimate the level of consumption expenditures of a specific retired household in detail, we shoul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hanges of those factors that affect household spending.

Sixth, during the retirement life, the level and share of expenditures of certain consumption categories showed a tendency that change with time lapse. Food and groceries, education, communication, and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expenses de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eating out, health and medical care, recreation, and durable goods expenses increased significantly. In addition, essential expenditures such as food and groceries, health and medical costs, housing maintenance were relatively constant over time and the changes of optional expenditures were more prominent.

Seven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spending size

and the share of each consumption category, the influences of household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event factors were more apparent than the influence of time. Thus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at certain factors create an overall contribution to changes in retirement consumption patterns, since the factors that influence spending size and share of each consumption category are different. However, by using the estimating method that comprehensively reflects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event factors for analyzing the spending of each consumption category, we can obtain sophisticated estimates that are useful in practical applications.

Finally, according to the results, household consumption right after retirement is 3.9% ~ 8.9% lower than before retirement, and the consumption level decreases by 1.5% per annum as retirement life continues. These results are inconsistent with 'life-cycle hypothesis', and suggest that a critical approach to current retirement fund estimation is needed.

The practical and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tirement fund calculation method, which assumes that expenditures after retirement are fixed, and to develop a more elaborate retirement solution by embodying the expenditure estimation model that reflects household characteristics.

Retired household consumption patterns are likely to focus on essential expenditures, which may limit spending of other consumption categories that meet the diverse needs of househol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pending burden of the household in regard to essential consumption categories such as food and groceries, housing maintenance, and health and medical care expenditures. Also, the government should try to provide appropriate

support so that the welfare of retired households is not impeded.

This study covers consumption expenditures during retirement period as well as before and after retirement, and can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retired household expenditures. In additio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rovide more realistic retirement preparation guidelines by empirically grasping the level of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changes. Finally, this study can help retired households predict and anticipate changes in spending after retirement by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cause changes in household spending during retirement.

**keywords : Retired households,
Consumption expenditure estimation,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Retirement Consumption Puzzle,
Changes i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Longitudinal multilevel model**

Student Number : 2010-31117